

2016 | ANNUALLY 제 32 호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농심을 품고

협동조합이념을 가슴에 품고
농업인과 고객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농민 속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열정과 의지로
농민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곁으로

국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구현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NH 농협은행 속초시지부

지 부 장 박 종 훈
농정단장 천 춘 욱

농민속으로, 국민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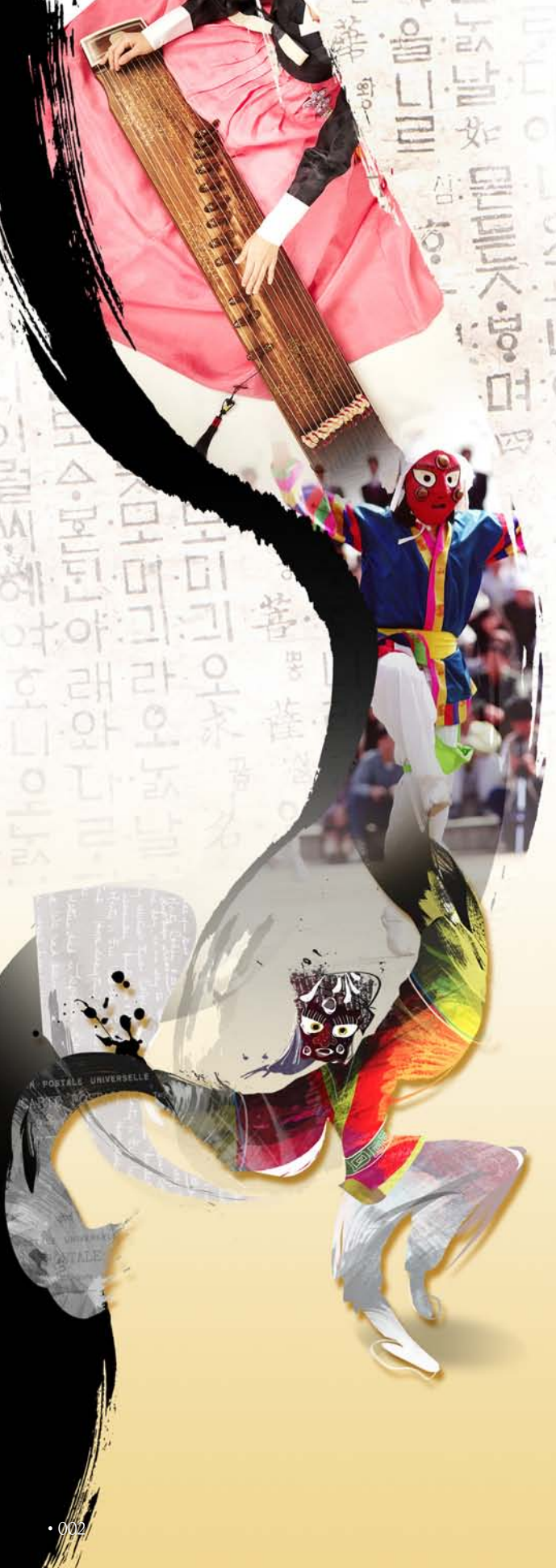
NH  **농협**



속초문화

2016 · 제32호

Sokcho-Culture Journal



CONTENTS

속초문화 여는 장

- 005 권두시
- 006 권두회호

- 008 발간사 - 박무웅(속초문화위원장)
- 009 회원모집 - 속초문화원 회원모집

속초문화원 365

- 012 효행청소년 시상
- 013 청소년문화예술교육
- 014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미당
- 016 제24기 향토문화학교
- 018 강원문화대축전 외
- 019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020 도문농요 보전 전승
- 021 북청사지놀이 전수 및 공연
- 022 어린문화활동가 양성
- 024 어린문화나눔봉사단
- 026 문화예술동아리
- 027 속초문예대학
- 028 학교문화예술교육
- 030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 031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 032 문화유적답사
- 033 설악제례
- 034 향토사인내서 발간
- 035 시군 문화 행사
- 036 속초문화원 가족동정
- 038 향토문화학교 전시회 지상전시
- 042 도시변천사기록사업 지상전시회

속초문화

2016 · 제32호

특집 1

048 속초사자놀음의 전승과 정착양상/장정룡

특집 2

068 속초 근대 역사의 문화자원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기획

080 배묵수 전용원 구술사

문화예술인 _ 임수철

096 임수철의 음악과 세계
098 속초와 나 그리고 음악

문화현장

108 문화두레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10 실향민 문화공연단 돈돌라리오
114 축제모니터링보고서

문화예술해적이

120 설악신문으로 본 문화예술 해적이

문화상

136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

문화원 현황

137 속초문화원 임직원

- (우)2482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 Tel. 033 632 1231, 639 2439 • Fax. 033 632 1241
- www.sokcho-culture.com • E-mail : sc2439@kccf.or.kr
- 펴낸곳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박무웅 • 편집인 : 김인섭
- 발행일 : 2016. 12. 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속초 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 표지 제작 : 정봉재(속초예총 회장)



속초시민위원회 모집

속초문화원에서는 지역의 향토사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신 시민 여러분을 속초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속초문화 연구 및 자료수집에 동참해주실 분은
 속초문화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하며 발굴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활동분야**
 - 기초 자료조사 : 신문, 생활용품, 사진, 발간물 등 지역문화에 관계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일
 - 향토문화 현지조사 : 민요, 설화, 민속 등 속초의 옛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연구
 - 시민구술사 : 속초시민의 삶을 듣고, 기록하며 속초시민생활사를 만드는 일
- **응모자격** : '속초 향토문화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향토문화학교 : 속초의 문화와 예술, 향토사 자료수집의 연구방법 및 의미, 구술사 방법 등 향토문화 전반에 대한 소개
- **문의 및 응모** : 지원서 작성(속초문화원 방문, 홈페이지 다운) 632-1231(팩스 632-1241)

 속 초 문 화 원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제25기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집시기** : 2017년 2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프로그램** : 한문서예, 한지공예, 장구교실, 사물중급, 사물고급, 노래교실, 통소교실, 민요교실, 고전무용
- **등록비** : 연 3만원
- ※ 문화원 회원은 강좌 당 1만원 할인 혜택
-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



나뭇가지 하나

채재순

멀리 가는 철새 부리에
 나뭇가지 하나
 저렇게 움켜쥐기 까지
 물었다 놓은 나뭇가지는 또 몇 짐일까

날갯짓,
 그 탕탕해진 울림으로
 아침은 붉어 오고
 박차고 가 달아야 할 곳을 떠올리는 순간
 온 힘이 집중되어 핏기 번지는 부리

바다 건너가다 힘 부치는 순간
 나뭇가지 내려놓고
 그 위에서 잠깐 쉰 후
 천리 길 다다를 수 있는 힘이라니

뺏속까지 파고드는
 바람 채찍에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나뭇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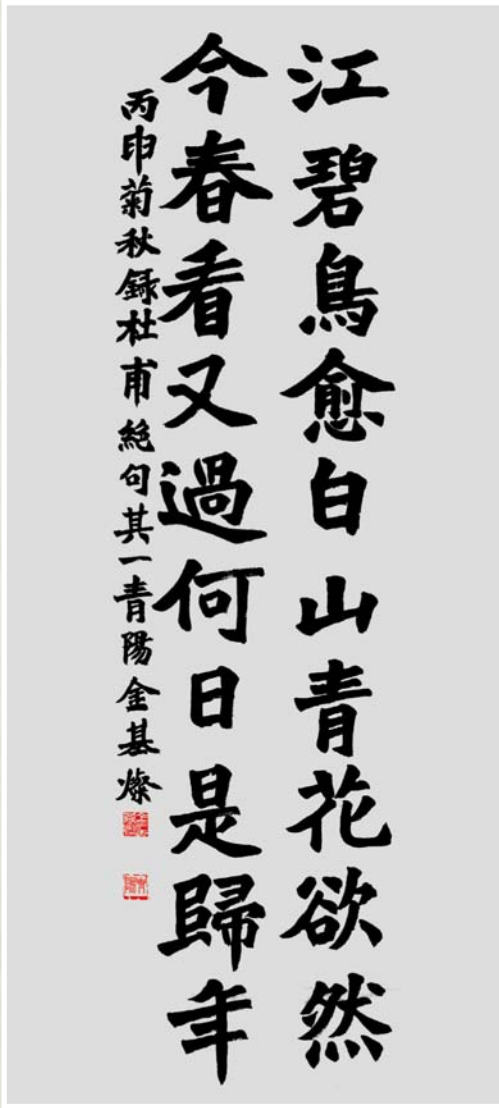
공중에 남긴 드높은 날갯짓으로
 구름이 일고 있다



채재순 약력

- 1994년 시문학으로 등단
- 시집 '바람의 독서' 외 2권
- 문인협회 속초지부 회장
- 고성 오호초등학교 교감
- 갈매, 빈터, 산까지 회원으로 활동 중





두보 선생시 '향수'

강물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어 보이고
산이 푸르니 꽃이 더 타는 듯 붉네
금년 봄도 객지에서 보낼 것인지
언제나 고향에 돌아가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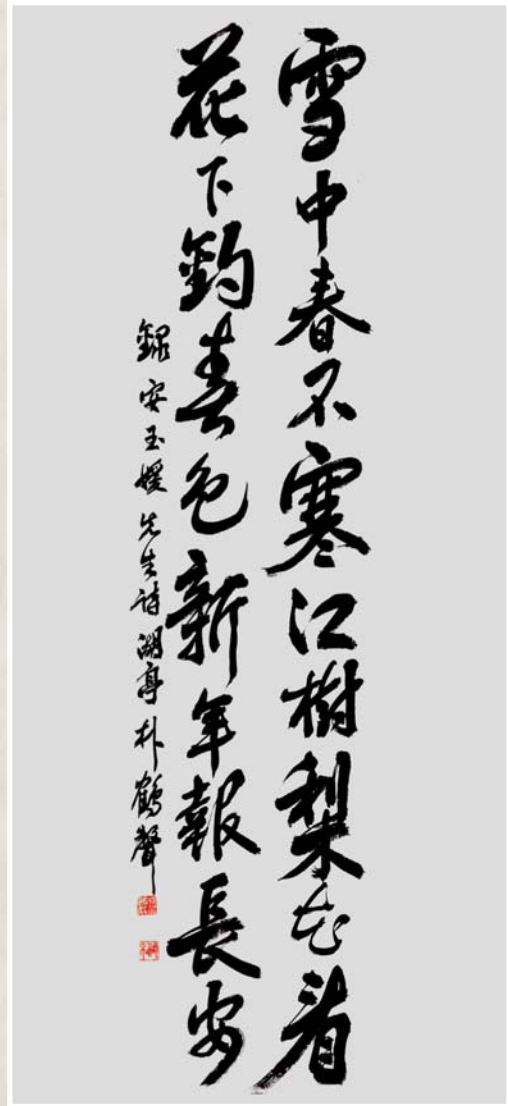


青陽
김기환

- 운곡서예 문인화대전 특선
- 회원전 출품 1회

안옥원 선생시 '한강소설'

눈 속에서 봄은 춥지 않아
강 언덕에 피는 배꽃
그 꽃 밑에서 봄 빛을 누아
저 서울에 알리는 새소식



湖亭
박학성

- 강원서예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 동아예술대전 최우수상, 초대작가
-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이사
- 현) 속초서우회 회장



우리지역을 되돌아보는 것, 문화발전의 시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32번째 속초문화를 발간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연초 문화원이 가고자 했던 방향과 결과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도 속초문화원은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속초시, 경동대학교, 속초교육문화관 등 기관과 협력해 문예대학을 개설하여 다양한 인문학강좌를 요구한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문화자원봉사단 ‘설악문화나눔친구들’, 실향민문화공연단 ‘돈돌라리요’ 등 어르신문화활동가들의 활약도 대단하였습니다. 설악문화나눔친구들은 올해만 154차례 찾아가는 문화나눔활동을, 돈돌라리요는 총 16차례 다양한 관내외 행사 공연을 하였고 KBS 여섯시 내고향에 출연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출발점인 도시변천사기록사업은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도시변천사 10개년 계획안을 작성하여 조사할 자원들을 목록화 하였고, 근대 역사의 문화자원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속초도시생활사 전시회를 통해 향토사 조사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다양한 활동의 결과 속초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강원도지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문화가족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가족들의 든든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속초문화원장
박무웅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향토사안내서, 속초문화지 등 속초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DVD, 도서, 음반,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회비 : 연 4만원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참여하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365



- 효행청소년 시상
- 청소년문화예술교육
-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제24기 향토문화학교
- 강원문화대축전 외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도문농요 보전 전승
- 북청사자놀이 전수 및 공연
-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문화예술동아리
- 속초문예대학
- 학교문화예술교육
- 도시변천사기록사업
- 문화체육자원봉사매칭시스템
- 문화유적답사
- 설악제례
- 향토사안내서 발간
- 속초문화원 가족동정
- 향토문화학교 전시회 지상전시
- 도시변천사기록사업 지상전시회

2016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은 매년 관내 16개 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청소년 시상을 진행했다. 품행이 방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발.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효행청소년상'을 시상했다. 본원은 매년 치르는 이 상의 시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문화가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



孝子

• 2016 효행청소년상 수상자

번호	학교	학년반	성명	비고
1	속초초등학교	6학년 3반	황시연	
2	중앙초등학교	6학년 1반	강태희	
3	영랑초등학교	6학년 1반	김남현	
4	교동초등학교	6학년 6반	김지수	
5	온정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지수	
6	청대초등학교	6학년 4반	윤서현	
7	청봉초등학교	6학년 2반	김영석	
8	청호초등학교	6학년 친절반	고대훈	
9	대포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승수	
10	설악초등학교	6학년 초롱꽃반	오서진	
11	소야초등학교	6학년 1반	김단아	
12	조양초등학교	6학년 2반	오수민	
13	속초중학교	3학년 1반	김민재	
14	속초여자중학교	3학년 1반	한예림	
15	설악여자중학교	3학년 10반	이선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대상과 시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청소년들이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향토사 교육을 위스타트 속초마을과 설악여자중학교, 속초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여름방학문화프로그램으로 속초문화원 대표 문화예술강좌인 '영화야놀자', 도문동 농사문화와 오토마타목공체험을 결합한 제1회 도문농요 아트캠프를 기획하여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 향토사 강좌

향유기관	향유인원	진행강사	회차	비고
위스타트 속초마을	30명	2명	20회	
설악여자중학교	60명	2명	16회	
속초여자중학교	30명	1명	12회	

• 여름방학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향유인원	진행강사	비고
여름방학문화강좌 '영화야 놀자'	8월1일 ~ 8월12일 09:30 ~ 12:30	문화사랑방	25명	2명	
속초도문농요 아트캠프	8월9일 (1일 2회) 10:00~15:00	속초도문 농요전수관	36명	4명	



제34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잔치



제34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가 2월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지역민들의 전통축제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전통재현 및 체험행사, 민속놀이 경연대회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꾸며졌다. 전통민속 재현행사로 는 액집태우기와 지신밟기 및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처음 기원제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가훈 써주기, 소원지 쓰기, 부럼 깨기, 귀밝이 술 등 체험행사는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즐겁게 하였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한화리조트, 속초신협, 속초양양축협 등 금융기관과 기업체가 제기차기, 고무신던지기, 투호,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마당을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흥겨운 한마당을 함께했다.

- 행사명 : 2016(제34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잔치
- 일 시 : 2016. 2. 22(월)
- 시 간 : 15:00~19:00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엑스포공원 상징탑광장
- 주최 / 주관 : 속초시/속초문화원
- 주 관 :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외 4개 기관
- 내 용 : 전통민속 재현 및 각종 민속놀이 체험경연



행사종목		행사내용	주관
전통 민속 재현	액집태우기	행사장에 액집(달집)을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원성취를 기원	속초시설관리공단
	속초북청사자놀음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	속초시박물관, 런갯마당
	지신밟기	농악공연 등	
전통 문화 체험 행사	가훈써주기	무료로 가훈 써주기	속초문화원
	전통문화 체험	연만들기, 제기/떡지 만들기, 떡메치기	속초문화원
	소원지쓰기	한해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는	속초문화원
	귀밝이 술, 부럼깨기	전통체험행사	속초문화원
민속 경기 경연	제기차기	洞 대항전(토너먼트방식)	한화리조트
	고무신 던지기	洞 대항전(토너먼트방식)	농협중앙회속초시지부
	윷 놀 이	洞 대항전(토너먼트방식)	속초신용 협동조합
	투 호	洞 대항전(토너먼트방식)	속초양양축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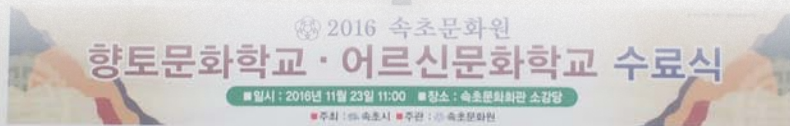


제24기 향토문화 학교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는 지역의 전통 있는 평생 교육강좌로 올해 24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좌는 3월 8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고전무용, 노래교실, 민요교실, 서예교실, 장구교실, 사물중급, 사물고급, 통소교실, 한지공예 등 9개 강좌가 11월까지 진행되었고, 11월 23일 ~ 25일 3일간 향토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졌다.

• 입교식

- 일 시 : 2016년 3월 8일 11:00
- 장 소 : 속초시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등 60명
- 주요내용 : 속초문화원 주요사업 안내, 문화학교 현황보고, 강사소개





• 문화학교 일정

강좌명	요일	교육시간	교육장소	향유인원	강사
고전무용	수	13:00~15:00	문화사랑방	15명	김민희
노래교실	화·금	13:00~15:00	문화사랑방	50명	최봉하
민요교실	화	13:00~16:00	갯마당연습실	20명	김헌섭
	금	10:00~13:00	갯마당연습실	25명	
서예교실	화·금	10:00~12:00	갯마당연습실	15명	김동하
장구교실	월·목	13:00~15:00	갯마당연습실	20명	임호건
사물중급	월·목	10:00~13:00	갯마당연습실	15명	임호건
사물고급	목	10:00~12:00	갯마당연습실	15명	임호건
통소교실	화	15:00~17:00	문화사랑방	20명	김태희
한지공예	수	09:30~12:30	문화사랑방	12회	이진향

•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 일 시 : 2016년 11월 23일 ~ 25일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및 내외빈 등 130명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제전시실
- 내 용 : 수료식 및 발표회 : 11월 23일 11시 / 노래교실, 고전무용, 장구교실, 민요교실
전시회 : 11월 23일 ~ 25일 / 한지공예, 서예 작품전시

2016 강원문화 대축전

- 행사명 : 2016강원문화대축전
- 일 시 : 2016. 11. 24~25
- 장 소 : 정선 강원랜드

강원문화의 전통과 미래를 이끌어 가는 문화원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한마당인 강원문화대축전이 11월 24일~25일 1박2일간 정선 강원랜드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 18개 시군 문화원 회원 800여명 대상으로 지방문화원 대표 향토문화공연과 문화원 우수사례 발표회, 문화예술 유공자 표창, 명사초청 특강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 본원은 문화원 우수사례로 도시변천사기록사업을 발표, 문화예술유공자로 김성하 회원과 김민희 회원이 표창장을 받았다.



2016 강원어르신 문화대축전

- 행사명 : 2016강원어르신문화대축전
- 일 시 : 2016. 10. 5.
- 장 소 : 삼척문화예술회관

2016년 강원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1년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어르신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리인 어르신문화대축전이 10월 5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축전은 강원도 18개 시군 기관·단체의 어르신프로그램 결과물을 함께하는 자리로, 본원은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사업으로 육성된 실향민문화공연단 '돈돌라리요'가 함경도 민요와 무용을 선보였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일정 소득을 제공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속초8경 안내봉사' 사업을 2009년부터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관광안내봉사교육을 받은 후 속초8경 등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거점에서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엑스포공원, 속초시립박물관, 학무정 등 5개 관광지에서 활동을 하였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속초8경 안내봉사

- 사업명 : 201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속초8경 안내봉사'
- 사업일시 : 2016년 3월 ~ 11월(9개월)
- 해설장소 :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엑스포공원, 속초시립박물관, 학무정
- 참가자 : 20명
- 내용 : 어르신 안내봉사자 양성 및 활동 지원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속초문화원은 속초유일의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보존회는 연간 5회 공연연습과 다양한 전승교육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제51회 설악문화제,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 초청공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은 올해로 설립 2년차로, 도문농요 연습 및 공연 등 체계적인 전승활동 뿐만 아니라 2016 지역문화경영과정, 속초민예총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및 각종 공연연습 장소대관 등 지역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016 속초도문농요 공연활동

회차	일시	장 소	내 용	관객
1회	7월7일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설악문화연합회의 회원대상 문화재홍보공연	50명
2회	8월23일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지역문화경영과정 참가자 대상 문화재홍보공연	100명
3회	10월09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제51회 설악문화제 초청공연	300명
4회	10월14일	엑스포공원 야외 공연장	GTI박람회 초청공연	500명
5회	10월26일	속초시립박물관	무형문화제 공개공연	100명
6회	12월01일	설악중학교 체육관	무형문화제 공개공연	250명



지역의 대표 실향민 문화콘텐츠인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지역예술인,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연단은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을 시작으로 총 16회 공연을 하였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3회 공연연습을 가졌다. 특히 전국 1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지방정부문화두레대전에 속초시 대표 작품으로 선정되어 지역문화의 재미와 우수성을 알렸다.

속초 북청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연습

- 일 시 : 3월 ~ 11월 수요일 19:00~21:00 총 13회
- 장 소 : 속초문화원
- 참가자 : 북청사자놀음보존회 40명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

날짜	행 사 명	행 사 장 소	비고
2월 21일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 및 길놀이 공연	청호동 일대	
2월 22일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 및 길놀이 공연	속초수산관광시장	
2월 22일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엑스포공원	
6월 25일	제1회 이북실향민문화축제	축제행사장	
7월 ~ 8월	속초시립박물관 "아간개장"과 고향의 밤 콘서트	속초시립박물관	6회
9월 4일	함남도민 한마당 큰잔치	엑스포운동장	
10월 8일	설악문화제	설악문화제 행사장	
10월 15일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엑스포공원	
10월 28일	전국지방정부문화두레대전	갯골생태공원	
12월 01일	찾아가는 지역전통문화공연	설악중학교 체육관	
12월 17일	찾아가는 지역전통문화공연	속초시립박물관	



2016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사업 실향민문화공연단 돈돌라리요

지역의 사라져가는 실향민문화인 돈돌라리와 함경도민요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14년 지역어르신들이 주축된 실향민문화 공연단 ‘돈돌라리요’는 이제 지역 우수 공연콘텐츠로 각광받아 다양한 행사에 초청되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총 28명의 공연단과 작품을 완성하여 총 16회 초청공연, 문화자원봉사 등 대외활동을 하였다. 특히 삼척이사부축제, 어르신문화대축전, 강원 문화대축전 등 관외 공연활동으로 작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사업명 :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1월

• 교육활동

구분	회차	대상	교육내용
기초반	22회	신규교육생 15명	· 공연단원 육성을 위한 함경도 민요와 무용 교육 및 함경도 문화 공유
심화반	22회	공연단 13명	· 공연 연습 및 새로운 공연 콘텐츠 개발 · 함경도 문화를 콘텐츠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공연활동

날짜	행사명	행사장소	비고
1	5월 24일	까리따스요양원	까리따스 요양원 공연봉사
2	5월 29일	이사부축제 행사장	삼척 이사부독도축제 초청공연
3	6월 25일	실향민축제 행사장	제1회 이북실향민문화축제 초청공연
4	7월 15일	속초시립박물관	박물관 아간개장 고향의 봄 콘서트 초청공연
5	7월 22일		
6	7월 23일		
7	7월 27일	속초시립박물관	매마수 기념 찾아가는 공연활동
8	7월 30일	속초시립박물관	박물관 아간개장 고향의 봄 콘서트 초청공연
9	8월 6일		
10	8월 13일		
11	9월 4일	엑스포공원 상설이벤트장	2016 함경남도 도민 한마당 큰잔치 초청공연
12	10월5일	삼척문화예술회관	2016 어르신문화대축제 초청공연
13	10월15일	엑스포공원 상징탐광장	2016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초청공연
14	10월25일	속초시립박물관	KBS여섯시 내고향 방송 촬영을 위한 공연
15	11월19일	갯배 선착장 일대	2016 갯배문화제 초청공연
16	11월24일	정선강원랜드	2016 강원문화대축전 초청공연



2016 어르신문화 나눔봉사단 설악문화 나눔친구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후원으로 2012년부터 활동 중인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설악문화나눔친구들'. 어르신들의 재능나눔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육성한 봉사단은 올해 10월까지 총 500여회 찾아가는 문화나눔활동과 다양한 소득창출활동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삶에 기여하고 있다.

- 사업명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1월

• 교육내용

구분	회차	대상	교육내용
자체 워크숍	12회	봉사단	· 봉사활동 내용 및 진행방향 공유 · 문화예술 봉사기술 습득

• 봉사활동 분야 및 내용

- 전통분야 : 공연 및 체험(사물놀이, 민요, 고전무용), 전통민속놀이
- 동화구연 : 동화책 읽기, 소품활용 동화구연, 동화 속 캐릭터 만들기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 기타활동 : 노래와 율동, 종이접기, 북아트, 간단한 공예품 만들기, 문화체험활동 진행



• 봉사횟수 : 147회(2016년 1월~11월)

날짜	행사명	비고
학교	공헌진초등학교, 간성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다솜아동센터,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어린이집	옹달샘어린이집, 밤비니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성암노인복지관, 예은요양원, 가리따스요양원, 반야요양원, 상락원, 정요양병원	
관내기관	속초시정신건강증진센터,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시문화회관	
지역행사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속초문화원 문화예술 동아리

속초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의 근원인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릿바람 등 모듬북 동아리에는 연습장소와 악기 대여를 통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였고 사물고급반, 민요반, 서예반 등은 공연 및 문화자원봉사 등 활동처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활동의욕을 고취시켰다. 특히 사물중급반은 제21회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속초시(속초교육문화센터), 경동대 평생교육대학, 속초교육문화관, 속초문화원 등 평생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 인문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문예활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 문예대학을 설립하였다. 30여명의 속초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상국 시인을 비롯해 지역 문인과 외부 인문학 강사를 초빙해 인문학과 문학창작 및 감상, 예술인 초청 토크쇼, 문예탐방 등을 진행하였다.

속초 문예대학

- 프로그램명 : 속초문예대학
- 기간 : 2016. 9 ~ 11
- 장소 : 속초교육문화센터 외
- 참가자 : 속초시민 30명
- 프로그램 내용 : 인문학강좌, 문학창작 및 감상, 문예탐방 등 15회



2016 학교문화 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 국악심화교육
• 교육기간 : 2016. 3 ~ 12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2008년부터 주관하였다. 본 사업은 ‘청호초-북청사자놀이’, ‘온정초-속초도리원 농악’, ‘설악초-속초도문농요’, 등의 지역문화자원과 ‘대포초-국악관현악단’, ‘청봉초-창극’, ‘속초초-대취타’ 같은 다양한 국악 장르를 관내 6개 초등학교 및 ‘청소년풍물동아리-뉘누리’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과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속초예총 장창근 작가가 교육과정을 사진으로 아카이빙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캘린더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내용

학교명	담당교사	강좌명	지도강사	인원	교육내용	비고
청호초등학교	김도연	북청사자놀이	김정익	25	사물	
			임희영		민요	
			임호건		통소	
속초초등학교	이춘동	취타대	최재학	22	대취타	
			임희영		태평소	
청봉초등학교	전미옥	창극	김현섭	25	민요	
온정초등학교	정승학	도리원 농악	임호건	38	도리원농악 전반, 소고 및 상모	
			박준영			
설악초등학교	서영선	속초도문농요	김부영	25	도문농요 및 농사놀이	
			오영자			
대포초등학교	김영지	국악관현악	박치영	51	국악관현악 편성 및 악기교육	
			권진주			
동아리활동		사물놀이	정두송	20	사물놀이	

속초초교



대포초교



청봉초교



은정초교

설악초교



청호초교

늪누리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속초의 역사적 변천과 시민의 삶, 그 공간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사진, 영상, 구술, 자료집, 전시 등으로 구현하여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자 올해 처음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는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의 지속적인 활동의 틀을 만들기 위해 10개년 계획안 작성, 사진 아카이브, 근대역사의 문화자원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전시회 등 지역변천사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 사업명 :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

· 기 간 : 2016. 7 ~ 12

· 참가자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위원 12명, 사진작가, 화가 등 지역예술인 다수

· 내 용

-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10개년 계획안 수립

- 사진아카이브

- 도시변천에 의한 시민생활사 기록(속초 수산업 연구 등 3개 주제)

- 속초도시생활사 전시 '기억을 잇다, 미래를 상상하다'

일시/장소 : 2016. 12. 7 ~ 2017. 1. 8 / 속초시립박물관 전시실

- 근대역사의 문화자원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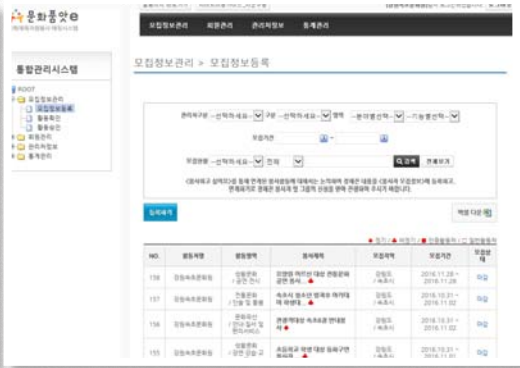
일시/장소 : 2016. 9. 7 / 문화사랑방

주제 : 수산업 역사의 가치 재조명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은 지역문화봉사의 활동거점 및 시민들의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축한 봉사자와 활동처간 온라인 매칭시스템 운영 사업이다. 속초문화원은 시 지원센터로 2014년 10월부터 임명되어 활동처·활동가 회원등록, 문화자원봉사 매칭 등 시스템운영과 문화자원봉사 다양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까지 96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총 161건, 870명이 활동하였다.

2016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시군구
지원센터운영



2016 문화유적 답사

속초문화원 문화가족들의 문화정체성을 일깨우고 문화시민의 역할을 강화하기위한 관외지역 문화유적 답사를 올해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 답사는 4월 19일 경북 울진 일대를, 2차 답사는 4월 28일 ~ 29일 전북 군산을 비롯한 주변 일대를 탐방하였다.



• 2016 문화유적답사

회차	일시	장소	참가인원
1차	4월 19일	경북 울진 일대	80명
2차	4월 28일 ~ 29일	전북 군산 일대	40명



설악문화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며, 속초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인 설악제례를 올해도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진행하였다. 9월 24일 10시 설악산신제(설악산 소공원 특설제단)를 시작으로 10월 8일 10시 영신제와 9일 오후 4시 송신제를 청학사거리에서 진행하였다.

제51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 설악제례

제례명	일시	시간	장소
설악산신제	9월 24일	10:00~11:00	설악산 소공원 특설제단
영신(산신합동)제	10월 8일	10:00~11:00	청학사거리
송신(산신합동)제	10월 9일	16:00~17:00	청학사거리



향토사 안내서 발간

문화콘텐츠로 바라 본 속초 _ 설악산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장정룡 저 / 250p

낮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우리와 소통해 온 설악산을 문화콘텐츠의 관점으로 바라본 책. 강릉원주대학교 장정룡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글을 엮었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기행문을 비롯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탐승적 관점에서 피력한 글, 산삼을 쫓는 설악산 심마니, 울산바위 전설의 숨겨진 수수께끼와 속초아리랑까지 다양한 매력의 설악산을 만날 수 있다. 부록으로는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원문을 책 말미에 실어 기록의 가치를 더했다.

· 주요목차

· 1장. 문헌으로 돌아보는 설악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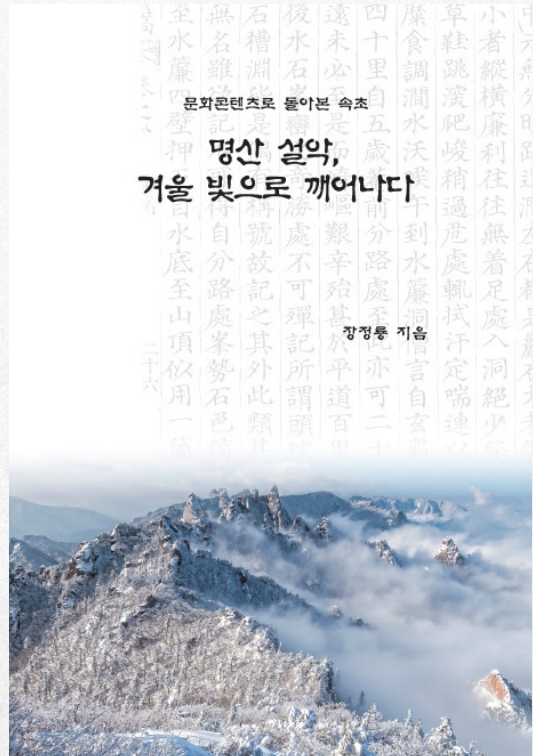
- 1.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고찰
- 2.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 2장. 전설과 풍광으로 돌아본 설악산

- 1. 울산바위 전설고찰
- 2.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폭포' 설악산

· 3장. 문화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명산 설악

- 1. 설악산 전설과 개발 그리고 기행문
- 2. 속초지역 아리랑의 전승 맥락과 특성 분석
- 3. 설악산 심메마니 연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지역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작품을 제작·공연하는 1시군 1문화행사 사업을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였다.

런갯마당, 속초시립풍물단, 신천무용단 등 예술단체와 지역예술인과 함께 속초북청사자놀음과 영랑호 등 문화자원을 결합한 작품 '꿈꾸는 사자-속초를 거닐다'를 제작. 2018 평창 G-2년 올림픽 페스티벌 등 두 차례 공연을 펼쳐 큰 호평을 받았다.

1시군 1문화 행사

· 작품내용

· 작품명 : 꿈꾸는 사자 - 속초를 거닐다

· 참가자 : 공연단 : 30명, 스텝 15명

· 작품소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관광도시 속초. 한국전쟁 후 고향을 잃은 실항민의 애환을 문화로 꽃피운 '사자놀음'과 고대 신라 화랑의 전설이 함께하는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사자놀음'에 담긴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와 화랑 전설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속초의 매력을 드러낸 작품이다.

· 공연활동

· 행사명 : 2018 평창 G-2년 올림픽 페스티벌 (일시·장소 : 2016. 2. 4. 20:40 _ 강릉단오문화관)

· 행사명 : 제51회 설악문화제 기념 지역대표 콘텐츠 공연 (일시·장소 : 2016. 10. 5. 19:00 _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속초문화원 가족동정

김계남 부원장

3월 15일 김계남(55, 11회) 속초문화원 부원장이 제8대 중앙초등학교총동문회장에 취임했다.



구영모 이사

5월 27일 신임 속초비전21 회장으로 취임한 구영모 속초문화원 이사는 전국실향민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기여한 공로로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윤광훈 이사

12월 1일 속초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윤광훈 속초시번영회장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영순 이사, 정봉재 이사

정봉채 한국예총 속초지회장, 이영순 속초문화원 이사는 속초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10월 9일 이병선 시장 집무실에서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최용석 이사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용석 보배ESC 대표(속초문화원 이사)는 3월 3일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 및 강원체육발전 유공으로 강원도지사상을 받았다.

곽철신 이사

곽철신 영북지구 충청향우회 회장이 12월 7일 오후 7시 아남프라자 19층 연회장에서 영북지구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충청향우회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장용근 이사

장용근 속초시카누연맹 회장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지사상을 받았다.

속초문화원 가족동정

허우린 감사

허우린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상임부회장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13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성하 회원

김성하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장은 6월 13일 제9회 강원무형문화대상 특별상을 수상, 11월 24일 정선 강원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강원문화 대축전에서 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강원도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김민희 회원

김민희 신천무용단 단장은 11월 24일 정선 강원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강원문화 대축전에서 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유인혜, 최복희, 오영자 회원

10월 29일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지방 정부 문화두레대전 아름다운 우리말 경연대회에서 유인혜, 최복희, 오영자 회원이 금상을 수상하였다.



김인섭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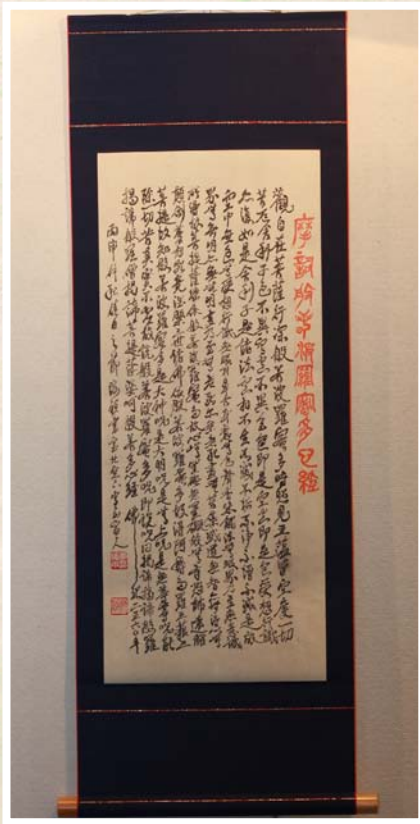
속초민예총 문학협회 김인섭 회원이 회원 친목과 정보교류, 민예총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1월 17일 제1회 속초민예총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속초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문화원은 12월 30일 서울시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열리는 2016 문화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문화품앗이 봉사일감 등록, 봉사 매칭, 봉사완료 등 성과를 반영한 총계에서 시군구지원센터 중 최고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올림픽 붐 조성과 강원도 문화예술의 세계적 홍보를 위해 지역별 대표 공연콘텐츠를 제작하는 1시군 1문화행사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강원도지사상까지 받았다.

향토문화학교 전시회(서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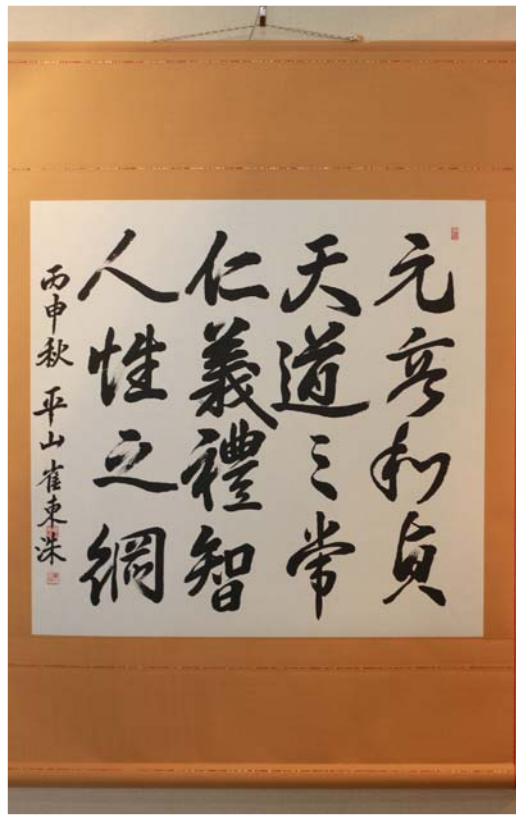


반아심경
이덕우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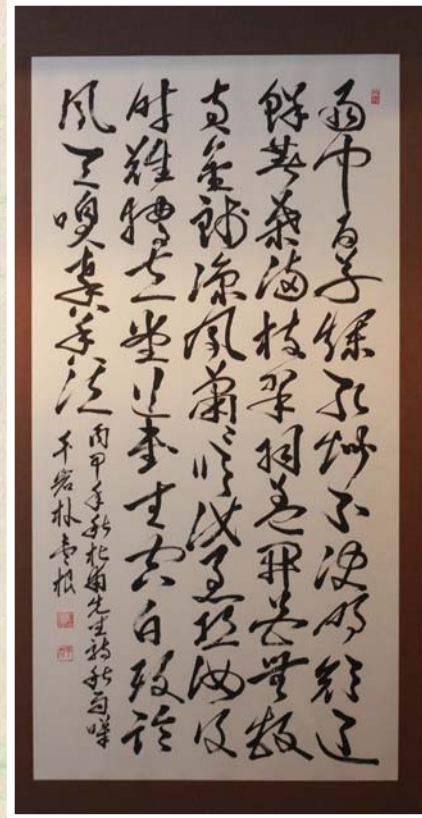
매사진선
김관형

향토문화학교 전시회(서예반)



천도의 4원리와 사물의 근본도리

최동수



두보시 '가을 장마'

박일근

향토문화학교 전시회(한지공예)



약장
이진향 강사



뒤주
심은정

향토문화학교 전시회(한지공예)



옛날책장
정미선



화병등
황복자

2016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지상전시회

기억을 잇다, 미래를 상상하다



- 사업기간 : 2016. 12. 7 ~ 2017. 1. 8
- 개 전 식 : 2016. 12. 7(수) 16:00
- 주최·주관 : 속초시·속초문화원
- 사업장소 : 속초시립박물관



1. 청초호의 변화

속초의 변화는 아바이마을 일대 청초호의 변화, 7번 국도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50년 이전만 해도 항량한 모래해변이던 아바이마을은 한국전쟁 후 미군정에 의해 실항민 정착지가 된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맨몸으로 피난온 그들에게 동해바다는 천혜의 자원이었다고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1980년대 아바이마을은 전국적인 조명을 받는다. 실항민이 함께 모여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자미식해, 오징어순대, 북청사자놀이 등의 실항민 문화는 속초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가 되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다. 안타까운 일도 있다. 2000년대 들어 아바이마을에 신수호가 생기면서 다시 나뉘게 되고, 설악대교와 금강대교가 설치되었다. 변화의 흐름은 풍경의 상실을 가져오지만, 사진은 화석처럼 그 시절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2016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전시회는 떠나보낸 시간과 잊혀져간 기억을 만나는 시간이다.



2. 7번국도의 변화

7번 국도는 부산에서 함경도에 이르는 총 513.4km의 길이다. 길이만큼 볼 것이 많은 7번국도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절경으로 시인 묵객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속초 7번국도는 대포항을 지나 청초호를 끼고 돌면서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7번국도의 변화는 속초 관광의 변화이자 속초의 변화나 마찬가지이다. 60년대 7번 국도변 청초호는 속초항 개발로 인해 많은 조선소가 있던 곳이다. 겨울이면 철새 도래지로 유명했다. 90년대 청초호는 변화를 겪는다. 매립을 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청초호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식당과 숙박단지가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청초호 건너편 아산은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속초 최대의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3. 대포항과 외옹치의 변화

대포와 외옹치는 속초의 관문이자 대표 이미지였다. 강원도 해변가 마을에서 유일하게 장승제를 지낸 외옹치. 일제시대부터 최근 까지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인 대포항. 이제는 관광어항으로 옛풍경을 찾을 수 없지만,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만나게 했다. 오늘 안에 감춰진 과거, 오늘의 풍경에서 만나는 내일을 상상해보자.



특집

속초사자놀음의
지역전승과 정착양상 고찰

-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



속초사자놀음의 지역전승과 정착양상 고찰

장 정 룡 (강릉원주대 교수)

차례

1. 머리말
 2. 속초사자놀음의 유래연구사
 3. 속초사자놀음의 연희과장
 4. 속초사자놀음의 연희내용
 5. 속초사자놀음의 연희대본
 6. 속초사자놀음의 음악·춤위
 7.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속초사자놀음은 속초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사자놀음이다. 우리나라 사자놀음은 여러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바, 1930년대 양양군에 속하였던 속초와 고성지역¹⁾도 사자회 즉 사자놀음이 전승되었다는 보고가 있다.²⁾ 이를 근거한다면 속초지역 사자놀음의 전승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었음을 방증하게 된다. 본고는 이에 대한 재론의 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속초는 함경남도 북청군민들이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남쪽으로 피난 와서 살고 있는 지역이다. 속초시 청호동은 바로 함경남도 주민의 집단마을로서 일명 ‘아바이 마을’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들의 민속문화가 지금도 전승·보존되고 있다.³⁾ 따라서 이곳은 북청사자놀음의 남쪽지역 최초 전승지이자 북청사자놀음이 지금도 속초문화로 정착되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다.⁴⁾ ‘북한주민들이 피난 내려와 함경도민회, 평안도민회, 황해도민회⁵⁾ 및 부산지역 평안

1)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15~16쪽 “1914.3.1.부령(府令) 제111호로...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통합되어 도천면이 되었다...1937.7.1. 면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2.10.1. 부령 제104호로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 나뉘지며...”

2) 村山智順, 《朝鮮鄉土娛樂》朝鮮總督府 調査資料 제47호, 1941, 264쪽 고성 “獅子戲(사자노름), 269쪽 양양 “獅子戲”

3) 장정룡·김무림,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4)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속초문화》 제23호, 속초문화원, 2007

5) 《關北》 제2집, 함경도민회, 1953, 부록에는 재강원함경도민회역원 및 각지부 기념촬영. 수북선두에선 인물들, 도민전위에 선 이들, 수북을 대비하는 기관들, 재강원함경도민회역원 명부, 도민명부(재강원도), 도민기업체와 단체들에 대한 재강원특집이 실려 있어 강원지역 함경도민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남도민회⁶⁾를 만든 것은 분단이후 실향민들의 안타까운 현황을 말해준다. 본고는 국내 유일의 사자놀음으로 명명된 속초지역에 전승된 사자놀음의 지역전승과 정착양상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속초사자놀음의 유래·연구사

일제강점기 조사자료에 의하면 고성과 양양 지역에서도 사자놀음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난다.⁷⁾

[고성] 사자희(獅子戲:사자노름) 전승시기:정월 중, 전승주체:농민, 놀이법:사자 가면은 대나무로 짜서 만든 틀에 종이를 바르고 얼굴을 그린다. 머리 부분과 몸체는 거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가늘고 길게 자른 종이를 풀로 많이 붙여서 털로 삼아, 사자의 형태를 만든다. 사자 가면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머리 부분, 다른 한 사람은 꼬리 부분을 계속 움직이며 걸어가면서 악대와 어울려 논다.

[양양] 사자희(獅子戲), 전승시기:추경(秋頃), 전승주체:소아(小兒)

조선총독부의 향토오락 자료는 1936년 각 도지사에게 명하여 각 지방 보통학교에서 수집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⁸⁾ 이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 사자놀음의 분포도가 작성된 바 있는데,⁹⁾ 그렇다면 1950년대 북청사자놀음의 전파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정월 중에 농민들에 의해서 사자놀음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면, 오늘날 행해지는 북한지역 사자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자머리는 대나무 틀에 종이를 붙여 만들며 사자가면에는 앞뒤로 두 명이 들어가서 악대와 함께 정월달에 어울려 노는 방식이다. 이 사자탈은 대부분 북방계 사자탈 제작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이 책자는 1924년부터 1941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간행된 조사자료 전 47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다. 이 책의 간행 책임자인 촌산지순(일명봉 무리아마지순)은 동경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문서과 조사제이계 주임 겸 촉탁으로 재직하였고, 조선의 귀신, 조선의 풍수, 부락제 등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놀이명은 약 6,400종이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놀이법이 설명된 항목은 1,300여종이고 설명이 없는 경우는 5,100종에 달한다.¹⁰⁾ 당시 향토오락에 대한 총체적 조사자료인 이 책자는 조선총독부가 전국15개 시도, 22개 지방

6) 《路芳草》재강원도평안도민회, 1964, 이 책에는 1.4후퇴 때 평북 강계에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신 필자의 부친 '張문八(48, 속초시 속초리 3동, 상업)'도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은 권두사(도민회장 하봉희) 출간에 즈음하여(김명선), 치사(평안남도지사 박재창, 평안북도 지사 백영업) 두고은 산해(글 김희양), 망향에 붙여서(이석봉), 우리의 면모, 우리의 자랑(평안남도편:평양시, 진남포시, 대동군, 안주군, 강동군, 강서군, 순천군, 덕천군, 평원군, 양덕군, 성천군, 중화군, 용강군, 개천군, 맹산군, 영원군) 평안북도편(신의주시, 의주군, 용천군, 철산군, 선천군, 정주군, 박천군, 강계군, 영변군, 운산군, 구성군, 식주군, 창성군, 태천군, 희천군, 벽동군, 추산군, 후창군, 자성군, 위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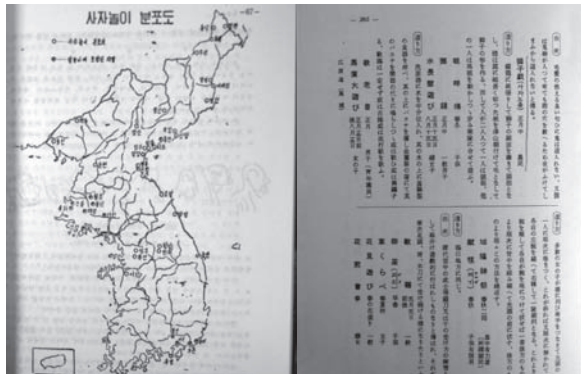
7) 村山智順,《朝鮮郷土娛樂》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47호, 1941, 264쪽

8) 村山智順編, 朴銓烈譯,《朝鮮의 郷土娛樂》集文堂, 1992, 27쪽 “이 책은 1936년 각 도지사에게 조화하여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향토오락을 조사, 정리한 자료이다. 조사는 각 지방의 보통학교에 의뢰하여 수집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향토오락의 성질상 분류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리하게 분류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엄격한 분류를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내용임에도 지방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놀이명은 각 지방의 고유놀이명을 밝혔다. 놀이의 한 요소를 이루는 노래는 한글로 조사된 경우는 한글로 실었다. 이는 한글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로 인하여 이 책의 가치가 덜해짐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의 조화나 수집에는 동료이자 본청의 촉탁 오정 씨의 도움이 컸다. 분류, 편집, 교정 등을 위해 애써준 평천 씨와 권본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1941년 무리아마 지순”

9) 김일출,《조선민속탈놀이연구》과학원출판사, 1958, 67쪽

10) 村山智順編, 朴銓烈譯,《朝鮮의 郷土娛樂》集文堂, 1992, 30쪽

으로 세분하여 조사한 것으로 통치를 위한 풍속조사이나 자료적 가치는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자료는 김일출이 그린 우리나라 사자놀이 분포도와 《조선의 향토오락》 원문이다.



함경남도 이주민들이 정착한 속초지역은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월남한 실향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러한 민족사적 비애와 남북한 분단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월남한 주민에 대한 본격연구는 속초지역¹¹⁾ 일부 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늦게 출발되었다.¹²⁾ 월남한 북한주민들을 칭하는 용어는 월남민, 피난민, 실향민 등이 있으나, ‘실향민’이라 표기하고 그들의 인구분포, 언어생활, 생활문화 등에 대한 생애사, 구술사, 정착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¹³⁾ 아울러 함남지역 민속극인 북청사자놀음의 속초지역 현장조사¹⁴⁾ 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¹⁵⁾ 돈돌라리민요에 대해서도 고찰한 바 있다.¹⁶⁾

한국전쟁이후 함경남도 피난민의 집거촌인 속초시 청호동을 중심으로 북청사자놀음이 이주 전파되었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음은 함경도로부터 속초로 이주한 북한민속극이며, 피난민들이 품고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넘어온 이주민속(移住民俗)의 하나다. 그러므로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행된 사자놀음이 그대로 남한으로 와서 정착하고 전승된 귀중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속초사자놀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청사자놀음이 유명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서 사자놀이 하는데, 첫말이 그러하잖아요. 북청사자놀음. 그런데 내가 북청에 있으면서 내가 살던 고향이가 희안합니다.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토성이라는 데가 허허벌판입니다. 산으로 가지면 십키로씩 가야되지요. 벌판에 마을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나라 임금이 오백년 도읍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바다같이 너른데 성을 쌓았어요.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이 있는데, 일제 때 총독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 성을 엄청 나게 크게 쌓고 그 주위에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가 들어서서 마을전체가 풀숲입니다. 거기 관장이 있는데 오백년 도읍지이므로 사자놀음을 거기서부터 기초가 돼서 북청사자놀음이다 하지요. 우리 고향에서 사자놀음터가 처음 발족해 탄 부락에서도 하고, 참 멋있고 그래서 그걸 본 받아서 탄 부락에서 하고 탄 부락에서 하고, 그래서 북청사자놀음이란 말이 나왔지요.

11) 장정룡 외, 《속초시거주 피난민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12) 김귀옥, 《정착촌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재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13) 장정룡, 《강원도출신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 거주 실향민 생애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장정룡·김우림·함성호·한정규·최송길, 《속초지역 실향민 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 속초시박물관, 2007

장정룡·사득환·김영식, 《강원지역 이북도민정착사》 이북5도위원회, 속초시, 속초시립박물관, 2009

14)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보고서》 속초문화원, 2010

15) 장정룡,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 《속초문화》 제26호, 2010, 94~125쪽

16) 장정룡,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 《속초문화》 제30호, 속초문화원, 2014, 54~71쪽

원 말이 근본은 우리 토성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토성에 가면 돌로 만든 손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나와요. 처음에 토성리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려서 보았는데 내가 서른 몇 살에 나왔으니, 일제 때는 허가 못해서 못했거든요. 일제 때는 시시한 그런 거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허가 안내줘요. 그러니까 허가 하지 않으면 토성리에 사는 부락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머리가 특수하다든지 아니면 인재라 하는 분네들이 어떻게 지령으로서 그 사람들이 승인이 멕이게 되니까 허가를 내줘서 하지요. 그때 보름달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자놀음도 하고 그때 당시는 운동을 크게 하지요. 그래서 그때 사자놀음하는 걸 이북에서도 많이 구경도 하고, 내가 십오년 이상 구경하구 나온 사람이니까. 사자놀음할 때에는 소나발이라고 그걸 불면 ‘뽕하는 소리가 나지요. 우리가 들을 때는 소나발 그러던데요. 그리고 피리불구, 요만한 생항도 불구, 아마 중앙에는 우리 토성리 사람들이 사자놀음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물려 받아하지마는 원 근본 임원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장정룡 조사:김하륜, 남.84, 교동, 1999.12.10) ¹⁷⁾

남북분단 이후 사자놀음의 변화를 겪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북청사자놀음의 남쪽지역 원형은 속초지역에 보존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함남출신자들이 가장 많이 집거하고 있으며, 함경도 방언으로 진행되는 사자놀음이기 때문에 그 맛과 흥이 남다르다. 전라도 판소리의 맛이 남도사투리에 짙게 배어 나오듯이 북청사자놀음도 함경도의 문화와 주민들과 밀접하기에 그러하다. 속초 청호동에 거주하는 함경남도 주민들이 북청도청을 만들고 사자놀음을 시작했음은 북쪽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문화의 전파와 남쪽 정착전승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통일이후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중시된다.

사자탈과 관련하여 본다면 먼 옛날 우리민족은 사냥할 때 범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동물의 탈을 쓰고 짐승을 잡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씨 뿌리고 수확할 때도 탈을 쓰고 춤추었을 것이다. 또한 전쟁 때 적을 위협하기 위해서 무서운 탈을 쓰고 나서기도 했는데 주지하듯이 6세기에 신라인 이사부는 동해중에 있는 우산국을 정복할 때 사자를 형상한 허수아비를 배에 싣고 가서 그것으로써 섬사람들을 위압하였다고 한다. 4세기 중엽의 고구려 옛무덤인 안악 제3호 무덤 벽화에는 악기를 타며 춤을 추는 사람 네 명을 그렸는데 그 중 한사람은 코가 큰 탈을 쓰고 춤추고 있다.

신라초기 유적에서 나온 토기에는 거북과 닭의 탈을 쓴 탈꾼들이 춤추는 장면이 있으며 6세기 음악가인 우륵이 작곡한 12곡 중에는 사자기(師子伎)라는 사자놀음이 있었다. 가야국 기실왕이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짓게 했는데 가야국이 난리나자 우륵은 신라 진흥왕에게 귀화하였다. 당시 우륵이 제작한 12곡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달사, 사물, 물혜, 하기물, 사자기, 거열, 사팔혜, 이사, 상기물 등이다.¹⁸⁾ 이 중 여덟 번째 곡에 사자기가 들었다. 이는 가야금 곡조만이 아니고 노래와 춤이 어울린 노래였으며 남제(南齊)에서 전래한 기악의 사자기로 해석된다.¹⁹⁾ 백제에도 일찍부터 탈놀이가 성행했는데 612년에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일본에 탈놀이를 가르쳐주었으며 법륜사에는 당시의 탈이 보관되어 있다. 삼국시대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탈놀이가 진행되었는데 통일신라이후 탈놀이는 더욱 발전되었다. 아래 자료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산예 즉 사자놀음에 대한 최치원의 글과 근래 태백 본적 사지에서 출토된 신라 때 사자문양 기와이다.

신라 말기 때 최치원(857~?)이 쓴 향악잡영(鄕樂雜詠) 5수 가운데에도 산예라는 사자놀음 내용을 보면 “사막을 지나서 몇 만 리를 왔느냐(遠涉流沙萬里來), 털은 다 빠지고 먼지투성일세(毛衣破盡着塵埃). 머리를 흔들고 꼬리

17) 장정룡·양연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59~60쪽

18) 《삼국유사》 권제32, 악지 가야금조

19) 김동욱, 〈우륵십이곡에 대하여〉 《신라가야문화》1호, 대구청구대학, 1966, 32쪽

를 치며(搖頭掉尾順仁德) 사람 말은 잘 듣지만 억센 그 기운 짐승중의 왕이로다.(雄氣寧同百獸才)”라고 읊었다.²⁰⁾ 이 시에 나오는 유사는 사막의 명칭으로 서역일대 고비사막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자무가 인도에서 전래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속편》에서 산예는 “인도 특유의 동물외장무로서 서역과 동방의 각국에 유행하게 된 유명한 무악(舞樂)이요, 그 여풍(餘風)이 한국, 일본 등에 지금도 남아 있다.”하였다.



산예는 위의 시 내용처럼 잡희의 내용이 선명한 북방계 사자희라 할 수 있으며, 산예라는 명칭은 아마도 최치원이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 산예라는 사자무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중국의 연희시와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²¹⁾ 일반적으로 북방계 사자는 대나무 골조예다 종이를 발라 붙여서 사자모양을 만드는데 푸른 물감을 들인 대나무 칩껍질로 모양을 꾸미기 때문에 융맹스럽고 활발한 동작을 보여주며, 남방계 사자는 그림도구로 눈코입을 그려서 색실과 꿩꼬리, 짐승털로 아름답게 꾸민다.

삼국시대의 기록에 나무사자상이 보이고, 《삼국사기》 악지에서 ‘사자기’라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향악잡영〉은 최치원이 당대에 창조 공연된 그놀이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시적으로 매우 능숙하고 흥미롭게 그려냈다. 이런 측면에서 〈향악잡영〉은 신라말기 극예술의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시인의 창작문예작품으로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산예의 사자춤은 중국의 오방사자나 구두(九頭)사자가 아니라 서량기(西凉伎)의 사자무로 보인다.²²⁾ 백居易(白居易:772~846)의 시에 “奮迅毛衣擺雙耳(털옷을 흔들어 털고 두 귀를 흔들며), 如從流沙來萬里(마치 서역을 거쳐 만리길을 온 것 같구나)”라 하였듯이 산예의 사자놀음과 흡사한 형용을 보인다.

상기 우측 사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래 강원도 태백시 본적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 사자문양의 수막새는 강원도 지역에 사자가면의 전래를 추정케 한다. 특히 막새의 드림면 전체에 가득 차는 크기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고 뚜렷하게 표현된 좌상이고, 경주외의 지역에서 사자문 막새가 출토된 점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한다.²³⁾ 이 사자문양 막새는 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새긴 것으로 사자가 정면을 보고 있는 무서운 모습이다. 눈썹, 코, 입, 콧등, 수염, 갈기, 턱수염, 앞니 등이 잘 표현되어 신라 때 사자가면을 추측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산예라는 사자가면의 모습을 유추하려고 한다면 태백 본적사지 출토 사자문(獅子紋) 수막새는 벽사진경과 수호신적 의미를 가진 신수(神獸) 또는 영수(靈獸), 벽사수로 사찰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사자와 관련된 벽사신앙이 유입되었으며, 태백 본적사지의 사자문 막새

20) 金富軾, 《三國史記》卷第三十二 志第一, 樂
 21) 윤광봉, 《한국연희시연구》 이우출판사, 1987, 41쪽
 22) 김학주, 《한중 두 나라의 가무와 잡희》 서울대출판부, 1994, 93~94쪽
 23) 강원도문화재연구소 태백시, 《本寂寺址》 2003, 128쪽

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자춤은 우리나라와 중국나례(儺禮)에서 모두 발견된다. 고려말 이색(李穡:1328~1396)의 <구나행(驅儺行)>은 나례에서 사자무가 추어진 사실을 전하는데 나례에 오방귀무와 백택무가 나온다. 구나행의 1구에서 14구까지는 12지신과 진자들이 역귀를 쫓는 의식이고, 15구에서 28구까지는 의식이 끝난 뒤 놀이패가 각종 잡희를 연행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오방귀무, 사자무, 서역의 호인희, 처용무, 불토타기, 칼삼키기, 인형극, 백수희 등의 놀이를 묘사한다. 15구와 16구는 “舞五方鬼踊白澤, 吐出回祿吞青萍”(오방귀신의 춤과 사자놀이를 하며 불을 뿜기도 하고, 갈을 삼키네)라고 하였다. 여기서 백택무가 신수(神獸) 또는 사자의 별칭으로 까마귀, 주지(사자), 비비탈과 같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대부분 나례에 등장하는 동물은 사자이고, 벽사적 동물로 사자가 등장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말에 이미 나례에서 사자무가 연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면탈놀이는 동해안일대의 북청사자놀음과 통천가면극, 서해안일대의 봉산탈춤과 산대탈춤, 남해안일대의 수영야류와 통영오광대, 내륙지방의 양주소놀이굿과 하회별신굿으로 나눈다.²⁵⁾ 현존하는 가면극 가운데 대표적인 사자놀음은 동해안 지역의 북청이며 봉산·강령·은률 등지 해서탈춤, 수영야류, 통영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주지(사자) 등에서 사자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두현은 “중국민속사자무와 비교하여 보건대 우리의 사자놀음은 북방계에 가까운 것이며 또 하회가면 속의 주지탈은 사자탈을 뜻하는 것인데 그 가면에 꿩꼬리[雉尾]를 꽂는 것은 사자의 갈기로서 사용한 것이며, 중국 남방계 사자에서도 그 예가 있음을 볼 때 주지탈은 사자탈임을 더욱 확증하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²⁶⁾라고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동해안지역의 사자놀음은 일정한 구성을 가졌으며, 극적 줄거리가 선명하다. 이들 가면극들에서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벽사적 기능을 갖는 구나희식(驅儺儀式)의 일환이라고 하겠으며, 이 가운데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음이 나례의 구나희식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북청사자놀음은 정월 14일 날 밤부터 16일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지신밟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례의 매귀(埋鬼)와 같은 성격이고, 방울소리를 울리거나 ‘딱딱’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귀신을 잡아먹는 시늉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물고 나와 마당에서 깨뜨리는 것도 엄중한 행위로 위협하여 귀신을 쫓는 것이다. 가면극의 중심에 사자가 등장하는 자체로도 벽사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자가 방울소리를 내고, 입을 여닫는 ‘딱딱’소리를 내는 것도 잡귀를 쫓는 나례의 구나희식과 유사하다. 북청사자놀음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북청사자놀이는 탈춤과 우습강스러운 재담으로서 양반 통치계급의 탐욕과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극적 줄거리의 전개로 이룬다. 북청사자놀이에 나오는 성원은 사자(두사람이 앞뒤에 서서 사자 가면을 쓴다) 이밖에 꼭쇠, 양반, 중, 점바치, 의생, 거사, 무동 등이다. 꼭쇠는 험상궂은 탈을 쓴다. 양반은 긴 수염이 달린 탈을 쓰고 머리에는 관을 쓰며 도포(옛날 보통 예복으로 입는 남자의 옷)를 입는다. 거사는 탈과 고깔을 쓴다. 사자놀이는 음력 보름을 전후하여 많이 놀았다. 놀이의 서막은 도청(이 지방에 고유한 마을의 공동 집회장소)에서 벌어지는 마당놀이이다. 마을마당에서 마당놀이를 놓고 난 다음 아침 흥이 사라지지 않은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 햇불을 앞세우고 여러 마을들로부터 사자행렬이 북청읍을 향해 모여든다. 그런 다음 읍내 큰 마당에서 사자놀이의 경연이 벌어진다. 사자닐리리의 신명나는 악곡이 일대 교향곡을 이루는 가운데서 사자

24) 尹光鳳, 《韓國演戲詩研究》 二友出版社, 1987, 59쪽. 윤광봉, <한국가면극의 형성과정 -나례의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9집, 비교민속학회, 1992, 97쪽

25)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12쪽

26) 李杜鉉, 《韓國假面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383쪽

춤이 오래 계속된다. 큰 마당에서의 경연이 끝나면 사자행렬은 각기 호별방문으로 넘어간다. 꼭시가 사자를 집 마당 안으로 몰고 들어가서 한바퀴 돈 후 사자는 마당장단에 맞추어 뉘드리춤을 추며 격조 높은 북장단에 검모루춤을 춘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부엌문으로부터 부엌간에 들어가 집안에 숨은 악귀를 몰아내는 시늉을 하면서 춤추고 돌아가다가 밖으로 나온다. 사자놀이에서 쌍 통소와 북으로 구성된 악대는 3장으로 편곡된 사자놀리리를 능숙하게 연주한다. 사자놀리의 첫장은 심산 유곡에서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하였고, 중간장에는 성난 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인 선율을 연주한다. 마지막장에서는 부정을 타승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훌륭히 형상한다. 사자놀이의 씩씩한 춤가락은 백수(百獸)의 왕으로 이르는 사자의 위풍 그대로이며 한없이 밝은 보름달빛을 받으면서 넓은 광장을 마음껏 뛰노는 사자의 모습은 실로 장관이다. 사자놀이는 무용이 주체로 되어 있으며 극적 형상은 약하나 거기에는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인민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⁷⁾

1936년 2월 7일 송석하 선생이 처음 북청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글을 남긴 이래,²⁸⁾ 본격적인 연구는 이두현,²⁹⁾ 전경욱,³⁰⁾ 장정룡³¹⁾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북한에서는 김일출, 박종성, 장권표, 리순신, 최창호, 조대일, 권택무, 한태일 등의 연구가 있었다.³²⁾ 속초지역 전승의 북청사자놀음에 대해서 김수석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보자(김수석)에 의하면 사자의 형상은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김수석 씨에 의하면 그 당시 북청에서는 북청사자놀음으로 주로 불렀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애원성은 ‘哀怨聲’으로 쓴다고 한다. ...제보자에 의하면 이 애원성은 경복궁 창건 때에 북청지방의 남자 일꾼들이 많이 동원되었는데 한 번 가면 그 돌아올 날을 기억할 수가 없는 일이 많은 지라 님을 멀리 한양으로 보낸 한 여인의 이별과 기다림의 간절한 소망을 읊었다고 말한다. ...제보자 김수석 씨는 현재 속초시 영랑동 41통 1번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금년 76세의 고령이시다. 1907년 함경남도 북청군 죽평리에서 출생하여 1.4후퇴때 월남하신 분이다. 학력은 보통학교를 졸업했으며 북청사자놀음을 배우게 된 때는 우연히 정월대보름날 사자놀음을 구경하다가 흥미를 느껴 13세 때 배우게 되었다 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혼자서 흥내를 내고 연습하여 그 다음해 사자탈을 쓰고 연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북청사자놀음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연기자 몇 중에 한 분이며 매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며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서 큰 활동을 하고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³³⁾

필자는 지난 1991년 7월 16일 김수석(속초시 영랑동 8통 5번, 당시 84세), 김하륜(속초시 금호동 10통 1번, 당시 76세) 제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실질적인 면담 심층조사로서 북청동향친목계 계획 및 위원명단을 찾았고, 이들이 북청사자놀음의 실질적 전승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월남이후 최초 제작된 북청사자탈을 김하륜 옹의 집에서 찾아내 사진촬영을 하여 원형복원에 기여하였다. 이후 필자는 1957년 당시 북청사자놀음의 장구와 양반역을 맡았던 신겸(87세) 옹을 찾아냈고, 부친 변무성으로부터 통소와 양반을 배우 변경일(78세)

27) 전창석, <탈놀이> 《조선의 민속놀이》 군중문화출판사, 1964, 22~23쪽

28) 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0년 75~79쪽

29) 이두현, 《한국가면극》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381~393

30) 전경욱, 《북청사자놀이연구》 태학사, 1999

31)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32) 북한지역 북청사자놀음연구내용은 《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보고서》 속초문화원, 2010년을 참고하기 바란다.

33) 최임규, <북청사자놀음> 《강원민속학》 창간호, 강원도민속학회, 1983, 99~114쪽. 이 글은 김수석 제보자의 간단한 증언과 1979년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대본, 북청군지의 내용을 주로 전제하였다.

34)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98~216쪽

씨와 김철섭(73) 제보자를 찾아서 전승실태조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³⁵⁾ 속초지역에 전승된 사자놀음의 본격조사와 내용은 필자에 의해서 두 차례로 수행되었고, 고인이 되신 김수석, 김하룬 옹의 소중한 구술대본과 통소 녹음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피난 1세대, 1.5세대인 신경, 변경일, 김철섭 연희자를 발굴하여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기반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3. 속초사자놀음의 연희과장

속초사자놀음의 지역전승은 춤(음악)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느냐의 측면이다. 두 가지 분류에 사자춤의 초장, 중장, 말장이 들어가므로 사자춤이 중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사자놀음은 연희자들의 여흥놀이가 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칼춤, 사당춤, 무동춤, 꼬새춤, 승무를 비롯하여 민요 애원성, 예구내말 봉섬이, 마지막의 군무 등은 사자놀음을 보완하고 놀이판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1) 놀이과장³⁶⁾

(ㄱ) 연희시기:정월대보름 전후 2~3일간

(ㄴ) 연희장소:도청마당(각 가가호호 방문 후)

(ㄷ) 등장인물: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춤 2인, 거사춤 2, 사당춤2, 칼춤2, 무동춤4, 꼬새춤2인

(ㄹ) 가면:양반, 꼭쇠, 사자탈(모두 종이탈)

(ㄴ) 악기:통소 3~4개, 팽과리, 장고, 북, 징

(ㄷ) 소요시간:40~50분(전체), 사자춤은 5~10분 정도

(ㄹ) 연희내용:벽사진경

(ㅇ) 연희마당:[아홉굿거리(춤)] ①입장곡 ②애원성곡 ③예구내말 봉섬이 ④연풍대 ⑤칼춤 ⑥사자춤초장 ⑦중장 ⑧말장 ⑨자유곡 [열두마당(내용)] ①양반꼭쇠의 해학마당정리 ②애원성노래 ③사당춤 ④무동춤 ⑤꼬새춤 ⑥칼춤 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 ⑩승무 ⑪풍자 ⑫군무

(ㄱ) 사자탈의 크기:1958년 남한에서 최초로 만든 사자탈은 크기가 사자전면 가로 70cm, 세로 62cm, 이마에서 눈썹까지 15cm, 눈썹의 길이 20cm, 한쪽 눈의 크기 14cm, 코길이 22cm, 입의 길이 21cm, 입높이 3cm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칠을 했으나 종이로 만들었으며 사자탈은 페그물을 색칠함.³⁷⁾

북청사자놀음을 기본으로 한 대표적인 놀이대본을 살펴보면 마당놀이와 사자놀이 마당으로 크게 두 마당으로 나뉜다. 이두현 채록본의 경우 제1과장:애원성, 제2과장 :마당놀이-①마당놀이 ②사당춤 ③무동춤 ④꼬새춤, 제3과장:사자춤-①사자춤 ②군무로 되어 있어서 애원성 과장이 따로 들어갔다.³⁸⁾ 다음으로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조규희 채록본은 제1애원성마당-①해학 ②애원성 ③사당춤 ④칼춤 ⑤무동춤 ⑥꼬새춤, 제2 사자놀이마당-⑦사자춤과 승무 ⑧풍자 ⑨군무(넛두리춤)으로 2마당 9과장으로 나누었다. 전경옥 채록본은 마당놀이 마당과 사자놀이 마당으로 나누었다. 마당놀이에는 ①마당놀이과장 ②애원성춤과장 ③사당 거사춤과장 ④무동춤과장 ⑤넛두리춤과장 ⑥꼬새춤과장 ⑦칼춤과장 등 7개 과장이 있고, 사자놀이에는 ①사자춤 초장 ②사자춤 중장 ③사자춤

35) 장정룡, 《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보고서》 속초문화원, 2010

36) 1950년대 속초지역에서 처음 사자놀음을 연희하였던 김수석, 김하룬 두 분의 고증을 토대로 그 내용과 사자탈의 크기를 정리한 것이다.

37)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214쪽

38) 이두현, 《한국가면극》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381~393쪽

말장 ④마을돌이와 뒷풀이과장으로 모두 4과장으로 하였다.³⁹⁾

박종성은 북청사자놀음이 하나의 완전한 독립적인 탈춤이라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고 강조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첫부분은 느린춤부분이다. 이 지방에서는 느린춤부분의 장단을 ‘마당장단(굿거리장단)’이라고 하였고, 춤은 ‘넙놀이춤’이라고 한다. 이 춤에서는 사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부분은 ‘닐니리장단(타령장단)’에 춤은 ‘넙두리춤’이다. 이 춤부분에서는 사자의 맹수로서의 날래고 용맹한 모습을 강조한다. 셋째부분은 ‘검모리장단(타령장단이 빨라진 것)’에 환희의 춤이다. 여기서는 사자가 마음껏 논 환희로운 기분을 형상하고 있다. ‘검모리춤’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에서 힘차고 약동적인 북장단에 재빠르고 박력있는 율동이 전개된다. 셋째부분에서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삽입된다. 한참 사자가 날뛰 때 어린이가 하나가 춤판에 끼어 든다. 사자가 큰 입을 벌리며 달려들어 아이를 삼킨다. 사자는 곧 체기를 받아 빙빙 돌다가 쓰러진다. 이때 사자를 끌고 다니던 마부가 침쟁이를 엮고 들어온다. 침쟁이는 막대기만한 침으로 사자를 쿡쿡 찌른다. 사자가 살아나고 기쁨을 안고 춤을 추면 놀이꾼들 모두가 어울려 큰 춤판을 날이 썰 때까지 계속되는데, 개별적인 집들을 찾아다니면 놀기도 하였다. 이때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엌으로 해서 방안을 통과하여 마당으로 나온다. 집주인은 음식을 차려주는데, 사자가 그렇게 해야 목은 해의 부정한 것이 다 물러간다는 지방의 옛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⁴⁰⁾

권택무에 의해 정리된 북한전승의 북청사자놀음은 ‘북청사자탈극’이라 부르며 북상리(대벌)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대본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⁴¹⁾ 과장은 제1 도청과장, 제2 길군악과장, 제3 경연과장, 제4 마을돌이과장, 제5 마감과장으로 나누었으며, 나오는 탈은 사자탈, 꼭쇠(또는 팍쇠), 양반, 중, 점바치, 의원, 굴중(상모)돌리는 사람, 소고든 거사2명,⁴²⁾ 무동,⁴³⁾ 아이(또는 기생) 등이다.

한태일의 대본은 사자탈춤 중심으로 초장, 중장, 말장의 3개 춤마당으로 되어있다. 초장은 사자닐리리로 마당장단(굿거리장단)에 맞추는 넙놀이춤(느린동작의 춤), 중장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에 맞추는 빠르고 격동적인 춤으로 사자의 웅장한 모습과 위엄을 보여주고, 말장은 사자가 기생을 삼키는 장면, 기생을 삼키고 체기받은 사자를 의원이 막대기침을 놓아 소생시키는 장면 등 극적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한다.⁴⁴⁾

따라서 현존 남북한전승의 북청사자놀음은 마당놀이마당과 사자놀이마당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지역의 전승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바 현재 행해지지 않는 승무나 거사춤 등을 배제한다면 전체적으로 10과장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현행 속초사자놀음의 전체 구성은 4과장 10마당이다. 이는 9굿거리 12마당을 고려하여 정리한 것으로 첫째는 길놀이이다. 그 순서는 깃발-햇불꾼-통소-장고-징-소고-꺽쇠-양반-무동-승무-뽕추(순서가 바뀌기도 함)이다. 북청사자놀음은 야간에 행해지는 특성을 살려서 길놀이에 뽕꾼이 햇불을 들고 사령이 깃발을 들고 도청 앞으로 모여들자 애원성을 부른다. 마당놀이에서는 양반과 꼭쇠가 등장하고, 다음에 넙두리춤, 무동춤, 뽕새춤, 칼춤으로 여흥놀이를 마치면 본격적인 사자놀이가 진행된다. 여기서 사자춤 초중말장을 마치면 마지막 군무놀이에서는 출연자가 함께 군무를 추고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면서 끝낸다. 따라서 속초사

39) 전경옥,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화산문화, 2001, 59쪽

40) 박종성, 《조선민속무용》 문예출판사, 1991, 143쪽

41)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86~91쪽

42) 거사(乞士, 居士)는 유랑예술인집단인 사당패 가운데 남자를 이르는 말.

43) 무동(舞童)은 걸립패라는 유랑예술인들의 집단에서 다른 출연자의 어깨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아이.

44) 한태일, 《사자탈춤》 《조선예술》 10월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64~65쪽

자놀음은 타 지역과 달리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며 마치는 것이다.

속초사자놀음은 마당놀이와 사자놀이가 중심이나 그 앞에 길놀이와 그 끝에 군무놀이를 넣어 놀이마당 구성상 체계성을 갖추었다. 전체 과정은 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길놀이는 길군악 시작마당이며, 마지막 군무놀이는 마감마당과 같은 의미다. 속초사자놀이의 가면과 과정을 보면, 제1과장:길놀이-①애원성, 제2과장:마당놀이-②양반꼭쇠해학 ③넋두리춤 ④무동춤 ⑤뽕새춤 ⑥갈춤, 제3과장:사자놀이-⑦사자춤초장 ⑧중장 ⑨말장, 제4과장:군무놀이-⑩돈돌라리이다.

속초사자놀음에 사용된 사자가면은 현재 전하는 것은 1936년 2월 7일 석남 송석하(宋錫夏:1904~1948)가 북청현지에서 촬영한 북청읍 사자와 토성리 사자가면이 있다. 송석하의 사자탈은 전체적으로 붉은 색 계열이며, 이마에는 검은색으로 길게 세 줄의 주름을 뺐으며, 양쪽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으며 눈은 황금색을 칠하고 눈 주위를 길게 파고 가운데 구멍을 뚫었다. 코는 콧마루가 넓고 양쪽 콧구멍이 불룩하게 튀어 나왔다. 얼굴 양쪽에 사자갈기를 흰색으로 치켜 그려서 무서운 형상이다. 이것은 사자놀음이 나례의 유풀을 간직하고 벽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탈의 색이나 모양이 사자가면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김일철이 1955년 겨울부터 1956년 여름까지 세 차례 북청지방을 방문하여 조사한 사자가면 사진 자료가 전하고 있으며, 필자가 속초 현지에서 찾아낸 사자가면은 1957년 김수석, 김하륜 두 분이 속초에서 처음으로 페그물을 이용하여 사자몸을 제작하고, 종이로 사자얼굴을 제작한 것이다. 현재 속초사자가면은 김수석, 김하륜 제작의 사자가면을 원형으로 확정하고 이를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가면은 필자가 김하륜 씨의 집을 방문하여 창고에서 찾아냈으며, 김하륜 씨 타계 후 현재는 속초문화원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강원도 내에 전승되는 사자모양의 유물 가운데 특별히 중요시 되는 자료는 강원도 태백시 본적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 사자문양의 수막새다. 가장 주목되는 사자관련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기와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사자문 수막새로, 거의 원형의 상태로 출토된 2점을 비롯한 총 4점의 유물 모두 동일 외범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약간 타원형의 막새 드림면에 딱하게 시문된 사자는 두 다리를 가슴 양 옆으로 내린 좌상(坐像)으로 그 자세한 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자의 얼굴(지름 상하 6cm, 좌우 6cm)은 정면관(正面觀)으로, 눈은 농동자 바깥쪽으로 두 줄의 선을 돌려 마치 동그랗게 부릅뜬 것처럼 보이며, 그 위로는 두텁고 짧은 눈썹을 배치하였다. 코는 양감있게 솟은 콧등과 그 사이의 콧구멍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인중에서 시작되는 두 줄의 수염은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양 볼로 뻗어 올라가 눈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감기는데 그 표현이 사자의 갈기와 비슷하여 서로 조화를 이룬다. 수염 아래에는 일자로 표현된 입술과 함께 3개의 앞니가 나란히 튀어나온 모습이 다. 이러한 얼굴 주변에는 안쪽으로 감긴 고사리 모양의 턱수염 및 갈기가 돌아가고 있다. 또한 이마에는 긴 타원형의 귀가 양쪽으로 가지를 뻗었고, 그 사이는 Y자 모양의 장식으로 마감하였다. 얼굴 밑으로는 좌우 아래로 불룩하게 양감을 준 가슴이 얼굴 아래쪽을 감싸듯 표현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두 다리 사이로 다소 도식화된 모습의 배가 보이는데 안쪽으로는 희미하게 V자를 여러 겹 겹쳐 새겼다. 얼굴의 양 옆으로부터 뻗어내려 배의 양 옆으로 나란히 모은 다리는 바깥쪽의 두껍고 양감있는 선과 안쪽의 가늘고 유연하게 뻗은 가는 두 줄의 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다리의 근육과 힘줄을 연상시키고 있어 힘있게 느껴진다. 유난히 섬세하고 크게 강조하여 나타낸 발은 마치 갈고리처럼 날카로운 6개의 발가락을 바깥 쪽으로 뻗고 있으며 뾰족한 발톱까지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막새 드림면의 가장자리 주변부(폭:0.7~0.8cm 높이:0.5cm)에는 연자를 촘촘히 돌렸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사자문 수막새를 종래의 출토 예와 비교해 볼때, 사자의 갈기, 수염과 이빨, 양감있는 가슴과 힘이 느껴지는 다리 등 세부적인 요소의 표현 여부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공통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수염과 다리, 발 등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기는 하나 경주지역의 일반적인 사자문 수막새보다는 얼굴의 세부가 다소 도식화되었고 평면적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막새의 드림면 전체에 가득

차는 크기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고 뚜렷하게 표현된 좌상을 배치하였다는 점, 그리고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사자문 막새가 출토된 점 등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⁴⁵⁾

북한지역 김일출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각 마을의 사자가면들이 서로 다른 특색들을 가졌다고 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호랑이 또는 고양이 모습으로 된 것, 귀면 모양으로 된 것과 얼굴 전면에 용비늘을 그린 것 등이다. 속초사자놀음 가면의 형태는 김하륜 옹의 고증에 의하면 속초에서 만들어 보관하는 있는 사자가면에 대하여 “이게 본 사자거채입니다. …우리사자 저기 진짜지”라고 증언하고 속초지역이 아닌 곳에서 만든 사자가면은 원형에서 벗어나고 음악도 달라졌음을 말하였다.⁴⁶⁾ 필자가 조사할 당시 김수석 옹의 증언도 그러하였다.⁴⁷⁾ 따라서 북청사자놀음의 속초전승지에서 최초로 제작한 사자가면이 원형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방증된다. 현재 사용하는 속초사자가면의 형태이다.

① 종이(과거에는 피나무 바탕에 조각하여 압수 한 쌍을 만들어서 썼다고 한다)

② 압수 한 쌍인데 수컷의 얼굴 윤곽은 전체적으로 둥그레하고 붉은색, 검은색, 황색 등으로 채색한다. 수염을 흰색을 칠하거나 납종을 붙이고 눈썹을 검게 그리기도 한다. 몸에는 그물을 씌우고 그 그물에 황색, 흑색, 백색, 청색, 홍색 등 오색실을 매고 꼬리는 대나무에 오색실을 감아 붙인다. 눈은 금색을 칠하였으며 눈동자와 코는 검은색 바탕에 구멍만 뚫렸다. 암컷 사자는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띠고 이마는 검은색 주름을 넣었고 눈은 흰색 눈동자에 검은색으로 그렸다. 코는 굵게 만들고 끝에 구멍을 뚫었다. 귀자리에는 방울을 달았다.

③ 높이 55cm 너비 넓은 곳이 48cm 좁은 곳이 37cm, 코높이 10cm, 눈동자 지름 5.5cm, 꼬리길이 86cm(손잡이 10cm), 몸 전체길이 200cm

④ 사자몸은 같은 오색실이 달린 바지와 신을 신고 사자머리와 사자 몸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

2) 양반:① 종이 ② 흰색 바탕에 검은색 눈썹과 수염을 달았다. 눈과 입이 뚫렸다.③ 높이 30cm 너비 21cm 코길이 11cm, 코높이 4cm ④ 높은 정자관을 쓰는데 정자관에는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렸다. 옷은 흰색 도포를 입었으며 부채와 장죽(74cm)을 든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양반은 손에 담뱃대를 들고 부채를 들고 도포 관복을 입고, 탈은 종이로 만들었으며 수염은 근사하게 길쭉하게 만든다고 한다.

3) 꼭쇠(뺨쇠):① 종이 ② 검은색 바탕에 수염을 검은색으로 길게 달았다. 눈과 입은 뚫렸다. ③ 높이 31cm 너비 20cm, 코높이 5cm ④ 빨간색 수술이 달린 전립을 쓰고 등과 어깨에 검은 빛깔이 들어간 갈색 옷을 입었고 허리

45) 《本寂寺址》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5책, 강원문화재연구소, 태백시, 2003, 126~128쪽

46) 장정룡 조사:1991년 7월 16일 김하륜(남, 76세, 속초시 금호동 10통번) “이게 다 우리 손으로 만든거요. 지금도 망글어요. 만들기 힘이 들어요. 이게 질이 세 가지고 (통소)구멍을 뚫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 우리 여기서 무스할까.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삼년하고, 삼십년전 일이야. 한 삼년 놀아거든, 가서 저 사자가지고 가서 그래서 서울가서 한 삼년 대냈어요. …그래 귀찮으니까 한 삼년 다니고 등록난 다음에 자기네. … (이게)지금 노는 사자야, 틀이 틀이 맞지 않나 싶어 칠한 거야. 이게 본 사자 거채입니다. 그렇담 지금 서울학생들이 지금 말하는거 저 영감들이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현재 영감들이. 그래도 우리 사자가 저게 진짜지,, 거 내 하도 무속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47) 장정룡 조사:1991년 7월 16일, 김수석(남,1907년생, 속초시 영랑동 8통5단) “원래 여기서 만든 사자가 서울 올라가서, 서울서 올라오라 그래서 여기서 만든 사자를 올려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자 그 공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가지네까지 망글어 가지고 지금 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곁을, 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이거서 망근 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친목회 김하륜이라고, 우리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사자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주 대가리가 참 보기도 좋아요. 제가 만든거요. 거기 있습니다. 종이로, 종이를 붙인 거예요.”

에 붉은 천을 두른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꼭쇠는 일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줄을 이렇게 매고 바지도 한쪽 가다리, 반팔을 빨건거나 검은 거하고 팔이때기 절반은 빨건거 하고 탈을 쓰고 짚신신고 행전치고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고 한다.

4) 곱추:① 종이 ② 분홍색 바탕에 눈썹은 검은칠을 하고 붉은 입술이며, 눈과 입은 뚫렸다. ③ 높이 29cm 너비 20cm 코높이 3cm ④ 보통 여자 복색에 덩기머리를 한다.

5) 칼춤:① 2인이 등장하며 가면은 없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칼을 들고 나와 춤을 춘다. ② 상의의 끝에는 검은색으로 선을 둘렀다.

6) 무동 2인:① 가면은 없이 고깔을 쓰고 소매와 어깨에 붉은 줄이 그어진 소매가 넓은 가사와 흰바지를 입는다.

7) 약사:① 흰 색 바지저고리에 남색 쾌자를 입고 머리에는 상투를 틀었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 의하면 대부분이 고깔을 썼다고 한다. ② 고깔색은 흰색에 양쪽에 꽃을 달았다. ③ 통소는 5~6명이 등장하며 굵은 대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길이 65.5cm 지름 3.3cm 그밖에 장고 1, 소고 1, 북1, 징 1 등이 등장한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통소는 3~4, 큰북, 작은북, 장고 하나, 징 하나, 팽과리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4. 속초사자놀음의 연희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초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무렵 사자희(獅子戲)가 전승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북청사자놀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속초사자놀음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함경남도 피난민들에 의해 본격 시작되었다. 지난 1957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월남한 함경도민의 최초 정착, 최다 집거지인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사자후를 토했다. 북청출신으로 사자놀음 연희자인 김수석과 통소 명인 김하륜 두 분을 중심으로 청호동에 거주하던 함경남도 도민 가운데 사자놀음을 보았거나 실제로 했던 실향민들이 중심되었다. 1958년 속초읍장의 도움으로 처음 속초지역에 함경남도 도민들이 북청도청을 세우고 사자가면을 만들어서 매해 정월대보름날 연희를 시작하였다.

1957년 당시의 연희자들과 명단을 적시하면, 사자:김수석(양채, 애원성) 뒷채(오동술), 양반:이종욱, 꼭쇠:양계건, 사당춤:박씨, 의원:장남우, 승무:김봉수, 총각:김원사, 곱추:마유득, 도깨비:김효환, 중국인:이종호, 약사: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겸(장구) 이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수명이 참가하였다.

속초에는 1957년 당시 연희 때 장구를 쳤던 양반역을 맡았던 신겸 씨가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에 통소를 불었던 고 변무성 씨의 아들 변경일(남.78세)가 당시 아버지에게 통소와 양반놀이를 배웠다고 한다. 또한 사자놀음을 잘 기억하고 있고 사자탈 제작에 참여한 김철섭 씨가 재현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음의 대부분은 최초 북청도청을 만들고 김수석(1907~1997), 김하륜(1914~2008) 씨의 지도하에 연희하던 당시의 모습대로 재현하였다. 이들은 1959년 5월 2일 북청동향친목계를 만들었으며 계원은 당시 북청사자놀음을 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친목계원은 다음과 같다.

이정기(63, 북청읍 외서리), 오경창(59, 서리), 김남룡(54, 남리), 김수석(52, 죽평리), 이창희(52, 거산면 평리), 이호영(51, 북청

읍 외서리), 김삼목(49), 방학복(48, 북청읍 서리), 박진한(48, 신북청면 신상리), 이재섭(47, 신포면 육구), 최순재(47, 하차서면 상신리), 이옥영(48, 북청읍 상동리), 이완섭(46, 남리), 박성철(46, 서리), 방석홍(45, 서리), 양계건(45, 덕성면 동압내리), 김하룬(45, 신북청면 양가리), 어윤무(45, 덕성면 동압내리), 박유형(43, 상차서면 방촌리), 유흥렬(43, 덕성면 주의동리), 이종욱(43, 상차서면 엄동리), 방석재(43, 북청읍 서리), 이종준(42, 상동리), 어중룡(42, 날미), 마방섭(41, 가회면 봉의리), 김홍천(40, 가회면 봉의리), 이종호(40, 북청읍 서리), 민병국(39, 거사면 하입석리), 최○윤(39, 건자포), 김효환(38, 신포면 신포리), 김선천(38, 북청읍 상동리), 이오섭(38, 서리), 오동술(36, 죽평리), 신경(36, 죽평리), 마유득(34, 가회면 봉중리), 박용천(33, 북청읍 북삼리)⁴⁸⁾

북청동향친목회는 36명이야. 그때나 이때나 이 형님(김수석)이 제일 고령자시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그래 가지고 사자를 저기 선조로 내려오는 공연문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거든, 저 바닷가에 가면 고기 그물을 썩어서 내버리는 것을 골라가지고 씻어가지고 바다에 씻어 가지고 삶아가지고 물을 들어 사자를 만든 겁니다. 그때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나 이 형님이 사자를 만들고 그래서 사자 노는 걸 연습했지. 그래서 그 활동으로 모인 돈을 가지고 운영했지요. 우리는 정월 대보름날 아튼 음력설부터 보름날까지 계속 땡겨요. 그래 몇 날을 해 가지고 우리 고향의 선조들은 정월대보름날이라 정초에 사자놀이를 하게 되면 그 잡신들이 다 쫓겨나고 만수무강하라고 빌고 다 그래서 집집마다 쌀도 노나주고 돈도 노누는 집이 있고, 그때 돈으로 삼백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한 천원내고 그럼 그걸 함께 모아 재산을 만들었어요.⁴⁹⁾

당시 북청군민 28만 가운데 절반인 14만 명이 월남했으며, 속초에는 북청출신 3~4백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상기 계원가운데 북청사자놀음에 참가한 연회자중 최고령자는 앞서자의 김수석이 중심이 되었다. 사자 뒷채 오동술, 꼭쇠 양계건, 양반 이종욱, 곱추 마유득, 도깨비 김효환, 중국인 이종호, 통소 김하룬, 통소 이재섭, 장구 신경. 북마 방섭, 징 이종준 등 12명이나 되므로 북청동향친목회는 사자놀음의 실질적 공연단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 36명이 북청도청을 만들어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매월 20일 월례회의를 하며 연예부, 장의부, 의식부 등이 있어 사자놀음과 장례행사 등을 주관했다.

사자놀음은 속초에 거주하던 앞서자 김수석 씨를 중심으로 1956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첫 출전을 하였다. 이후 1957년 본격적으로 속초지역에서 연회되었는데 북청도청 기금마련을 위해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속초에서 처음 공연하였다. 10일 동안 공연한 기금으로 1958년 속초읍장 전성우 씨로부터 금호동 읍소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도청을 건립하였다. 이후 1960년 서울에서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하고 1964년부터 전수활동을 하였으며, 1966년 10월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의 김수석, 오동술이 사자놀음을 하고 이재섭, 김하룬이 통소로 참가하여 김수석이 개인상을 받았다.

사자놀음은 이듬해인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았으며 김수석 씨는 사자앞머리 기능보유자로 1970년 기예능보유자 제84호(본적:함경남도, 주소: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구 18반, 주민등록번호:140404-107507), 생년월일:1907년 7월 19일)로 지정받았다. 이후에도 김수석 씨는 속초에 계속 거주하면서 사자놀음의 정착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점차 속초사자놀음은 서서히 명맥이 끊기고 1982년 김수석 씨는 전문대학생들을 지도하여 축제 때 공연하였으며, 1981년 9월 설악동에서 가을맞이 새마을대예술제를 마지막으로 전승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 10월 10일 제20회 설악제 당시 서울의 북청사자놀음 공연단이 속초공설운동장에서 공연하였고, 1988년 음력 정월대보름날에는 속초지역에서 북청출신 10여명이 사자놀음을 구성하여 걸립을 하였으나 본격적인 복원은 아니었다. 당시의 복색은 악사들이 모두 종이꽃을 한 개 단 고깔을 썼으나 현재는 쓰지 않고 있다.

48)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99쪽

49) 장정룡 위의 책, 207쪽

10년 후인 1991년 속초시의 노력으로 설악제 민속제때에 가장행렬로 참가하였으며, 단체구성이 안되어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보존회에서 공연하고 김수석 씨는 애원성만을 불렀다. 필자는 김수석 씨와 김하륜 씨를 1991년 7월 16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속초 현지조사에서 처음 만났다. 속초가 고향인 필자 역시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의 후세로서 이 분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시에 두 분은 고령이었지만 사자춤을 성실하게 증언해 주었고, 통소를 직접 불렀다. 당시 김수석 옹은 놀이내용과 탈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당춤, 뭉 갈춤, 뭉 곱새춤, 애원성, 그 다음에 거기 사자놀이마당이요. 맨 마지막 사자춤이 끝나고 그때 사자가 놀 때는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거든. 그러구 승무하고 그러니 세 사람이 들어가 놀거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무렵에 한 이십분 놔두고 다 들어간다 이. 인원이 다 들어가서 한마당에 사자도 놓고 그 다음에 갈춤하나, 칼 춤추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몸뚱이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저기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꼭쇠, 양반 뭉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그때그때는 한마당에 들어가서 전부 어울리게 복잡하게 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서 나올 적에도 막 그리 쉽게서 순서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한바퀴 돌아요. 외줄 서서 말이요. 한 줄로 서서 빙 돌거든요. 그래 이제 돌고서 거기 인제 존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요 옛날에 동네 부락에서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을 존위라고 하거든요. 존위, 그래 그 존위가 맨 마지막에 무슨 잡병쫓구 있지요. 곱추가 탈이 있고, 양반이 탈이 있고 그 다음에 꼭쇠, 그 나머지는 그냥 맨 얼굴, 수건 쓰는 것도 있고, 고깔쓰고...

옛날 옛날에 자손이 귀한 집 애들은 이제 사자를 태우거든, 태우면 장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자탈이 사자탈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애기 기저귀에다 채우면 명이 길다 그래서 그런 건 많지요. 사자탈은 빨간 것, 흰 것, 노른 것, 밤색, 검정색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래요. 사자는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골을 흔들 때도 있고 서서 흔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놀이시간은 오래 못 놀죠.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때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전체는 한 사십분, 오십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 하는 거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다 있재이, 그러니까 3장이지. 사자는, 사자는 3장에서 노는 거지. 그게 두 마당 아홉거리라고 그랬지요. 두 마당 아홉거리라는 게 두 마당인데 아홉거리가 나오는 기지, 애원성마당, 사자춤마당. 사자탈은 종이를 붙인 것이요.⁵⁰⁾

5. 속초사자놀음의 연희대본

1) 제1과장:길놀이-①마당돌이와 애원성

길놀이를 일명 ‘마당돌이’라고도 하는데 북청 토성리에서는 사자놀이와 관원놀이가 합쳐져 연희되었다고 한다. 길놀이 때 사자놀이와 관원놀이 연희자들이 악기반주에 따라 행진했는데 관원놀이를 하지 않지만 길놀이만 하는 마을도 있다. 길놀이를 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도청 앞마당에 통소가락이 울리면 모여서 놀았다고 한다. 이것을 입장곡이라고 하는데 행진은 햇불과 깃대가 앞을 서고 길잡이가 막대를 휘두르면서 장내를 정리한다. 다음에 양반과 꼭쇠가 등장하여 사자놀이를 소개하고, 그 진행을 맡는데 꼭쇠는 양반의 하인이다. 길잡이는 길놀이의 한 형태라 하겠다. 길놀이에 부르는 애원성(哀怨聲)은 함남민요로 널리 불린다. 1957년 최초로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을 공연할 당시에는 김수석 씨가 불렀다.

애원성은 “사자놀이 하기 전에 마을주민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애원성, 돈돌라리, 어랑타령 등의 민요를 단지

50)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9, 202~203쪽

노래만 부르던 것인데, 월남한 이후에는 새로 춤을 만들어 공연하고 있다. 따라서 북청고유의 춤이 아닌 별난 것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⁵¹⁾ 속초에서는 애원성이 북청사자놀음에 들어갔으며, 김수석 씨가 타계한 이후 전승되지 않고 있다. 현재 속초에서는 ‘넋두리춤’을 추고 있다.

애원성은 함경도 북청, 혜산, 갑산, 무산, 삼수 등에서 가장 많이 부른 민요로 개화기때 유랑의 길을 따라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구슬픈 노래라고도 하고, 북청지방에서는 대원군이 경복궁 증건할 때 노역에 종사하기 위해 떠난 남편을 이별하며 부른 아내의 노래라고도 한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씀에 요내 가슴 풀린다. 에헤”라고 부르는데 달 밝은 밤 옛 성의 폐허에 서있을 때, 통소를 손에 쥐고 먼저 한 곡을 불 때라든지, 목동이 석양녘에 집으로 향할 때, 굽이쳐 흐르는 두만강 뗏목을 탈 때도 불렀다고 한다. 김하륜 옹이 고증한 내용이다.

통소는 입장곡부터입니다. 그 다음이 애원성타령, 이 김하륜하고 그리고 인간문화재등록난 할아버지가 변영호라. 지금 통소 못 불어요. 이게 김수석 할아버지가 애원성타령 한 거요. “에헤, 에헤 우수경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씀에 요내 가슴 풀린다. 에헤 해는 오늘 보면 내일 보는 것 임자는 오늘 보면 언제나 보는가. 에헤 태산에 붙는 불은 만백성이 끄고 요내 가슴에 붙은 불은 어느 누가 끌까 에헤” 이 가사가 의미가 있는기야. 그리구 사자놀이 “에구 내딸 봉섬이”란게 있어요. 그 봉섬이란 아가씨가 그 아가 씨가 예뻐던 모양이지. 처음에 입장곡,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부르고 에구 내딸 봉섬아 불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불렀던 게 연풍대 라는 기요. 이번에는 칼춤이 나와요. 칼춤 잘취요.(김하륜, 이하 김하륜, 김수석 옹의 고증은 필자조사 1991월 7월 16일)

2) 제2과장:마당놀이-②양반꼭쇠해학 ③넋두리춤 ④무동춤 ⑤뽕새춤 ⑥칼춤

양반꼭쇠 해학은 양반과 그 하인 꼭쇠가 마당돌이에 등장하여 마지막 과장이 끝날 때 까지 계속 놀이판을 돌아 다니면서 놀이내용을 소개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부른다. 양반과 꼭쇠는 말을 하면서 놀이의 진행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놀이 중심은 사자놀이이며 춤과 동작으로 일관된다. 넋두리춤은 북청지방 여성들의 춤으로 돈돌리리춤이라고도 한다. 이 춤은 양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머리를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며 추는 것이 특징이다. 손목을 돌리고 다리를 살짝살짝 들면서 춤추는 것이 보기에 좋다. 무동춤은 어린 아이를 무동 태워서 춤을 추게 하는데 대체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2명이 각각 무동을 올라간다. 무동춤이 끝나면 뽕새춤(일명 뽕추춤)을 춘다. 양반이 꼭쇠에게 뽕새춤을 부르라고 하며 가슴과 등에 형짚을 넣어 불룩 튀어나온 모습으로 등장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뽕새가 한바탕 춤을 추고 들어가면 양쪽에서 두 명이 등장하여 중앙에 놓여 있는 칼을 들고 다양하게 칼춤을 춘다.

이번에는 칼춤이 나와요. 칼춤 잘취요. 처음에는 입장곡하고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그 다음에 에구내딸 봉섬아, 그때 사당춤 추거든. 그거 하면서 뽕새춤추고, 칼춤은 맨 마지막에 하는기야. 그 다음에 또 연풍대 할적에 그때두 추는데, 여기서도 춤추는 사람 서넛있소. 우리 고향사람들이 옛날 할머이들이 옛날 머리쓰개 머리수건을 이렇게쓰고 옛날 할머이들이 추는 겁니다. 마지막이 칼춤이 끝났소. (김하륜)

3) 제3과장:사자놀이-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

51) 전경옥, 《북청사자놀음》 화산문화, 2001, 63쪽

사자놀이는 초장, 중장, 말장으로 나누는데 초장은 사자가 몸푸는 과장이다. 좌우상하로 힘차게 돌리는데 ‘모래 기친다’고 한다. 예전에는 사자몸에 방울을 달아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달지 않는다. 북청에서는 한 마리가 놀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두 마리가 나온다. 양평리에서는 사자춤 중장에게 사자먹이로 아이를 내놓았다. 사자가 아이를 먹고 체한 시늉을 하며 쓰러지면 의원이 나와서 침을 놓아 살려내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종이 나와 염불을 하고 그것이 효험이 없자 의원을 불러서 약과 침으로 사자를 살린다. 죽평리에서는 사자가 쓰러지면 점점이 나와 병점을 치고 후에 중과 의원이 등장한다. 다시 살아난 사자는 중장의 마지막에 입사자춤을 추는데 앞채사람이 뒷채사람의 어깨위에 올라탄다. 요즘은 아이 대신 토끼를 사자가 먹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일본악서의 하나인《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 보면 ‘신라박(新羅拍)’은 직립한 사자모양이다. 이것은 앞채 한 사람이 뒷채 사람 어깨 위에 올라앉은 직립한 사자로 안에 두 사람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사자놀이무법(舞法)이 신라 이래의 것으로 오래된 것임을 추측케한다. 중장은 사자가 엎드리고, 기고, 뛰고, 입맞추고, 몸털고, 머리를 좌우로 돌려 이도 잡고, 꼬리흔들고, 몸을 굽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교를 보여준다. 역동적인 사자춤을 보여줄 때 승무가 들어와 춤을 춘다. 사자는 신나게 춤을 추다가 토끼를 먹고 쓰러진다. 대사가 염불해도 소용이 없자 의원이 들어와 침을 놓고 감로수를 먹여 소생시킨다. 사자가 소생하면 말장으로 들어가는데 승무가 다시 들어오고 거사도 들어와 원을 그리며 소고춤을 춘다.

이제 사자놀음하는데 초장, 중장, 말장이 있어요. 달라요. 이게 다 소리가 달라요. 음악이 달라요. 초장이 제일 늘지요. 뜨지요. 중장은 조금 더 빠르구 그 다음 말장에 가선 아주 빠르다이.(김하륜)

사자는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꼴을 흔들 때도 있고 서서 흔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놀이시간은 오래 못 놀죠.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때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전체는 한 사십분, 오십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 하는 거야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다 있재이, 그러니까 3장이지. 사자는. 사자는 3장에서 노는 거지. 사자가 한창 놀다 거꾸러지믄 이제 토끼를 하나 가져다가 만든 토끼를 갖다 거 허기증이 있으니 거꾸러졌다하면 이제 의원을 찾는다 말ियो. 꼭쇠에게 양반이 “의원을 찾아오라”고 말ियो. 그래 의원이 와서 진맥하게 되면 이제 의원이 “뭘 먹였는가?”하면 그럼 양반이 있다가 “사자가 허기증이 나서 토끼를 먹였는데요.”하면 의원이 “아, 그럼 언쳤는데요.”그러거든. “언쳤다. 이거 침을 놔야 하겠다.” 그 다음에 침을 놓다 말이야. 맨 마지막에 스님이 들어가서 염불하는기야. 그러면 사자가 살아나거든.(김수석)

4) 제4과장:군무놀이-⑩돈돌라리

군무는 마지막 뒷풀이 마감마당이다. 집에 들어간 사자가 어린 아이를 등에 태우는데 이렇게 하면 무병장수한다고 믿는다. 아이를 태운 사자는 한바탕 놓고 주인은 꼭쇠에게 쌀과 엽전을 주고 녀두리춤을 추자고 권한다. 마지막으로 모두 참가하는 군무가 이뤄진다. 이때 전 출연자들이 어울려 춤을 추고, 여성들이 등장하여 바가지장단을 치며 돈돌라리를 부른다. 봄철 강가에서 달래를 캐다가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시내강변에 돈돌라리요, 모래산천에 돈돌라리요, 보배청산에 돈돌라리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강산에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이 말뜻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동틀날’ 즉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불렀다고 한다.⁵²⁾

52) 장정룡,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 《속초문화》 제30호, 속초문화원, 2014, 54~71쪽 참조

6. 속초사자놀음의 음악·춤사위

속초사자놀음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특징은 통소가 여러 명 등장하여 연주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5명 이상이 부는데 10년 이상은 불어야 소리가 난다고 한다. 악기는 통소 이외에 북1~2, 장고1~2, 징1로 구성되며 초창기 속초에서는 팽과리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통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 통소는 애원성을 부를 때는 애조편 슬픈 가락으로 불고, 칼춤이나 뉘두리춤을 출 때는 흥겹게 분다. 반주음악은 주로 3분박을 사용하는데 굿거리장단이나 자진굿거리장단에 속한다.

사자춤 반주음악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으로 첫장에는 심산유곡에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 중간장은 성낸 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 선율, 마지막장은 부정을 물리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형상한다고 한다. 북청지역에서는 빠른 타령장단인 검모리장단(영풍장단, 도드라미) 이외에도 마당장단(굿거리장단), 널리리장단(승모장단, 타령장단) 등이 사용하고, 악기는 팽과리(팽매기)1, 새납1, 피리4, 통소4, 해금1, 소고1, 징1, 북1명 등이 등장한다.

속초사자놀음 춤사위는 애원성춤, 뉘두리춤, 무동춤, 꼬추춤, 칼춤, 승무, 사자춤 등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넘놀이춤, 잣은뉘두리춤(승모춤), 건모리춤을 춘다고 한다. 사자춤은 서서 모래치기, 앉아서 모래치기, 선모재비, 앉은 모재비, 앉은 잔걸음모재비, 땀동작, 앞걸음, 뒷걸음질, 좌로 네박돌기, 우로 네박돌기, 바닥에 입대고 돌기, 바닥에 턱대고 돌기, 바닥에 엎드려돌기, 선자세로 허리구부러돌기, 쪼그려 앉아돌기, 똑바로 일어서서돌기, 이잡기, 입맞추기, 기지개켜기, 몸털기, 입사자만들기, 입사자에서 내리기, 쓰러졌다 일어나기, 먹이먹는 동작 등이 있다. 그리고 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하는 동작,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짚는 동작,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등이 있다. 중장에서 꼭쇠가 앞장서서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사자가 쓴살같이 그 뒤를 따른다. 사자가 방을 거쳐 부엌까지 휘휘 돌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무서운 동작을 하다가 부엌에 놓아둔 바가지를 입에 물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내동댕이 쳐 버린 다음 높이 솟았다 엎드렸다 하며, 두 마리의 사자가 빙빙 돌게 된다.

7. 맺음말

속초사자놀음의 전승은 그동안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함경남도 월남민들에 의해서 전파·정착된 문화이식(文化移植)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우리나라 향토오락 즉 민속놀이에 대해서 언급한 책자에 고성과 양양의 사자희가 적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자료는 1936년 일제강점기 통치자료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각 도지사에게 명하여 226개 각 지방의 보통학교에 의뢰하여 수집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향토오락을 총체적으로 조사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놀이명이 무려 6,400여종에 달하는 양적 방대함과 치밀함은 이것이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쟁적으로 자료를 대폭 수집하여 보고하는 상달식 방식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정교하고 효율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조사의 특성상 전승이 되지 않는 지역의 향토오락을 무단으로 기재했을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자료를 근거한다면, 한국전쟁 이전 시기 속초지역에도 사자놀음이 상존했음을 언급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 사자놀음의 분포도가 작성된 바 있듯이 1950년대 북청사

자놀음의 전파 이전부터 정월 중에 농민들에 의해서 사자놀음이 행해졌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당시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면, 오늘날 행해지는 북한지역 사자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자머리는 대나무 틀에 종이를 붙여 만들며 사자가면에는 앞뒤로 두 명이 들어가서 악대와 함께 정월달에 어울려 노는 방식이다. 이 사자탈은 대부분 북방계 사자탈 제작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현재 속초지역인 고성과 양양일대에서 1930~40년대 사자놀음이 전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전승의 준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1936년 무렵에 조사된 조선총독부 향토오락에 수록된 속초사자놀음의 구체적인 연행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 자료나 사진, 기타 기록들이 없으나 이 조사의 과업을 각 도지사에게 시달하고, 이를 보통학교의 교장이 수령하여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고성과 양양의 사자놀음이 오늘날 전파된 북청사자놀음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 북방형 사자탈 모양과 놀이방식, 놀이시기 등에 특히 부합한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한 관계로 필자의 관점은 속초지역 전승의 사자놀음이 우리나라 북방계 사자놀음계인 함경도와 강원 동해안 권역에 포함된 사자놀음 연행의 독자영역을 지녔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결국 속초사자놀음과 북청사자놀음과의 상관성은 전파론적 측면에서만 50년대 이후로 문화이식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자놀음 연행정착의 동해안권역 자생론적 측면의 연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關北 제2집, 재강원함경도민회, 1953
- 한효, 조선연극사개요, 국립출판사, 1956
- 신영돈, 우리나라의 탈춤놀이, 국립출판사, 1957
-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 과학원출판사, 1958
- 宋錫夏,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 서득창 편, 조선의 민속놀이,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 路芳草, 재강원평안도민회, 1964
- 大同江, 평남민보사우회 부산친목회, 1965
- 권택무, 조선민간극, 조선문학예술동맹출판부, 1966
- 함경남도지, 함경남도지편찬위원회, 1968
- 接敵 및 收復地區實態調査報告書, 강원도, 1968
- 이두현, 한국가면극,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69
- 북청군지,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
- 민속사진특별전 도록(石南民俗遺稿), 한국민속박물관, 1975
- 중요무형문화재 마당종목, 재단법인 무형문화재보호협회, 1979
-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1979
- 조규희, 북청사자놀음대본(확정판),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1979
- 중요무형문화재 마당종목,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1

-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출판부, 1982
- 최인학, 북한의 민속,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6
- 윤광봉, 한국연희시연구, 이우출판사, 1987
- 서연호, 산대탈놀이, 열화당, 1987
- 장정룡, 강릉관노가면극연구, 집문당, 1989
- 최철·전경옥, 북한의 민속예술, 고려원, 1990
- 박종성, 조선민속무용, 문예출판사, 1991
-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 1991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문화부,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1992
- 북청군지(개정증보판),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94
- 한성경, 재미있는 민속놀이, 금성청년출판사, 1994
-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명절과 놀이, 과학백과종합출판사, 1994
- 전경옥, 북청사자놀음 전수교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1996
- 전경옥, 북청사자놀이연구, 태학사, 1997
- 문화재관리국, 북한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97
-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 장정룡 외,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 이우영,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조사, 통일연구원, 2001
- 전경옥,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화산문화, 2001
- 리정순, 열두달 민속놀이, 근로단체출판사, 2002
- 조대일 외, 조선민속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 장정룡 외, 속초지역실향민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속초시박물관, 2007
-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보고서, 속초문화원, 2010
- 장정룡, 속초사자놀음 보전·전승체계연구, 속초시박물관, 2011
- 장정룡,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 속초문화, 제30호, 속초문화원, 2014

특집2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속초근대역사의 문화자원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 속초의 발전을 이끈 수산업의 역사와 가치
- 속초의 발전을 이끈 근대문화유산과
구 속초수협
-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례와 시사점





속초 근대역사의
문화자원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속초 수산업 역사의 현대적 가치 조명

제1주제 속초의 발전을 이끈 수산업의 역사와 가치

- 엄경선(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위원)

제2주제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례와 시사점

- 황순주(경기창작센터 기획사업부 부장)

제3주제 근대문화유산과 구 속초수협

- 김재홍(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대표)

• 사업기간: 2016. 9. 7(수) 15:00~18:00

• 사업주관: 속초문화원

• 사업장소: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제1주제>

속초의 발전을 이끈 수산업의 역사와 가치 발표요지

발표자 : 엄경선(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위원)

도시변천사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전에 속초수협이 이전한다 할 때 그 안의 엄청난 문서들이 사실 속초의 기록일텐데...그걸 한번 들춰보자 제안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변천사 사업으로 그 안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점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전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전부터 우리 속초의 과거 기록을 들춰보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을 다루다보니 수산업도 많이 나옵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한장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년전 쯤 사할린에서 오신 교포 한분이 오셨어요. 양양 강현면 출신이신데, 1930년대 후반에 아버님이 사할린으로 이주하셨는데, 그 전에 아버님의 기록을 찾으려고 속초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님이 항일운동했던 기록을 찾기 위해 만났는데 마침 그런 기록도 찾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 분이 이 사진을 꺼내면서 이 사진이 속초항의 옛날 기록입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은 속초시립박물관에 그 분이 기증하셨어요. 이 사진을 보면 속초항이 항만으로써 축항을 쌓기 전에 옛날 모습입니다. 왼쪽 밑에 보면, “양양명소 이상작 축항건설 속초항”이라고 적었습니다. 1929년 3월달에 양양 속초리에서 지역 유지 중심으로 축항기성회를 조성하는데 이게 속초항의 역사적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호동 모래톱이 이렇게 가까웠고, 수문으로 배들이 내항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등대 밑에 배들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호수를 끼고 항만을 조성할 곳이 청초호가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여기를 항구로 만들어 달라고 주민이 만든 것입니다.

속초항의 역사를 보면, 1905년 연해항로가 처음 개설

되어 일제강점기 시절 대포항이 선박의 기항지로 되어 대포가 자리잡았습니다. 속초문화원이 번역한 <면세일 반>(1926년 발간)이라는 자료가 보면 당시 속초 일대는 인구가 8,056명인데, 농업인구는 640호 3,941명, 나머지 어업이나 제염업, 광공업이 219호 1,112명입니다. 수산업만 놓고 보면 어선수는 100척, 어획고는 58,746원입니다. 주요 어획고를 보면 명태 29,689원, 청어 2,115원, 정어리 1,485원, 미역 2,128원, 속초 12,325원, 복장어 29,689원이라고 나옵니다. 어업조합도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도천어업조합이었습니다. 1937년에 면소재지가 속초로 넘어오면서 속초어업조합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일제 강점기 속초항 개발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1929년 3월 양양 속초리에 축항기성회가 조직활동합니다. 1931년 8월 속초항 당국이 인가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36만원입니다. 군민 부담은 5만 4천원입니다. 매일신보(1932년 9월 4일) 자료를 보면 “다년간 지역주민이 열망하던 사업인 속초항 개발은 동해안 유수한 어항이며 피난항으로 양양 속초항 총 공사비 39만원으로 강원도 직영으로 공사 실시를 확정했다. 양양군민도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1932년 11월 6일 속초축항사업 기공식이 개최됩니다. 이때 군민 각 면단위로 동참 기부가 확대되고, 지역 행정관료들도 출선 수범합니다. 당시 강원도 당국은 청초호를 끼고 있어 천혜의 양항(良港) 조건을 갖춘 속초항을 동해안 제2의 나진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했는데, 함북 나진항은 일제가 중국 동북지방을 강점한 후 식민지 약탈의 수요에 따라 건설한 항구가 되겠습니다. 속초항도 이런 나진항의 모델로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속초항은 1차로 만드는데, 자꾸 모래가 쌓이고 그래서 1941년 6월 22일 제2기 축항 기공식을 거행합니다. 이때는 양양철의 반출을 위한 개발로 3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속초항이 생기면서 속초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속초가 도시를 형성한 계기는 속초항 축조입니다. 우선 1933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속초항과 인접한 시장통에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920년대까지 속초리에 있는 시장은 5일장 같은 거였는데 이제 상설시장이 생기고, 그 시장 옆에 도로가 개설된 겁니다. 1935년에는 지금의 청호동 지역에 정어리공장 40개가 들어섭니다. 또한, 속초지역에 전기가 들어오고, 우편소도 만들어서 전신전화로 취급합니다. 1936년에는 대포에 있던 어업조합도 속초항으로 이전하고, 1937년에는 면사무소가 대포에서 속초로 이전하면서 지역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속초의 중심이 대포에서 속초항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1937년 제1기 축항공사가 완료된 이후 속초어업조합에서 속초항에 청어염장탱크와 발동기선 급유탱크, 속초-대포간 사설전화, 폭풍경보신호소 등 어항관련 시설을 확충합니다. 1937년 12월에는 동해북부선 간성 양양구간이 개통되면서 속초항 인근에 속초역이 건립되고, 1938년에 인구증가로 영랑소학교(지금의 영랑초교)가 개교합니다. 이때가 속초의 도시기능이 완성이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9년에 개항기념 운동회를 개최하고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당시 속초항의 풍경을 옛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정어리, 1950~1970년대 명태와 오징어가 이렇게 두 번 수산업의 풍요를 이룹니다. 그 풍요의 현장을 당시 기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23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 동해안 일대는 세계 최고의 정어리 어장이 형성되어 단일 어종으로 세계 1위의 어획고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헬기를 타고 동해바다를 지나다가 못보던 섬이 보여서 가까이 가 보면 섬이 아니라 정어리떼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정어리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뚝 끊겨서 일본이 이 정어리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비행기 기름 등 군수물품을 이 정어리 기름으로 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끊긴거죠. 아무튼 이 정어리 대풍으로 전국에서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공장이 생기면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정어리 기름 공장을 온유비 공장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대자본이 주도하여 대규모 공장을 시설하고 유통을 독점했습니다. 조선인도 제조공장 운영에 함께 뛰어들 정도였는데 당시

이태준의 소설을 보면, 그분도 어업쪽에 투자해서 망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투자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속초에는 미쓰이 그룹이 설립한 종연조선수선의 직영공장을 비롯해 일본 대자본의 온유비 공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포수산조합 관할에만 정어리 기름 공장이 80여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940년대 속초의 지역 유지라면 수산업과 정어리 기름공장으로 재력을 일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수협조합장을 지낸 정주벽이나 속초번영회장으로 속초항 개발에 앞장섰던 강래병, 실업가 강구정, 김준기, 고재동, 정윤화 등이 수산업으로 재력을 일군 분들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정어리 어획과 가공공장에 종사한 속초 주민만도 수천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항민이 들어와서 속초라는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실은 속초항이 개발되고,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속초의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실항민은 50, 60년대에 속초시의 비약적 발전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1950년대 기록을 보겠습니다. 읍세일람이라는 책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전 속초 인구는 1만 1천명이었는데, 1955년 13,699명으로 나옵니다. 농어민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가 20%, 어업인구가 23%인데 농업인구는 원주민이 주로 하고, 월남인은 주로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청호동 거주 피난민의 월남 직전 직업이 70%가 어업종사자였고, 월남 당시 90%가 선박을 이용해서 월남을 했을 정도로 수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선박은 총 723척인데 범선이 211척, 종선(뗏마)이 356척, 발동선이 156척입니다. 후에 발동선이 선박의 주를 이루고 범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읍세일람의 기록을 보면 속초읍이 전국 제2의 어획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강원도의 조그만 마을의 어획고가 전국 제2위라는 기록은 정말 엄청난 기록인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는 1963년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속초가 1963년 속초시 승격 당시 인구가 50,703명으로 증가합니다. 불과 십년만에 두 배 넘는 인구 증가를 보인 겁니다. 어업인구도 30% 정도인데, 주로 영랑, 동명, 중앙, 금호, 청학, 청호, 교동에 밀집되어 속초의 시가지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당시 속초 수산업의 어획량을 보면 3만톤이라고 나오는데, 1961년 우리나라 총 어획고를 보면 41만 2천톤이라고 나옵니다. 그

럼 속초는 전체의 7.2%입니다. 이 조그만 항구의 어획량이 이렇다는걸 보면, 1959년 발행한 <읍세일람>의 전국 제2의 어획량이라는 기록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황을 보면 정부당국은 수산물 어획을 식량 증산 차원에서 목표액을 정해놓고 독려합니다. 또한, 1957년 11월 거진북방 북위 38도 35분 40초로 어로저지선을 복성시키게 되는데 연간 3만 6천여톤의 어획량이 증가합니다. 3만 6천톤이면 국내 총 어획고의 10%를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1959년 다시 축소가 되는데 어로저지선이 확장되자 북에 의한 어민의 피압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는 속초의 수산업이 속초라는 도시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속초항 축조로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업전진기지로 성장하여 도시 형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속초에 정착한 실항민의 70%가 어민출신으로 잘 갖춰진 어항 시설로 쉽게 생업의 터전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950, 60년대에 전국 각지에서 전입인구가 증가하는데, 큰 재주 없이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던 민음이 속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1950년대 명태, 오징어 등 속초의 어획고는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습니다. 인구증가도 늘었습니다. 1926년 도천면 인구가 8천여 명이었는데, 한국전쟁 후 2만여명이 되더니, 1963년 속초시 승격때는 인구가 5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수산업 역사의 현장을 옛날 신문을 뒤져 살펴 보았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오징어가 아주 많이 잡혀서 대풍이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1959년 조선일보를 보면 한겨울인데도 명태는 나지 않고 대신 오징어가 대풍이라 20일만에 50만급이 어획되었으며, 시내 어느 집을 막론하고 빈 공간에는 오징어 건조장 일색이라며 동남아 대외수출도 주목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풍인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1960년 동아일보를 보면 “속초어업조합 소속 18개 부락포구 어민 9천 47명 중 6천 1백 54명이 굶주리고 있어 미역채취 시기까지 당국에서 구호양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959년 어로제한선 남하와 흉어 등으로 동해안 어촌 일대가 심한 공핍에 시달려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산업은 옛부터 바다조황이나 시대상황에 민감한 분야였습니다.

속초의 상권은 어업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끼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1963년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일정한 벌이조차 없는 이곳의 뜨내기 어부들의 근색한 가계를 지탱코자 열 살부터 열너덧살에 이르는 아들, 딸들이 더없는 벌이로 이 오징어 내장 따기는 지금이 한창이다. 살을 찌르는 띠약 벌 아래서 손, 발,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에 검은 국물이 튀고, 땀과 뒤통뻘이 되어 코를 찌르는 냄새와 싸우는 수많은 어린이들 사이엔 육십이 넘는 백발 할머니들 모습도 간간 섞여 있다. 속초의 6만 인구 중 약 7할은 5백척을 헤아리는 어선들이 벌어들이는 고기잡이에 생계를 매달고 있다. 위에는 어업 조합 간부, 선주, 대금업자로부터 아래로는 어부, 뜨내기 어부, 영세 규모의 오징어 건조업자, 그리고 오징어 배따는 아낙네 아이들의 품삯꾼 등 각가지 직업층이 수입과 생활을 달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의 배를 얻어 타고 밤새워 두어 두름 잡으면 한 두름(20마리) 당 아홉 마리를 선주에게 바쳐야 하는 뜨내기 어부들이나 선창시세 45원 짜리를 대여섯 두름 사서 찢고 말려 다음날 57원 시세로 내다파는 건조업자(?) 아낙네들이나 ... 가날픈 살림에 틀림없다.”



지도 어렸을 때 속초수협을 처음 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속초 수협 어판장은 속초사람은 다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1963년의 이 소녀는 지금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요.

1978년의 경향신문을 보면 청호동 쪽 사진인데, 여기서도 수산업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1962년 이후 속초통계연보를 보면, 선박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가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획량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이런걸 볼 때 배도 대형화되고, 기술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 수산업이 예전같지 않다고 하지만, 횃집도 많이 늘고 하는 걸 보면 속초수산업이 속초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속초수협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속초 수협의 역사는 화면과 같고요, 수협건물은 수산업의 상징건물이자 속초산업의 중심지이다. 속초 도시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청호초와 동해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위치다. 다만, 속초수협이 있던 어판장이 속초항 개발할 때부터 계속 같은 곳인지 아니면 초기에는 다른 곳이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1950년대 사진을 보면 같은 공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1930년대 다른 쪽에 큰 어판장 조성 기록이 없는 거 보면, 속초항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 해봅니다.

다음은 사진을 통해 구 속초수협의 풍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속초문화원이 발간한 책자의 사진인데, 사진은 고 최구현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사진보면 특이점은 집집 마다 오징어를 말려서 이곳 어판장에 모여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마른 오징어 시장이 수협 어판장에 형성된 거죠.

어업활동과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월북어부를 뜨겁게 환영하던 공간이죠. 동해안에서는 1800명 정도가 월북되었는데, 그런 공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1990년 3월 9일 전국 최초로 어민상을 지낸 고 유정충 선장의 영결식이 열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원들 모두를 구출하고 자신은 배와 같이 수장된 분이죠. 작년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다시 한번 조명을 받기도 했죠.

속초문화원의 '속초문화' 표지를 보면, 고 김광수 화백이 그린 수협건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그림인데, 5호와 10호의 표지에 사용했던군요.

구속초수협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아침에 보았는데, 건물이 많이 낡았어요. 주인이 없으면 건물이 빨리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판장은 아직 그물작업이 좀 있고요.

냉동창고 밑에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현재 수협철거냐 보존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과연 근대산업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위험해 보존이 가능한가, 보존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경우 보존했을 때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시내 중심에 있던 부대가 옮겨가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하다가 최근 땅을 매각해서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알짜배기 땅을 속초시가 어디 매각하는건 아닐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나중에 건물 다 철거하고 나서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할 것 같습니다. 또, 속초 도심과의 연관성, 아바이마을과 갯배, 속초관광수산시장 그 중심에 구속초수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상권이 잘 되는데, 이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청호동이나 갯배쪽은 실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속초는 공간의 상징성을 갖고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관광객이 거쳐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속초의 이득이 아닌가. 이게 주차장보다는 낫지 않은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도심 관광의 볼거리가 없는데 하나의 거점 역할이 필요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탐방객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걸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3월까지 수립되는 관광종합개발계획에 구속초수협도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속초수협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속초수산업박물관으로 제안합니다. 수산생태보다는 향토사, 풍속을 보여주는 인문학적 공간으로 속초항과 관련한 사진, 그림 수집 전시, 공연 등이 펼쳐지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수산업 박물관에는 고 최구현 갤러리와 고 유정충 선장 기념관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구현 사진가의 경우 제주도의 김영갑 사진가와 비교할 때 제가 보기에는 더 나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생활이나 옛 속초의 모습 사진은 정말 훌륭합니다. 또한, 유정충 선장을 속초의 대표어민으로 내세워 추모공간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수산인으로 선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2주제>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례와 시사점 발표요지

발표자 : 황순주(경기착작센터 기획사업부 부장)

제가 경기만 에코뮤지엄을 하면서 산 하나 물 하나 집 하나 길 하나가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처럼 가지 있게 지역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엄경선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곳입니다. 서해 쪽 경기도 정체성과 달리 동해의 연안도시 정체성을 잘 살린다면 지금 하는 고민이 잘 해결될 듯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기만 에코뮤지엄 이름 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천 삼백오십만인데, 31개 시군, 연안도시 5개, 접경도시 5개 정도, 광역시로 나가려는 수원이나 부천시도 있고, 평택이나 안산같은 농촌도시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면 다들 31개의 정체성이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도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바다를 다시 보자, 그래야 도시정체성이 살아나고,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이 살아난다, 그럴 때 도시가 문화적 활력이 생긴다고 이야기 합니다.

에코뮤지엄은 에코+뮤지엄으로 읽어야 합니다. 에코는 환경, 현장, 소외됨, 소수자, 여성성 이런 가치를 담는 개념이고, 뮤지엄은 박물관입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민족의 통합과 국가의 구심 역할, 기호문화권의 중심, 실학의 태동, 통합과 포용, 어울림과 아우름의 상징으로 정체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이 정주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이나 도로나 이런 기획이 모두 서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설악산이나 회, 실향민 등등이 있는데 첫번째 떠오르는 이미

지가 없죠?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수원화성, 남한산성, DMZ, 땅굴 등이 나옵니다. 연안이 없어요. 경기도가 연안도시인데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속초도 동해안의 수산업으로 발전한 도시인데 바다가 없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경기도의 정체성은 연안도시 정체성 확립을 통해 연안도시 시민의 자존감과 긍지를 함양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경기만은 황해남도 웅진반도와 남한 충청남도 태안반도 사이에 있는 반원형의 만으로 너비 약 100km, 해안선 길이 약 528km, 만내에 크고 작은 200여개의 섬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역사문화적 가치와 해양생태의 보고, 국가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요충지였죠.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어요. 광개토대왕이 한성백제 치려고 이곳으로 들어왔고, 가까이는 인천상륙작전이 있었죠.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죠. 중국이나 일본도 이곳 경기만으로 들어왔죠. 청일전쟁 당시 풍도해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일본은 승리의 역사이고 중국은 패전의 역사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런 역사에서 이야기를 만들 줄 몰라서 그래요. 프랑스의 혁명, 속초의 실향민 모두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런건 다 옛날 거고 지저분하니까 건물 없애고 다 정비하자 이런 면 되는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이건 속초와도 연관이 된 사건인데요. 이 때 월미도가 박살이 났죠. 이건 승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민초의 고충이나 애환이 나이트처럼 바닷가에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 하면서 월미도의 주민이 많이 돌아가시거나 쫓겨나신 분들도 많습시다.

이렇게 경기만은 역사적 사건도 많은데, 천혜의 자원도 많습니다. 갯벌이 있기 때문이죠. 경기도와 인천의 갯벌이 남한 갯벌의 35%를 차지합니다. 갯벌이 많다는 사

실은 생태환경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고, 그곳의 주민이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봄가을이면 철새가 장관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중국사람들의 낙조마케팅이 유명한데 중국에는 서해가 없어서 낙조를 볼 곳이 없기 때문에 서해 낙조 마케팅도 한다고 합니다. 포구도 있고, 어촌계도 있죠. 주민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포구만 있는 곳이 아니라, 풍도, 국화도, 입파도 등의 아름다운 섬도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보는지 보도록 하죠. 속초는 그래도 바다죠. 그런데 서해안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 해양쓰레기입니다. 동해에는 260만톤, 서해는 462만톤이라고 합니다. 거의 두배죠. 바다쓰레기만 버리는게 아니라 자기 생명도 버립니다. 자살도 많이 하죠. 시체도 많이 나오구요. 바다가 쓰레기나 목숨을 버리는 곳 정도로 치부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안선의 단순화도 문제죠.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땅이 필요하니까 해안선이 단순화되고 있죠. 시화호 방조제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굴곡이 사라지고 직선화가 됩니다. 지난 백년 사이에 서해안 해안선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한국이 연안국가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화호 방조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기존 공동체를 없애고 새로운 공동체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지 서로 물어봐야 합니다. 왜 새로 만드느냐 이거죠.

경기만은 아픈 역사도 있어요. 선감학원 이야기인데, 형제복지원이 청장년이었다면 이곳은 유청소년의 수용소였어요.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에 세워져 1982년까지 7천명이 수용되었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 7백명 정도인데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이런 공간이 가능한건 섬을 고립되고 밀폐된 공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봅니다. 화성시 매항리도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사격장이었죠. 오키나와 비행기가 폭격연습을 하러 이곳으로 옵니다. 섬이 원래 컸는데 폭격때문에 작아졌어요. 경기만이 이런 곳이에요. 시화호, 매항리 등의 역사적 사건때문에 아픈 상처를 간직한 곳이죠. 저런 곳을 어떻게 하지. 국회의원 돈 받아서 새로 다 밀어버려야 하나. 저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나 이런 고민이 있는거죠.

태평양 전쟁, 한국전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매항리입니다. 이곳을 평화생태공원으로 바꾸자는 논의

가 많습니다. 대추리도 마찬가지죠.

걷기 열풍이 일자 길을 만드는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주는 영감, 도보여행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길을 지날 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스며든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공공이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것을 발견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은 주민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코뮤지엄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가치를 주민이 발견하고, 주민이 활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공이 지원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물리적 정비에서 따뜻한 재생으로 가야 합니다. 기존의 도시정비가 주민이 원하지 않는 물리적 정비였다면, 새로운 도시재생은 주민이 선택하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운동주 문학관도 아주 조그만 오브제만 있으면 이야기를 엮어내는 사례입니다. 매항리의 경우 60년의 세월을 다 봐왔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컬렉션이에요. 포탄도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만의 역사를 보여주는 컬렉션인 셈이죠. 이렇게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역사와 문화로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속초시립박물관에 가보았는데, 기존의 속초역을 없애고 박물관에 새로 지어놨더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속초역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없어져 버린거죠. 너무 아까운 컬렉션이에요.

에코뮤지엄은 현지에서 누구를 약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 두는 겁니다. 그 관리를 학예사가 하지 않고 주민이 합니다. 일본은 NPO라고 해서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행정에 돈 내라고 하죠. 속초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공동체가 복원되는 것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자, 아픈 과거도 덮지 말고 자원으로 활용하자. 이게 에코뮤지엄입니다. 역사 복원하자 이거죠. 속초는 피난길 루트 복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꾸면 이게 문화재생이 되고 관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풍스러운걸 찾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죠.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되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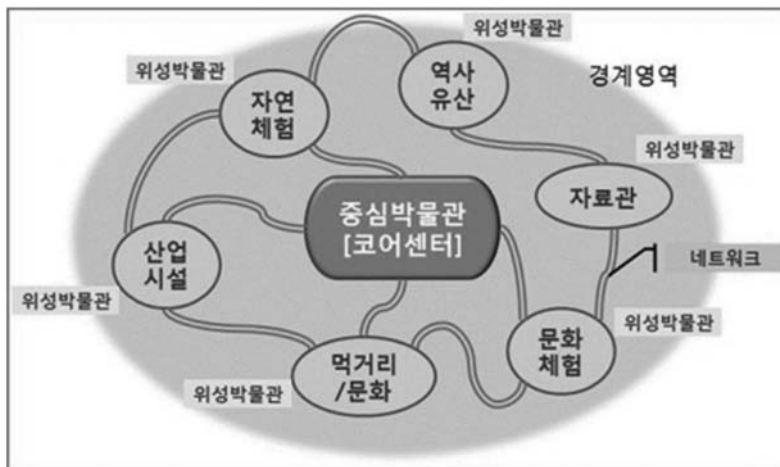
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속초를 에코뮤지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이 중심박물관이 됩니다. 수산업과 관련된 유적, 역사 유산, 설악산, 자료관, 문화체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주민이 관리하도록 하고 예술가들이 표현하게 만듭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이런 컬렉션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이 속에서 역량강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로서의 박물관이 아니라 방식을 이야기하는 방법인 셈이죠. 과정중심이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무엇을 하는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문적으로 코딩해내고 조직화 해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서 에코뮤지엄은 꼭 해야할 가치입니다.

에코뮤지엄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에코뮤지엄은 5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현지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경계영역, 본부기능을 하는 코어센터인데 시흥시는 기억창고를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었고, 대부분은 구 면사무소를 방문자 센터로 만들 예정입니다. 새틀라이트(위성박물관)도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보존되어야 할 지역 유산 컬렉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길도 필요합니다. 에코뮤지엄은 야외박물관이고, 박물관의 대상인 각각의 새틀라이트가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보존되는 지역유산을 견학하기 위한 길이 필요하죠. 이를 ‘디스커버리 트레일, 발견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미래는 연안 생태계와 공동체가 공존 공생하는 아름다운 경기만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 유산, 문화유산, 산업유산을 발굴하고, 지역별 생태, 역사, 문화자원 등에 예술프로젝트를 가미하여 명소화할 계획입니다. 아트투어리즘, 에코투어리즘, 역사문화유산 다크투어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컬렉션을 만들어 문화재생 및 관광자원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례길 조성, 투어프로그램 운영, 경기만 포럼 등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파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만이 창조적인 바다, 창조적인 지역,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로 백년쯤 후에 경기만 르네상스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게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붕없는, 살아있는 박물관



<제3주제> 근대문화유산과 구 속초수협 발표요지

발표자 : 김재홍(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대표)

근대문화유산은 근대기를 살아가던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예술활동 등을 하는 가운데 형성된 문화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대의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광의로는 18세기 조선 영조 이후, 협의로는 1876년 개항 이후를 근대 시기의 출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은 지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 이유는 당대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된 중요한 유산이자 당시의 생생한 물질문화를 잘 대변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용하여 산업유산관광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직접적인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어 활용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우선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근대기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가 없이 멸실, 훼손되어가는 위기에 처해있는데, 종래의 지정제도만으로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발적 보존 의지를 간간으로 유연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의 정의를 문화재보호법으로 보면,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50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능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여 구박물관이 1963년에 제작되었고, 의령 구 중앙정보부 강당이 1972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우리 지역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되면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징수유예, 1가구 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금감면 및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건폐율과 용적율에 관한 특례와 문화재 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생 문화재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몇 가지 규제도 있는데, 문화재 외관 1/4 이상을 변경하거나 문화재 이전 및 철거를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부는 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차이를 보면, 지정문화재는 원형에 충실해야 하고, 등록문화재는 활용에 방점이 있습니다. 즉, 지정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해야 하고 등록문화재는 외관만 보존하면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의 경우 등록문화재는 자율 신고제여서 허가제 위주의 지정문화재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제도는 지정문화재의 기준에 따라 등록문화재도 많이 받습니다. 즉, 규제는 적고 혜택은 많은 제도입니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근현대기 생성된 문화적 산물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이 건조물을 비롯해, 시설물, 예술작품, 생활문화유산, 역사인물 등 다양하다는 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굉장히 다각적이라는 점이 좋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등록문화재는 관광자원화하여 지역사회의 정체성 및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가 문화유산활용의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활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활용은 민족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과거와 소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문화 다양성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유산의 활용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도동리 일본식 가옥은 1910년대 일본인의 주택이었습니다. 일본식 가옥을 수리하는 일이어서 처음에는 지역 주민이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울릉 역사문화체험센터로 만들어 활용한 후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서 그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구 보성여관의 경우 소설 태백산맥의 공간입니다. 지금은 작가 레지던스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 충청지원의 경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로 개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곁은 예전 그대로인데 내용이 바뀐 경우죠. 부산의 임시수도 청사도 리모델링 후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대구사범대학교 본관 및 강당,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후 평화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안 증도 석조소금창고의 경우 그냥 건물을 허물면 가치가 없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소금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문체부나 행자부의 지원금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줄을 서고 예약할 정도로 성황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7시간이 걸려도 찾아갑니다.

구 곡성역사는 레일바이크나 기차카페 등의 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상권 부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 경기고등학교도 내부를 정독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 군산 근대산업유산 벨트화 사업의 건물이 구 속초수협 건물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각 건물을 벨트화 하였고,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지원금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구 상수시설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후 지역민이 함께 공부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생생문화재 체험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속초수협은 아직도 배가 정착해 있어서인지 외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진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벽상태는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내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일부 보강만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역민의 시선이 아니라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면, 구 수협건물은 굉장히 매력적인 건물입니다. 특히, 앞서 엄경선 선생님이 하신 말씀만 놓고 보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수만가지 이야기가 깃들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기억의 공유인데요,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사라지면 그 기억도 사라지는 일이 되겠지요.

이러한 구 속초수협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였지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풍납문 뒤쪽의 한옥마을은 거의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자 순식간에 최고의 관광공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 집값의 2.5배가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유산 보존의 경제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자 경제적 가치가 나온 경량화된 수치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는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를 볼 때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모두를 충분히 고려해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악산 신흥사에 갔는데, 예전 모텔이 다 문을 닫았어요. 세계적인 관광흐름을 보면 단순히 자연경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문화도 보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설악산은 그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숙박문화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에서 배워야 합니다.

도노반 립케마는 역사보존의 경제학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보존이 다양한 문화정책성을 가진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도심지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창출도 많고, 성장 가능한 상업지구를 창출해내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을 말했는데,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치화 시켜서 증명해 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역사건축물 재활용의 가치는 신축했을 때 보다 투자 대비 경쟁력이 있고, 기대수명은 신축건물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고, 새로운 용도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도노반 립케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건물을 해체하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단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속초수협을 보존의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일단, '근대 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등록문화재 등 록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지역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전략 아래 장기 로드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복합된 스토리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천에 가면 삼강 주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가기도 멀고 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강 주막 하나를 문화재로 등 록한 순간 지금은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 상황에 이르렀 습니다. 주변에 순대국밥집도 늘면서 주변 인프라를 많 이 변화시켰습니다. 삼강 주막 하나가 세 강이 만나는 곳

이어서 주막이 있었는데, 그 정체성을 바로 보여주는 거점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속초의 아바 이마을은 그나마 갯배때문에 주민 삶의 체험을 하는 특 이한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여기에 구 속초수협이 근대 문화재로서 새롭게 활용된다면 도심지 관광의 거점역 할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04. 문화유산 보존의 경제학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문화유산 관광시장의 성장



수요자 욕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획

배목수 전용원 구술사





배목수 전용원 구술사

배목수 전용원 구술사

1. 속초시 현황

속초는 동해안 북단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북한에서 월남한 실항민이 대거 유입되며 항구가 발달되었다. 오래전부터 큰 어항으로 이름이 난 대포항을 비롯하여 일제시대 때 속초항과 동명항이 개발되었다. 속초는 이러한 어항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시민과 함께 영동 북부지방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25년 『면세일반』 자료에 의하면 어선 100척에 어업종사자는 29%였으며 명태와 열갱이가 주어종으로 정어리, 고등어, 갈치, 미역, 상어, 청어 등도 많이 잡혔다는 기록이 있다. 1931년에는 정어리 기름을 짜는 공장이 생길 정도로 정어리가 항구에 쌓였으나 70년대 도루묵이, 80년대에 노가리와 명태가 감소하는 것을 보았듯이 어획고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37년경에는 맑은 청초호에서 굴양식을 했으며 1944년에는 콩치, 고등어통조림 공장이 있었고 물고기를 원료로 한 질소, 인산이 풍부한 비료와 여러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물고기 기름 등을 생산하였다.

1958년 어선의 수는 456척, 1962년 811척, 1972년 851척, 1982년 765척으로 감소했다가 1984년에 885척으로 다시 증가, 1989년 721척으로 다시 줄어들어 1992년 623척, 1999년에는 604척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어선은 대형화, 고성능화가 계속되고 있다.

2. 속초시 항구

가. 대포항

속초 역사의 시작과 함께 발달된 항구로 연안어업, 정치망어업 등이 발달하였다. 지금은 어항의 역할보다 관광어항으로 개발되어 관광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동해안의 목선」(문화재청 발간)에 의하면 대포항의 선박은 대부분 정치망 어선으로 목선의 경우 “NO1. 동일”, “만복”호가 목선으로 확인되었다.

나. 속초항

속초항은 속초의 근대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항구이다. 속초항이 개발되며 속초는 수산업 중심도시로 호황을 누렸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석호로 이루어진 천혜의 항구이며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어민의 생활터전이었다. 2014년까지 속초수협이 자리잡으며 수산물 위탁판매 및 유통의 출발지이자 어항과 기항의 역할뿐 아니라 과거에는 양양철광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수출하면서 지금까지 발달하고 있다.

다. 동명항

예전에는 현재 해양경찰서가 있는 곳과 영금정 진입로까지 바다였으며 속초 연안 유일의 해저 빨이 형성되어 있어 조개의 대량 생산지였으며 영랑동, 동명동, 어민들의 작은 포구였으나 현재는 대포항에 버금가는 속초의 명소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또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과 통일의 교두보 역할, 그리고 다목적 국제관광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그 일대를 매립하여 거대한 물양장을 건설,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롭도록 하였다.

3. 배목수 전용원

속초에서 배목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배목수일을 한 분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배 제조 과정의 전반을 책임진 도목수는 몇분 남아 있지 않았다. 단순히 과거의 경력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배목수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구술해야 했기에 의사소통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외하였다.

다행히 속초의 전용원씨는 1952년생으로 많은 나이는 아니었으나 도목수 아버님의 작업현장을 어릴 때부터 보며 도목수일을 배웠기에 속초지역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구술을 채록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또한, 현재도 아야진 등 고성으로 목선 수리일을 하고 있으며, FRP로 전향한 도목수에 비해 목선제작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고 계신 분이어서 구술자로 선정하였다.

전용원씨의 부친 전명종씨는 함경남도 흥남 출신으로 일제 시대 당시 1급 조선기술자격증을 보유하며 목선일을 시작했다. 한국전쟁 당시 월남하여 거제에 자리잡은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친인 김홍조옹의 배를 봐주며 남한에 적응하였다. 이후 부산으로 옮겨 영도에 머물렀으나 속초에 정착한 친구의 권유로 속초에 오게 된다. 그는 청호동 함경조선소에 입사하고 집도 근처에 장만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다.

전용원씨는 어린 시절부터 조선소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부친은 항상 점심시간이 늦었다. 어린 전용원은 오후 두시쯤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가 마련해주는 도시락을 들고 조선소에 가서 아버지 어깨너머 목수일을 배웠다. 때로는 공구를 챙겨주고, 시다 역할도 하게 되었다.

부친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단한 목수로 이름이 높았다. 1967년에는 강원도지사 표창, 1975년에는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60년대 속초 조선업계의 화제는 ‘1967년 대일청구권 선박건조’와 ‘1968년 6.8 해일’ 피해선박 건조사업이었다. 대일청구권으로 건조한 목선은 20톤급 선박 17척이었다. 일본은 현금과 함께 대물로 변상했는데, 그 대물 중에 일본산 삼나무 원목이 있었다. 원래 우리나라 목선은 소나무를 많이 썼지만, 이 사업 이후 일본의 삼나무를 부산에서 수입하여 쓰게 된다.

6.8 해일 피해선박 건조사업은 속초 조선업계 최고의 활황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건조단이 구성되어 2백 8척의 어선이 동시에 건조되었다. 당시 해상노조에 가입된 속초 지역의 배목수가 2백 육십명이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건축목수를 비롯해 전국의 목수가 다 몰려와 복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강제로 투입되다 보니 날림으로 지은 배도 많았다고 한다.

전용원씨는 1970년대 초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대에 가기 전에 재미삼아 모형 목선 한척을 만들었다. 목선 제작과정과 똑같이 1/20으로 축소한 이 배는 주변에 큰 화제가 되었다. 그때 수협 감사로 계신 이웃어른이 어민 해난사고 교육에 쓴다고 모형배를 가져갔는데 그 이후로 분실되었다. 수협에 이어 동해출장소에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80년대 초에 들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전용원씨가 본격적으로 목선을 제작한 것은 군대를 제대한 후부터이다. 군제대 후 집에서 놓고 있는데 문어잡이 전마선을 한 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전마선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혼자서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어깨너머 배운 실력이기에 많이 부족했다. 아버지와 함께 배를 만든 것도 이 시기였다. 80년대초까지는 아버지에게 기대며 목선을 제작했지만 80년대 초부터는 조선소를 나와 자영업에 하기 시작했다. 직접 선주에게 수주를 받아서 조선소에는 사용료만 내는 형식이었다. 목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어업량이 딸리고 FRP가 활성화되면서 목선사업은 내리막을 걸었다. 목선은 무게 때문에 안정성은 있지만, 작업 기간이 길고 빠르지 못했다. 세상은 빨리 변해 갔고, 목선은 점차 사라져 갔다.

결국 1997년 그의 마지막 목선 '진흥호'를 끝으로 더 이상 목선은 제작하지 못했다. 그는 현재 고성 인근의 항구에서 목선 수리나 FRP 제작을 위한 목선 뼈대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 조선 최고의 배목수라고 생각하는 부친의 명예와 40여년 목수일을 하며 한길을 걸어간 자존심은 다른 배 제작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6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볼 수 있었던 창경배를 다시 제작하고 싶어한다. 물론 당장에 써먹을 수는 없다. 해안가 50m 정도 안에서 미역이나 해삼 등을 따던 창경배는 이제 필요없는 과거의 유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초시립박물관이나 구 수협 인근에서 목선 제작의 과정을 보여주고, 창경이라고 하는 낯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있다. 편하고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 인간의 숨결을 불어넣는 목선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마지막을 떠나보낼 수 없는 바람 때문이다.



4. 목선 제작

목선 제작과정은 선주와의 협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선주가 어떤 용도로 몇톤 몇자짜리로 주문하면 전체 금액이나 왔다. 다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임과 목수가 주장하는 노임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1987년의 경우 25톤 한척이 2천3백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선주와의 가격 협상이 끝나면 합판에 도면을 그린 후 부산으로 내려가 삼나무를 켜다. 내부쪽은 소나무를 쓰기 때문에 양양이나 속초의 제재소에서 구입했다. 그 후 제일 먼저 용골을 도면보고 만든다. 용골의 모양은 서해안과 동해안 배의 특징이 된다.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많아서 뺄에 앉아도 기울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용골이 넓은 편이다. 그러나 동해안 목선은 용골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같은 동해안이라도 배의 모양이 조금은 달랐다. 구룡포나 후포의 유자망 배들은 갑판이 낮지만 명태 조업을 하는 속초 배들은 갑판이 높다. 용골 등의 뼈대 부분은 도목수가 도면에 의해 먹줄로 그려주면 다른 목수들이 그대로 자른 후에 각종 공구를 이용해 연결했다. 선수와 선미를 꺾고 갑판을 덮은 후 관물대 등 내부를 붙이면 목선 한척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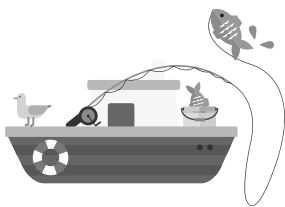
배가 완성되면 진수식을 갖는다. 진수식을 하게 되면 배에 깃발을 거는데 이 깃발을 보고 선주의 인심을 알 수 있

었다고 한다. 일종의 화환같은 의미이다. 또한, 성주함을 선장의 침대머리에 만들어준다.

목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이다.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 삼나무 껍질과 마끼다라는 풀로 메웠는데 그것을 밥을 친다고 말한다. 선미 쪽 휘어지는 부분은 양젓물을 넣고 나무를 푹 삶아 휘게하여 붙이는 작업을 하는 워낙 정교한 작업이어서 전날 아내와의 잠자리도 멀리할 정도였다고 한다. 선미 공정이 도목수의 예술적 성취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날카롭게 각진 모양을 좋아하는 목수도 있고, 부드러운 유선형을 좋아하는 목수도 있다. 전용원씨는 부드러운 유선형이 자신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공구의 경우 자귀나 ‘ㄱ’자, 망치 등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을 정도로 오래된 것들이다. 이제 배목수가 사라지게 되면 그들 공구 역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다. 아직 배목수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못이나 삼나무 껍질을 창고에 켜켜이 쌓아두고 있다. 아버님때부터 쓰던 합판의 도면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대패의 경우 70년대 말이나 되어야 전기대패를 사용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사용법도 몰랐고 비쌌다. 손대패는 사용도에 따라 다르다. 특히, 조타실의 ‘키’를 만들기 위한 대패가 독특했다. 지금은 조타실의 키를 철로 만들기 때문에 필요없는 대패가 되어 버렸다.

전용원씨는 질문자를 위해 삼나무 껍질로 밥을 먹이는 방법과 끝을 이용해 못 들어가는 자리 내는 법 등의 간단한 시연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연은 오랜 세월 목선을 만들며 이어져 온 기술이었다. 그는 아직도 목선 제작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님과 함께 피난을 내려와 자신을 먹여살린 기술이자 자부심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설처럼 지나가 버린
배 만드는 목수의 이야기

직접 나무와 부대끼며 흘러온
40여 년의 시간.

손 끝으로 마주하며 만들어 낸
목선들은 동해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고기를 잡았고,
배목수의 자부심도 높아졌다.

- 구술자료

- 일시 : 2016. 5. 22 / 5. 29
- 장소 : 전용원 자택
- 조사자 : 김인섭(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속초 정착과 부친 전명종

조사자 : 선생님 성함과 태어나신 곳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용원 : 1952년 경남 거제도에서 태어났어요.

조사자 : 속초에서 가장 늦게까지 배목수 일을 하셨고,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만나뵙기를 청했습니다. 배목수는 언제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전용원 : 그러자면 아버님 이야기부터 해야 되요. 아버님이 아주 이름난 배목수였는데, 아버님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조사자 : 그럼 아버님 이야기부터 해 주세요

전용원 : 아버지가 함경도 흥남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전쟁나기 전 일제 때부터 흥남에서 배목수 일을 하셨어요. 젊을 때 만주인가 어디 잠시 다녀오신 후 일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젊을 때부터 했겠죠.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왜정 때 1급 조선기술자격증을 갖고 일을 했으니까.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조선소를 낼려면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갖고 계셔서 많은 도움을 줬죠.

조사자 : 그럼, 전쟁 때문에 피난 내려오셨네요.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용원 : 우리도 일사 후퇴 때 내려왔어요. 그때 가족들과 함께 거제도로 피난 내려왔죠. 그때 이야기 하면, 피난 나올 때 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못 모시고 나올 뻔 했어요. 배를 탔는데 그날 따라 물이 간만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게 LSD 배인데 그게 빠져나오질 못하는거야. 부두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집으로 갔는데, 그때 일꾼들이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모시고 배에 탔어요. 그때 간만의 차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놔두고 갔겠죠.

조사자 :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다른 가족분도 함

께 나왔나요?

전용원 : 제 형제가 11남매예요. 그때 북에서 자란 형님과 누님이 나왔죠. 이제 6남매가 남았어요. 바로 위 형님이랑 바로 밑 동생이 모두 24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남한으로 피난와서 도착한 곳이 거제도예요. 그때 일을 많이 도와줬던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건착선이라고 멀치 선망도 하고, 오징어 선망도 해서 배를 여러 척 갖고 있는데, 북에서 급하게 피난 내려와서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었죠. 그나마 우리는 아버지가 배 만들고, 수리할 줄도 알아서 다행이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기술이 뛰어나시니까, 이북에서 만들었던 배 기술을 바로 사용했죠.

조사자 : 거기서는 몇 년 정도 계셨어요?

전용원 : 피난 나와서 4년 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엔 부산에 정착했는데 당감동에 피난민이 많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죠. 일을 한 곳은 당감동은 아니고 영도였어요. 영도까지 걸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조사자 : 부산에서 몇 년 정도 사셨나요?

전용원 : 2살 때 거제에서 나오고, 5살 때 부산에서 속초로 왔어요.

조사자 : 그때 속초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전용원 :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보는 신문이 다르고, 이기붕 신문이 다르다 할 정도로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박수현씨라고 고향분이 계셨는데, 속초 청호초등학교 육성회장 하셨어요. 아마 아버지하고 같이 피난 내려오신 분 같아요. 그분 덕에 학교를 저도 일찍 들어갔는데. 그 분이 저희 아버님께 아 이 사람이 언제 전쟁나서 통일 될지 모르는데, 부산은 너무 먼 곳 아니냐고 하며 계속 속초에 올라오도록 말씀하셨어요. 속초가 옛날에는 이북이었잖아요. 아마 그때 정착한 사람은 다 우리처럼 그렇게 속초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속초에 올라와서 청호동에 정착했죠.

조사자 : 청호동 어디쯤 사셨나요?

전용원 : 옛날 동사무소 자리가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가 아니라 조금 더 밑에 거기 함경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 바로 앞에 살았어요. 아버님이 배 만드는 일을 하니까, 바로 그 앞에 살았지. 지금 이 집은 내가 군제대하고 이리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내가 살고 있지.

조사자 : 처음 속초에 정착했을 때 기술 살려서 배 만드는 일을 하셨겠네요.

전용원 : 가진 도둑질이 그것 뿐이니까, 그걸 했죠. 처음에 오셔서 배를 진수하는데, 머리를 쓰신 게 옛날에는 크레인이 없었잖아요. 배 내릴 때, 그러니까 아버님이 드럼통을 3개 연결해서 바닷가에 떨어뜨서 위에서 줄을 감아서 사람들이 하나씩 돌려서 드럼통을 당기면 배가 움직여서 갖고 내리게했죠. 그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이북에선지, 거제에선지 모르겠지만 금방 그렇게 레일을 깔아 준거예요. 그러면서 실력도 인정받고 자리를 잡았어요.

50~60년대 속초지역 현황

조사자 : (사진 1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몇 년도 사진인가요?

전용원 : 이 배가 속초와서 아버님이 만든 사진인데, 대략 1956년이나 57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조사자 : 그럼 속초와서 처음 만든 배 사진인가요.

전용원 : 아니예요. 그건, 삼랑호가 처음 만든 배인데, 그 사진도 있었는데, 누가 빌려가고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사진이

조사자 : 덕양호는 뭘 잡는 배였죠.

전용원 : 그때는 명태나 멸치 이런 걸 잡는 배였어요.

조사자 : 기념 사진 안에 있는 분들이 아버님과 일을 하신 분들인가요?

전용원 : 경상도 분도 계시고, 경상도에서 만나서 아시는 분이 오셔서 배도 같이 만들고, 속초에 계신 분도 계시고, 노석철씨라고 하는 분도 있고. 최형표라는 분은 속초 중학교 수학선생이신데 목수도 함께 하셨어요. 이북에서 나온 분인데, 손재주가 많으셔서 학교 선생님이신데도 이렇게 목수 일을 같이 하셨어요.

조사자 : 사진 속 장소는 어디 인가요?

전용원 : 함경조선소예요. 아까 말했듯이 맨 처음 정착한 조선소인데 다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일을 한 곳이지요



사진 1
1957년, 덕양호 진수식 전 기념사진. 전용원의 부친 전명종씨가 함경조선소에서 제작하였다. 부친은 윗줄 왼쪽에서 두번째

조사자 : (사진 속 배 위 깃발을 가리키며) 이 깃발은 뭘죠?

전용원 : 배 내릴 때 보면 친척이나 친구들이 만선하라고, 고기 많이 하라고 깃발을 하나씩 걸어줘요. 이게 뭐냐면 지금 화한처럼, 그걸 보고는 아저 사람이 잘살았구나 못살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조사자 : 그럼 옛날 진수식 사진이군요

전용원 : 진수식이지. 그때 당시에 배 내리면 그 사람 인심을 알 수 있는거지.

조사자 : 깃발 하나가 한 사람인가요? 그 분들이 직접 달아주나요?

전용원 : 직접 달지는 않고, 선주나 우리에게 갖다 주면 다는건 우리가 알아서 달아줘야지. 이 깃발 보면, 사진에는 잘 안보이는데, 이게 광목을 선주가 띄웁니다. 깃발과 깃발 사이에 길게 늘어뜨려서 광목을 두필 정도, 돈 있는 선주는 조금 더 길게. 그걸 앞에서 뒤에까지, 배 선미까지 물에 닿게. 그리고 진수식 끝나면 그걸 목수에게 줘요. 그럼 목수는 그걸로 웃도 해입고 그랬죠.

조사자 : 60년대 당시 속초에 조선소가 몇 개나 있었나요?

전용원 : 많았어요. 청호동에, 원래 사람이 없던 곳이었는데 우리 실항민이 정착하면서 함경조선소, 부산조선소가 있었고, 시내쪽 속초항에 칠성조선소 이건 지금도 있죠. 그리고 강원조선소, 제일조선소, 공용조선소가 있고, 대포쪽에는 대포조선소가 모래사장 있는 쪽에 하나 있었고, 동명동에도 두 군데 있었어요. 흥대조선소 등 2개가 있었어요. 조선소 초창기만해도 목선 만들 때 산에서 큰 송림나무를 잘라다 가져와요. 우리 송림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벌목해서 통크게 잘라오는데 그때 GMC 그 차가 있어야 해요. 그 차를 지금도 못없애는게 그 차가 바퀴가 다 돌아가요. 그래서 나무를 사람힘으로 못할 때는 앞발통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감아지고 힘을 줘서 나무를 갖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 그 차를 폐차를 못시키고 있었지요.

조사자 : 60년대에 조선소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만큼 일감이 많았다는 의미겠죠.

전용원 : 지금은 고기가 안나는데, 그때는 널리게 고기였으니까 속초 온 사람들은 다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속초에 한꺼번에 가장 많은 배를 짓게

된 것은 1967년경 대일청구권 선박건조였어요. 그때 정말 많은 배를 지었죠. 그때만해도 동해안 도로가 엉망이었어요. 삼척에서 속초로 오는 길이 꾸불꾸불해서 버스도 다니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부산에서 나무 싣고 오는건 꿈도 못꿨어요. 그래서 전부다 화물선으로 들어와서 전마선에 실어서 조선소로 올리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돈을 받아서 우리 속초도 선박을 건조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함경조선소에서 일하다 영동조선소로 왔을 때인데, 한꺼번에 많이 건조했죠.

조사자 : 몇 척이나 건조했어요?

전용원 : 20톤급 17척이라고 들었어요. 한꺼번에 17척하는건 정말 큰일이었죠.

조사자 : 그럼 목수들도 많이 필요했겠네요.

전용원 : 많이 왔죠. 경상도에서도 오고.

조사자 : 그런데 왜 속초에서 했어요.

전용원 : 거진, 속초, 양양 이쪽이 명태도 많이 나고 멸치도 많이 나서 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일청구권 가지고 배를 지어줬죠. 그런데 개들이 돈으로도 좇지만, 목재를 대주기도 했어요. 현물로도 줬어요.

조사자 : 그 목재가 부산에서 화물선으로 들어왔다는 거네요.

전용원 : 일본에서 목재가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화물선으로 속초 앞바다까지 와서 한거죠. 그 나무가 삼나무라고 일본 나무가 들어왔어요. 우리도 이때부터 삼나무를 지금까지 썼어요. 우리 소나무는 함부로 쓰면 안되고 갖고 오기도 힘들니까 부산에서 삼나무를 갖다 썼죠.

조사자 : 그 당시 속초에 예전에 배목수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전용원 : 6.8 해일이 우리 속초에 있었잖아요. 그때 어선들이 많이 파손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건조단이 구성되었어요. 그때 아주 배를 많이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다보니 전국의 망치

질 할 줄 아는 목수는 다 왔어요. 그 당시 속초 해상노조에 가입한 목수만 2백 육십명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목수가 모자라니까, 박정희 대통령 건조단 구성 때 건축목수도 다 그때 일하러 왔어요. 그런데 건축목수는 좀 우리하고 안 맞았어요. 그게 건축이랑 배목수는 완전히 다르거든. 배목수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건축목수는 배를 못지어요. 그러니 배목수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속초 가서 배목수 일을 하라고 강제로 투입되니까 이건 완전 날림으로 만든 배도 많았어요. 건축목수는 건축목수대로 일이 힘들고 맞지 않으니까 밤에 몰래 도망가기도 했고. 그때가 아마 2백 8척의 어선이 그때 다 건조되었어.

조사자 : 그 많은 선박이 한꺼번에 건조되었어요?

전용원 : 한꺼번에 했죠. 대통령 명령이니까. 지금 해수피아 쪽 청초호변이 작업장이었는데 대단했어요. 전국에서 망치질 할 줄 아는 사람이 다 왔는데 밤낮없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때 목수들은 대우를 잘받았어요. 통행금지가 있을 땐데 목수 그 자격증만 보여주면 통행금지도 필요없었으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좋았지.

조사자 : 그럼 진수식도 한꺼번에 했습니까?

전용원 : 배가 많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못하죠. 영동조선소 사장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분이 그걸 말았는데, 배를 쭈욱 놓을거 아니에요. 다 뒀배를. 그런데 배를 쭈욱 놓는데, 가운데서 먼저 배를 만든 건 그걸 어떻게 물위에 띄울 방법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동방사, 동해방위사령부라고 군대가 있었는데 시누크 헬기를 하나 지원받아서 헬기로 들어올려서 옮겼어요. 그때도 재밌는 게, 잘만든 건 헬기가 들어올려도 괜찮은데, 잘 못만든 건 그냥 부서진 경우도 있었어요.

조사자 : 대단했겠네요. 그런 광경을 직접 보신 거예요?

전용원 : 아니요, 그때 저는 군대 마치고 집에 있다가, 아버님이 제주도에 일하러 가셨어요. 우리 속초에 특별지원 있기 전에 제주도에서 배가 부서졌다

고, 12척의 배를 만들어달라고 제주도 갔어요. 저는 그때 놀러 거기 갔었어요. 그 이후에 들은 얘긴데, 엄청났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들려왔어요. 제가 그때 제주도에 잠깐 놀러갔을 때 그때 그 일이 벌어져서 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아주 아까웠죠.

조사자 : 아버님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배목수로서 아버님의 장점은 뭐였을까요?

전용원 : 주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꼼꼼하고 세밀했어요. 아주 꼼꼼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힘들었어요. 일제 때 자격증도 받아서 자부심도 강했지요. 아버님이, 그래서, 제주도에도 가고, 피난 오자마자 거처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 아버님과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조사자 : 아버님 시대나 선생님 시대나 비슷하겠지만, 배 한척을 만드는데 몇 명 정도 함께 하나요?

전용원 : 옛날 같으면 여섯, 일곱이 배 한척에 붙어요.

조사자 : 일은 어떻게 업무분장이 이뤄졌나요?

전용원 : 아버님 같은 도목수가 도면을 만들면 각자 손도끼로 나무를 깎아서 준비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거였어요. 아버님은 먹줄을 놓으면, 밑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깎아서 만들었죠.

조사자 : 지역별로 배의 특징이 있나요?

전용원 : 서해안 배는 용골이 넓어요. 왜냐면 뺨에 얹어도 기울지 말라고. 동해안은 좁아요. 우리는 이 북배가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피난 내려올 때 60년대 중반까지 그런 배를 많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이북배는 개량선이라고 해서 쌀바가지 띄워놓은 것처럼 밑이 둥그렇게 된 배가 있어요. 그런 배를 많이 탔지.

조사자 : 속초에서는 특징이 없나요?

전용원 : 여기 배는 편리하게끔 용골이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평균 45cm 정도의 넓이인데, 배 자체의 특징은 그런게 있지. 그리고 만드는 목수에 따라 선미쪽을 둥그렇게 유선형으로 하나, 날카

롭게 하느냐 뭐 이렇게 다르지요.

70년대 이후 목선 제작

조사자 : 이제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배목수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전용원 : 자연스럽게 어깨 너머로 배웠죠. 집 근처에 함경조선소가 있어서, 아버지가 일하는 데 점심 도시락을 항상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가 일을 집중하면, 2시도 넘고 3시도 넘었는데 내가 학교 갖다 온 후 아버지 일하는 곳에 갔지. 그때 봤지. 그때 그냥 보고, 공구도 사용하고. 일부러 보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봤지. 그러다 아버지 일도 도와주고 간단한 시다도 하고 그러면서 배목수일을 했지.

조사자 : 최초의 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용원 : (사진 2를 가르키며) 이 사진 속 배인데, 이게 내가 21살 때야. 그때 30톤 짜리 배를 20분의 1로 축소해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기념으로 찍은 건데 이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타는 배는 아니고, 그냥 기념으로 만들었어요.

조사자 : 이 배 재료가 나무인가요?

전용원 : 예 나무예요. 전부터. 실제 만드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만든게 없을 거예요. 이게 동해출장소에 갔는데, 80년대에. 지금도 있을런지 모르지.

조사자 : 동해출장소에는 왜 간거예요?

전용원 : 처음에는 우리 집에 있다가 어민 교육용으로 축소수협에서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동해출장소에서 가져갔어요. 그냥 우리집에 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도 동해출장소 창고를 뒤져서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조사자 : 이 배 만든 연도가 언제쯤이예요.

전용원 : 73년도 될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할 일 없이 집

에서 놀 때 만들었으니까.

조사자 : 그럼 아버님 도와주면서 만드셨어요?



사진 2

1973년도 제작한 30톤짜리 배의 모형. 배를 제작하는 과정 그대로 만들었다고 함. 당시 정교함 때문에 수협 등의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는데, 80년대 동해출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사용 후 분실한 상태임.

전용원 : 아니지. 이 때 아버지는 오징어배를 탔어요. 목수 일이라는데 계속 있는게 아니니까. 아마 60년대에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랬는지, 그때는 배 만드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배를 타셨어.

조사자 : 그럼 군대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배를 만들었네요.

전용원 : 군대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기술이 많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웠으니. 그때는 우리집에 저 철조망 쪽방이 없었어요. 마당만 넓었는데, 그때 누가 문어잡이 전마선 한 채 만들어 달라는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살살 만들어봤지. 전마선은 그리 크지 않거든. 자체적으로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면 배가 되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목수일에 적응해 나갔지.

조사자 : 그 당시 재료는 어디서 구했나요?

전용원 : 부산에서 가져왔어요. 나무는 삼나무인데, 그건 무조건 부산에서 가져와야 해요.

조사자 : 아까 소나무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꼭 삼나무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용원 : 예전에는, 삼나무 하기 전에는 소나무를 많이

했는데, 점점 소나무가 적어지는거야. 게다가 대일청구권 어선 제작으로 일본에서 삼나무가 공짜로 오는데 그걸로 만들어보니까 좋더라고. 그때부터 삼나무를 썼지. 그 전에는 우리나라 소나무를 썼어.

조사자 : 처음 배 만드실 때 부산에서 삼나무를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전용원 : 직접 내려가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재를 해서 가져왔어요. 목재소에서 내가 설계한대로 두께랑 이런거 맞춰서 나무를 가져오는거지요.

조사자 : 그 당시 목선 한 척 만드는 순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용원 : 일단, 선주가 몇톤짜리 몇급 말하고 나면, 가격 흥정한 후에 이제 나무 사러가야지 부산에. 명태나 오징어배, 몇자짜리 몇톤 해달라고 하면 금액이 나와요. 그럼 부산에 가서 나무를 켜요. 내부쪽으로는 우리나라 소나무를 쓰고, 그건 부산까지는 안 가고, 양양이나 속초 제재소에서 구입했어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때는 대선목재소, 삼화제재소, 강원제재소 아주 많았어요. 그렇게 나무가 오면 제일 먼저 용골, 용골을 도면보고 만들어요. 다음은 선수 끈고, 그다음은 선미쪽에 보스톤이라고 스쿠로 나가는거 쾅고, 그 다음에 늑골이라고 뼈다귀,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그걸 용골에 부착시키고, 그 다음에 칸을 막아야 하고, 칸을 막고, 늑골을 만들고, 갑판 덮고, 관물대나 이런거 붙이면 완성이지요.

조사자 : 완성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렸나요.

전용원 : 겨울 같을 때는 7개월. 지금은 날이 따스지만 옛날에는 삼나무가 얼어터지고, 못이 안들어갈 정도로 추웠어요. 그렇게 못이 안들어가면 강통에 못을 달궈서 넣을 정도였죠.

조사자 : 겨울이 아니고 봄에 하면은 안되나요?

전용원 : 봄에는 수주가 들어온다는 법이 없어요. 주로 겨울에 들어오죠. 봄에는 있겠지만, 날짜 하다 보면 겨울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자 : 그럼, 최초로 만든 배가 몇 톤이죠?

전용원 : 문어잡는 배는 혼자 만들어서 작은 거고. 아버지하고 만들었는데, 제대하고 77년도 정도에 대로 된 배를 만들었죠. 사진 보면(사진 3) 그게 바닥 외판 붙이는 작업 중에 사진 찍은 건데, 뼈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오십톤인지 삼십톤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한쪽 일부만 나온거요.



사진 3. 1977년 본격적으로 배를 만들 당시의 모습

조사자 : 그럼 아버님하고는 계속 함께 만드셨겠네요.

전용원 : 처음에는 어른들하고 함께 만들었는데, 아버님도 도목수로 있으시면서 저는 옆에서 배우고 그랬죠. 배 하나 만드는데 보통 7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진(사진 4) 보면 친구들이 많고, 이 사람은(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이후락 사촌이고 그래요. 사진보면, 나이 먹은 사람은 아버님 연세이신데 무거운거 들기 힘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그런거 많이 했죠.

조사자 : 선주와 배 가격 흥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용원 : 아버님이 주로 하시던 70년대는 주로 조선소 소속으로 노임을 받는 형태였어요. 80년대 들어서 제가 직접 일감을 가져와서 조선소 사용료 내고 일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일종의 자영업을 한거죠.

조사자 : 조선소에서는 월급으로 받았나요 일당으로 받았나요

전용원 : 배 한척이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임이 있어요. 그게 몇급이라는 인정이 있는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임이 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건 비싸고, 그러니 그게 안맞잖아요. 그러니 정부거하고 조절해서 비슷하게 노임을 맞추는거죠. 한척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몇톤짜리는 얼마, 전마선은 얼마....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거와 달라. 다르다보니 흥정이 중요했어요.



사진 4. 1987년. 맨 왼쪽이 전용원님. 오른쪽 끝이 아버님이신 전명종씨. 도목수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배를 만든 후 촬영했다. 87년 당시 25톤 배 한척에 이천오백만원의 제작비가 들었다.

조사자 : 그때는 배 한척에 얼마였을까요?

전용원 : 87년도에 25톤짜리가 2천5백만원 정도밖에 안됐어요.

조사자 : 기간은 좀 짧아졌겠네요. 그때는?

전용원 : 한 4개월 가까이 걸렸죠. 일한 날짜는 그렇게 안되는데 그 와중에 비오고 바람불고 공치는 날이 많으니까.

조사자 : 배를 본격적으로 만든 후에는 조선소에서 일하셨나요?

전용원 : 80년대 초부터 97년까지 자영업식으로 했어요. 선주에게 돈 받아서 조선소 세만 주고, 다른 목수들은 일당을 받고 했어요. 속초에서는 자기가 맡아서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큰배 할 때 강재호나 영흥호 같은거 할 때, 94년도 이후에는 10톤짜리도 혼자 만들었어요.



사진 5. 1983년도. 전용원 선생이 소유한 최초의 배로 일감이 없을 때 직접 만들어서 선주가 되어 운영했다. 이 배 말고도 몇 척을 더 만 들었지만 80년대 이후부터 고기가 나지 않아 실패하였다.

같이 만들어도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혼자 만드는데 편하더라고요. 예전 아버지 시절 분들은 돌아가셨고, 저 혼자 만드는데 편한거죠.

조사자 : 아버님은 언제까지 같이 만드셨나요?

전용원 : 아버지는 90년대초까지 같이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는 저 혼자 배를 만들었죠. 아버지는 공구 손질해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배 자체가 안만들어지니까. 진흥호라고 1997년도에 만든 배인데, 잡어를 잡았어요. 그배는 지금도 이마트 건너편 항에 보면 있어요. 잡어 잡는 배인데, 아직 한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조사자 : 요즘은 뭐하세요?

전용원 : 고성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어요. 목선 중에 썩은 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꾸고 하는 그런 사업 있으면 제가 보수해 주죠.

지역별 목선의 특징과 진수식

조사자 : 지역별 목선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전용원 : 동해안 목선의 용골은 폭이 좁아요. 서해안 배는 간만의 차가 많고 뿔에 앉아도 기울지 않아야 하니까 배 바닥 용골의 폭이 넓죠. 같은 동해안이라고 해도 구룡포와 후포 유자망배들은 갑판이 낮지만, 명태 조업을 하는 우리 지역 배들

은 갑판이 높죠. 파도를 막아야 하니까. 방현대와 테두리도 완전히 다르고요.

조사자 : 우리나라 배는 일제시대 때 주로 그쪽 배하고 닮아있다고 하셨잖아요. 똑같나요?

전용원 : 스망또라고 있어요. 배가 물에 띄우면 이게 잠기는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본애들이 만드는데, 동해안배나 한국배들은 앞면이 각이 졌는데, 일본배는 둥그래요. 우리 배는 좀 날카로운데, 일본배는 둥그러워서 부드러운데. 우리는 저인망 배들이 그래요. 그 애들은 뼈대를 한꺼번에 세워요. 우리가 그 방식대로 하죠. 일본애들은 둥글둥글하게 해요.



사진 6. 전용원 선생의 마지막 목선. 1997년 제작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조사자 : 속초하고 고성, 양양 배는 다 똑같죠?

전용원 : 동해안은 다 비슷해요. 다만 만드는 목수에 따라서 가다가 좀 다르죠. 앞을 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 유선형으로 둥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전 둥그렇게 만드는 편이에요. 또, 정치망은 어장에서 바로 그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가이싱구가(테두리) 없어요. 그런데 근해에 나가는 배는 파도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싱구가 있는거고요.

조사자 : 그럼 목선의 종류는 어떻게 있죠?

이게 다 일본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할 수

가 없어요. 스망또(동글), 하꾸가다(각지는거), 삼마이뎃마(뽕적선), 왜선(일본애들 배)...모양에 따라 이렇게 배를 표현하죠.

조사자 : 아까 사진에도 진수식 전에 찍은 사진이던데, 선생님이 경험하신 진수식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전용원 : 배 갑판 끝나고 나면, 조타실이나 뭐 이런 곳 해서 목수들이 각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의 선수를 잘한다, 저 양반은 선수가 소질이 있네 하면 그쪽에서 하고, 선미쪽에 잘하는 사람은 선미쪽에 보내고, 저는 조타실을 주로 맡아서 했어요. 조타실 맡으면 그 곳에 성주함을 만들어줘요. 집에 보면 성주를 모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도 남성주, 여성주 이렇게 만드는데 거의 다 보면 여성주를 많이 모셔요. 남성주는 드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무지 중요시하더라고요.

조사자 : 성주함은 그럼 어느 위치에 만드는 거죠?

전용원 : 조타실 안에 선장이 자라고 만든 침대가 있어요. 삼십톤이든, 오십톤이든 침대가 한 세개 되요. 한쪽 아래 위로 일층, 이층이 있고, 한쪽은 일층만 있고 위에는 해도판을 만들고, 해도판 가운데다 조그맣게 해달라고 하면 침대를 네칸으로 만들기도 하고, 선장 자리 침대 그 머리말에 성주함을 만들어줘요. 성주함을 만들 때면 선장이나 선주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제 몫이 되는거죠. 내가 만들어줬으니. 성주함 짤 때 술도 사주고 이래요.

조사자 : 진수식 준비는 선주가 하죠?

전용원 : 그건 선주가 하죠. 무당 데려오고 고사 지내고 그래요. 내가 정말 신기한 경험 하나 얘기하면, 고성 교암에 영웅호라는 배를 만들어줬어요. 십이삼톤 되는데, 진수식 때 고사지는데 누가 도목수 빨리 오라는 거야. 그래서 무당에게 갔더니 그 무당이 장채로 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 아, 난 왜그리 패냐고 물을 틈도 없어.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뭔지 모르

졌어. 아, 날 왜 때리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게 86년도 정도였는데, 왜 산신나무를 잘랐냐고 하는 거야. 이게 뭘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바로 그랬지. 외국 귀신은 안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일본나무잖아, 삼나무. 용골은 말레이시아나무인데, 외국귀신은 안들어왔냐고 물었잖아. 신경질나서. 그런데 한참 맞고 있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단풍나무를 하나 썼더라고. 이 단풍나무가 우리 단오제 보면 신목이라고 해서 무당들이 자르고 막 떨고 그러거든. 그 단풍나무를 내가 쓴거야. 기관실에 그 나무를 썼는데, 그게 조타실에서 고사지내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조타실하고 기관실은 완전히 다른데, 나무 쓴건 나만 알고, 나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참 얻어맞다가 이제 절하라 하고 해서 절했지. 그런데 나도 할말이 없더라고. 실제로 내가 단풍나무를 썼으니

조사자 : 배 만들기 전에 혹 미신이나 뭐 이런건 없나요?

전용원 : 기공식 할 때 고사를 지내는데, 그건 조심해야, 뭐 이런건 있는데. 그건 다 똑같지 뭐.

조사자 : 도면을 나무에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전용원 : 나야 원래 아버님때부터 하던 걸 배운건데, 옛날에는 삼나무에다 했어요. 그런데 삼나무는 잘 쪼개져. 그래서 훼손되지 않는게 합판이야. 그게 좋고 늘고 그런게 없어. 나무는 물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합판은 그런게 없어요

조사자 : 그럼, 선주에게 배에 대한 오다를 받으면 바로 합판에다 그리는 거네요.

전용원 : 그렇지, 선주는 몇톤짜리, 높이는 얼마, 뭐 이렇게 자기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럼 우린 그 얘길 듣고 합판에다 도면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지.

조사자 : 도면 그리고 나서 이제 목수들하고 서로 부분을 나눠서 맡는건가요?

전용원 : 그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목수들이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일일이 보고 먹을 뉘집요. 나무에다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이만

큼 잘라라. 이만큼 대패질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하는 거지.

조사자 : 먹줄이 뭐죠?

전용원 : 도면에 있는 걸 실제 나무에 그리는 거예요. 도면이 20분의 1로 축소한거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깎아라. 이렇게 하면 목수들이 알아서 자르고 그러죠.

창경배 복원

조사자 :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창경배라는걸 복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전용원 : 창경배는 연안에서 해삼이나 전복, 미역 성계를 따는 배예요. 외옹치나 이런 곳 바로 앞 바다 50미터 정도 나가서 하는 배인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들 먹고살게 없으니까 창경배 하나 갖고 나와서 해산물 따서 파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가 안좋아지니까 안되는 거야. 예전에는 먹고 살려고 창경배 하나 만들어서 전복이나 해삼을 따거든. 그러다 보니 이제 없어요.

조사자 : 창경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용원 : 창경을 입에 물고, 한손에는 낫 들고 한손에는 망을 들어서 바다 바닥을 보고 따는 거야. 창경은 사다리꼴로 바닥이 넓어. 밑에 유리를 달고 바다 밑에 집어 넣은 후 보면서. 삼나무나 오동나무로 가볍게 만들면 어렵지 않아요.

조사자 : 배에는 몇명이 탑니까?

전용원 : 원래는 혼자 탔지. 열다섯자, 열여섯자, 작은건 열넉자. 미역같은거 딸려면 배가 약간 기울어야 해요. 그래도 위험하진 않아요.

조사자 : 선생님은 창경배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고, 체험도 하게 하자고 말씀 하셨죠?

전용원 : 옛날에는 없는건데, 지금 한번 박물관 같은 곳

에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목선 만드
는 과정도 보여주고, 원래 사나흘이면 만들지
만 주말에 천천히 만드는거죠. 배 타는 사람도,
두, 세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들면 그 배 완성후에
청초호나 이런데 띄워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조사자: 울릉도 배들이 옛날에 물새면 돈을 안받았는데,
배를 잘만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용원: 배를 잘 만든건 물새지 않고, 든든하고, 나무 잘
쓰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수 쪽 모양이 잘 나
오는거, 선수쪽 유선형을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거지. 꼼꼼해야 하고, 사람도 잘 다뤄야 하고.

조사자: FRP와 목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용원: FRP는 만들기도 쉽고, 배 속력 위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나아. 목선은 무게가 있으니까 그

게 좀 약해. 하지만 안정성은 목선이 더 낫죠. 파
도 탈 때 보면 이게 나아.

조사자: 장시간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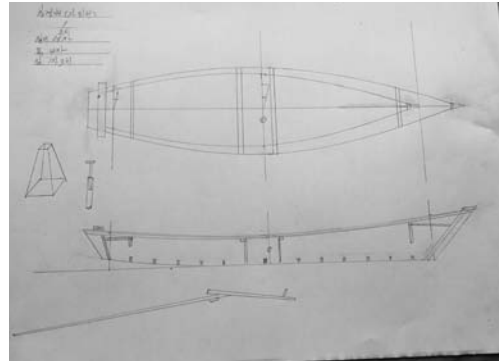


사진 7
전용원 선생이 직접 그린 창경배 도면. 선생은 이 배를 박물관에
서 시연해보고 싶어 한다.

배목수 전용원의 도구들 1



자귀
휘어진것을 깎는 데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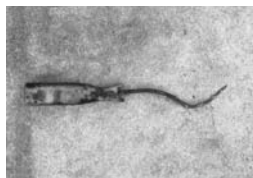
끌을 비롯한 각종도구



분침
도면 그릴 때 사용



손도끼



빠데칼



수동드릴

배목수 전용원의 도구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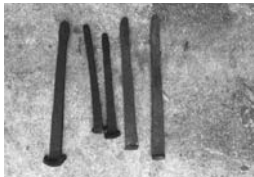
다양한 손대패



만력기



대패
조타실 키 암늪 제작용



못



목줄, 먹갈, 자



배망치와 일반망치
배망치는 주문제작하였음



문화예술인

- 임수철의 음악과 세계
- 편집부
- 속초와 나 그리고 음악
- 임수철





50년의 속초 생활 접고 유년의 그리움 찾아 떠나는 작곡가 임수철의 음악과 세계

그가 속초를 떠나는 이유는 유년의 그리움 때문이라고 한다.
어머니의 진해, 아버지의 속초라고 표현한다.
이제 그 어머니 품으로 떠나는 것이다.

편집부

그가 간다. 속초를 떠난다고 한다. 50년을 산 속초를 떠나 어린 시절 8년을 살았던 진해로 간다. 평안도 출신의 아버지는 해방 후 북한 체제를 견디지 못해 진해로 내려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잠깐 서울로 왔지만, 14후퇴 때 다시 내려왔으니 실향민인 셈이다. 속초 정착과정은 대개의 실향민과 비슷하나 집안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일종의 한처럼 남아 있다. 그가 속초를 떠나는 이유는 유년의 그리움 때문이라고 한다. 어머니의 진해, 아버지의 속초라고 표현한다. 이제 그 어머니 품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는 음악교사였다. 고등학교 진학 후 관악부에서 트럼펫을 접한 후 음악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 고2때는 작곡을 공부하기 위하여 당시 속여중 음악선생님께 부탁을 할 정도였다. 그 후 강원대 음악교육과 진학 후 음악교사의 길을 걸으며 그가 가는 학교마다 관악부를 창설하였다. 21년간의 관악부 지도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예술 고유의 창의성 세례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는 작곡가이다. 경희대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창작예술가곡 음반 1·2집을 출판하고, 교향시 '잃어버린 전설'과 합창곡 '전방포 아리랑', 기타창작곡집 '당신을 위해서라면'을 발표한 작곡가이다. 그의 작곡은 속초라는 지역성과 한국문화라는 보편성을 지향해왔다. 비록 서양음악 중심의 클래식 매뉴얼 작곡에 익숙한 세대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가장 속초다운 음악언어로 고유의 세계를 구축한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는 음악평론가이자 수필 작가이다. 1990년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국악해설서 <OK國樂(1·2권)>, 음악평론집 <음악적 오류와 오해>, 작곡 이론서 <가곡 작곡법>, 음악 에세이 <못생긴 피아노> 등을 펴냈다. 지금이야 국악이 대접을 받고 있지만 1990년대 당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마이너의 장르였다. 그런 현실에서 대중적인 국악해설서의 출간은 그를 교양부문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었다. 음악평론집 <음악적 오류와 오해>는 변방의 음악가가 주류 음악계에 던진 죽비였다. 현대가곡의 아버지 흥난파는 한국음악을 망친 근원으로 비판받았다. 무분별한 서양식 작곡법이 한국 가곡의 체계를 무너뜨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유의 사고체계와 유려한 글쓰기는 방대한 독서량이 근원이다. 그리움의 정서를 가진 휴머니즘의 바탕으로 수필집 <진해에서 온 아이>와 <못생긴 피

아노> 등을 발간했다. 그는 자신의 문학적 감수성을 물소리 시낭송회 활동을 하며 만났던 이성선, 최명길 시인의 영향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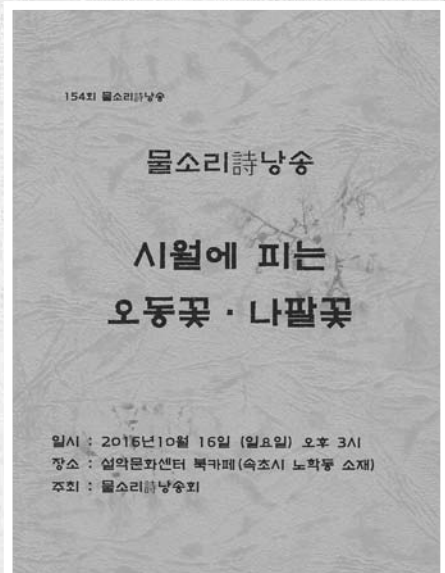
그는 지역문화 활동가이다. 국악 해설서의 발간도 물소리시낭송회의 음악을 담당하면서 시작했다. 이성선, 최명길 시인 특유의 서정을 동양적인 음악언어로 표현하고자 국악을 활용하다 책발간까지 이어진 것이다. 음악의 불모지 속 초에 아름다운 화음을 뿌리내리기 위한 문화활동도 활발했다. 음악협회 속초지부장과 속초시립합창단 지휘자 등을 역임하여 1993년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따지고 보면 작곡활동과 발표회 등 그의 예술활동 자체가 속초시 음악계의 토양을 풍부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돌직구를 던질 줄 아는 냉철한 지성이자 동양철학에 기반한 인문학자이기도 하다. 20여년 간의 음악교사 생활을 마친 후, 그해 3월 강원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들어가 논문 ‘거문고의 유음적 도기철학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설악신문에 연재한 ‘임수철의 돌직구 음악비평’은 음악에 대한 철학과 그의 삶, 속초에 대한 애정이 유려한 문체로 표현된 칼럼이었다.

그는 임수철이다. 실험민 2세대이자, 음악교사, 작곡가이며 음악평론가, 작가이자 세상을 인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문주의자. 그 어떤 수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인이자 예술가이며 지역의 입장에서 평균율의 시선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 임수철.

지난 10월 16일 오후 3시 설악문화센터 북카페에서 개최한 제154회 물소리시낭송회는 신민걸 시인의 등단축하와 함께 그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예술인들의 작은 송별회도 겸해졌다. 기타리스트 원수빈의 연주로 속초의 아침과 저녁을 묘사한 ‘아침풍경’과 ‘저녁풍경’은 자연의 약동과 소란, 하루의 마무리를 정갈한 기타선율로 표현한 임수철의 작곡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채재순 시인은 임수철의 삶과 음악세계를 들려주었다. 그의 삶을 묘사한 이 글은 대부분 채재순 시인에게 빚진 것이다. 박대성 시인 등의 송시, 그와의 이별을 ‘잃어버린 우산’이라며 안타까워한 설악 문우회 이은자 회장에 이어 임수철이 무대에 섰다. 약속한 행사시간을 맞추겠다며 무심한 듯 던지는 특유의 건조한 화법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의 입에서 흘러지는 언어는 내게 하나의 이미지를 전달했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었다. 채재순 시인의 시에 그가 곡을 붙인 ‘별’을 감상한 직후여서인지 모르겠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라는 시구처럼 어머니를 닮은 진해로 돌아가며 그리운 이들을 하나씩 소환하는 듯한 그의 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절절히 배가 되었고, 다가올 부재는 현실이 되어 다시 그리움이 되는 지독한 풍경이 무대를 감쌌다. 기념사진을 찍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2차에 가서 진한 그리움을 나눴을 것이다.

작곡가 임수철은 떠나도 그의 예술세계는 남는다. 최근 녹음을 끝낸 기타창작곡집은 그의 음악언어를 속초의 기타리스트가 연주한 작품이다. 원영백 기타학원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 음반을 듣고 난 후에야 임수철을 온전히 보낼 수 있을 듯 하다.





임수철의 음악이야기 속초와 나, 그리고 음악

작곡가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음악의 경지를 악도(樂道)라고 했을 때, 이 악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숨 쉬고, 활동하고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다

임수철(한국작곡가회 회원)

I. 속초 출신의 작곡가들

음악을 전공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음악이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데도 그렇다. 그래서 음악은 태생적으로 자본 중심적이고, 도시 중심적인 예술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음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본과 권력,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마치 세계의 표준이 되는 예술 음악처럼 된 것도 사실은 자본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원래 클래식 음악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자본가의 후원에 의해 발전할 수 있었던 음악이었다.(더 나아가 서양제국의 식민지 수탈로 축적된 자본도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음악의 중심지가 자본과 권력이 몰려 있는 서울이다. 그리고 지방 도시의 경우는, 대구나 부산 등의 광역시이다. 아니면 청주나 춘천처럼 도청 소재지이면서 지역의 교육이나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이다. 따라서 인구 10만도 안 되는 변방의 소도시 속초는 음악 입지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로 속초 출신의 전문 음악인들, 그 중에서도 작곡가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극소수에 해당하는 속초 출신의 작곡가라도 활동 무대는 속초가 아니다. 즉, 거의가 서울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속초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는 필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 외에 속초 출신의 작곡가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우동희**-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작곡가. 속초고 13회 졸업생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희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다 최근에 퇴임하였다. 「속초시가」 작곡가이며, 필자의 대학원 음악석사과정 때 전공실기 지도교수님이었다.

* **유범석**-역시 속초고를 졸업한 속초 출신의 작곡가인데, 우리 지역과는 거의 교류가 없어서 신상과 관련된 세세한 정보는 잘 알 수가 없다. 필자의 고교 후배라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다. 수험생 시절에 필자와 한번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연세대 작곡과 교수이다. 현대 음악 분야 작곡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 윤지훈-속초고 45회 졸업생으로 30대의 젊은 작곡가인데, 춘천을 근거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작곡가로서 이제 첫 걸음을 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속초고 재직 때 가르친 제자이기도 하다.

* 송은희-속초여고 졸업생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귀향하여 현재는 속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속초가 작곡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므로 작곡가로서 보다는 합창 지휘자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수험생 시절에 필자에게 작곡 개인지도를 받았던 문하생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속초 출신의 작곡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본다. 전국적으로도 작곡가의 수가 워낙 적어서 작곡가의 신상을 파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II. 임수철 작곡의 속초 관련 음악작품들

수준 여부를 떠나 아마도 필자의 음악 작품만큼 지방 색이 강한 작품도 드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자의 작품은 속초적이고, 강원도적이고, 나아가 한국적인 색깔이 강한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가. 성악곡

(1) 연(連)가곡 대포동창(大浦洞窓)-김명기 작시

바리톤 독창곡으로 모두 10 곡으로 구성된 연(連)가곡이다.

1994년, 38세 때 작품이다. 즉, 초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속초 출신의 시인 김명기와 정서적인 의기가 투합되어 거의 단숨에 쓴 속작품(速作品)이다. 그러나 음악적 완성도는 높은 예술 가곡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적인 정서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따라서 기존의 서양적 작곡어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노랫말이 된 김명기의 연작시『대포동창』은, 비 오는 날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대포항의 풍경을 아름다우면서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의 대포항은 예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속초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예술 가곡 애호가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곡이다. 하지만, 곡의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무겁다는 평도 받고 있다.

2001년 속초문화회관에서 바리톤 이용찬의 독창으로 초연되었으며, 같은 해에 음반으로도 제작되었다. 연주와 음반 제작의 기획은 당시 도레미음악기획사 대표였던 기타리스트 원영백이 담당했었다.

비오는 날, 창밖을 내다보면서 감상을 하면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는 가곡이다.

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곡-안개비

제2곡-비 오는 날

제3곡-춧불

제4곡-갈매기

제5곡-등대(1)

제6곡-등대(2)

제7곡-춧농 아래서

제8곡-바다 변주곡

제9곡-등불

제10곡-등대의 노래

(2) 설악산-최명길 작시

1996년에 작곡된 곡으로 바리톤 독창곡, 테너 독창곡, 그리고 혼성 합창곡 등 모두 세 가지 버전이 있다.



세마치장단에 경(京)토리풍의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작곡 당시 작시자 최명길 시인의 음악적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였다.

설악산의 아름답고 장엄한 기상과 기운이 잘 표현된 가곡이다.

1990년대 후반에 속초시에서 제작한 음반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노래는 바리톤 이대우가 불렀고, 반주는 경찰악대가 했다.

그 후 2007년 임수철의 창작예술가곡 2집 음반에도 수록되었는데, 이때는 테너 황영승(현, 속초시립합창단 지휘자)이 노래했고, 반주는 피아니스트 정영철이 했다.

(3) 영랑호에 내리는 비-김종헌 작시

바리톤 독창곡으로 2009년에 작곡되었다.

비 내리는 영랑호의 풍경을 표현한 시와 애절한 가락이 잘 어우러진, 통절 형식의 가곡이다. 특히 빗소리를 피아노 반주의 무거운 저음으로 마치 수묵담채화처럼 묘사를 했다.

2014년에 제작된『가곡동인 제8집』음반에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수록되어 있다.

(4) 속초에는 그리움의 번지수가 있다-정영애 작시

피아노 반주가 아닌 기타 반주로 된 바리톤 독창곡으로 2014년에 작곡되었다.

작시자 정영애는 언어적 감각과 정서적 감성이 아주 빼어난 시인인데, 이 노래의 가사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가곡동인 제9집』음반에 수록되어 있다. 속초 출신의 성악가 바리톤 임주영이 노래했고, 속초 출신의 기타리스트 원경화가 반주를 했다.

(5) 갯배 애가-정영애 작시

2015년 작품으로 바리톤 독창곡이다.

속초의 명물이 된 갯배는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갯배에는 함경도 실향민의 절절한 망향의 한이 서려 있다.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탄생된 가곡이 바로 갯배 애가이다.

애가(哀歌)는 비가(悲歌)보다 더 처절한 슬픔의 노래이다.

『강원작곡가포럼 5집』음반에 수록되어 있고, 노래는 베이스 바리톤 심기복이 불렀다.

(6) 속초아리랑-김부영 가사

2014년 작품으로 독창+혼성 합창곡 형태의 곡이다.

속초민예총 김부영 전회장(정선아라리 이수자)이 붙인 가사와 토속 민요 속초아리랑가락을 소재로 하여 작곡하였다.

제주도립합창단이 초연하였고, 음반에도 수록되었다. 그리고 속초시립합창단은 2015년 정기공연 때, 송은희의 지휘로 이 곡을 연주하였다.

나. 기악곡

(1) 교향시『잃어버린 전설』-2관 편성의 관현악곡

2000년 작품인데, 아직 무대에 올리지 못한 작품이다. 수 십 명의 연주자가 필요한 관현악 편성의 기악곡이기 때문이다.

속초 지역 천혜의 호수 영랑호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옛 모습을 점차 잃어가는 안타까움에서 착상한 곡이다.

단(單) 악장 형식이지만, 느리고-빠르고-느리고-빠르고의 템포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4악장 구조의 교향곡을 압축 시켜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작품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7)파트

느린 템포의 a단조 주제가락이 도입부 없이 제바이올린에 의해 바로 나타난다. 관악기 파트는 모두 쉬며, 호른(horn)만 화음을 잔잔하게 깔다가 음악이 점점 고조되면

서 목관악기만 간간히, 아주 조심스럽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가락이 명상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는데, 예전에 청정했던 영랑호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화성은 고전적이며, 한국적이다.

(ㄴ)파트

템포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조성 또한 돌변한다. 모든 파트의 악기가 등장하는데, 서구화와 산업화로 인한 전 통과 환경의 파괴 과정을 다소 격렬한 가락으로 표현하였다.

한 바탕의 걱정이 지나간 후 현악기 파트에 바순과 호른이 살짝 가미되어 조용히 마무리 된다.

(ㄷ)파트

(ㄱ)파트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옛날 모습의 영랑호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조성과 가락만 바꾸어 다시 표현하였다.

셋잇단음표 리듬에 (ㄱ)파트와 같은 느린 템포의 차분한 주제가락이 나타난다. 그러나 (ㄱ)파트에서 아껴두었던 관악기를 이 부분에서는 비교적 대범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플루트 파트는 제1바이올린과 함께 주제 가락을 주도한다.

(ㄹ)파트

앞의 세 파트를 절묘하게 모자이크를 했다. 하지만 그대로 모자이크 하지 않고, 소나타형식의 발전부처럼 처리하여 가락, 리듬, 조성, 화성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위법적인 기법도 사용하였다.

그리움과 추억, 현재의 상실감 등을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다소 격정적인 이 파트는 끝의 여섯 마디 앞에 세 마디의 느린 카덴차(cadenza)가 나타나면서 곧바로 세 마디의 아주 느리고 장중한 모든 악기의 합주로 곡이 모두

마무리된다.

(2) 속초의 노래-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2중주곡

2014년 작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소품곡으로 세마치장단에 민요풍 가락의 경쾌하고 발랄한 곡이다. 아직 무대에서 연주되지 못한 미발표곡이다.

(3) 속초야상곡-기타 독주곡

2014년 작품. 속초의 밤풍경과 분위기를 표현한 기타 소품곡이다. 2015년 11월 「임수철창작기타곡발표회」때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초연되었다.

(4) 속초비곡(悲曲)-기타 독주곡

2014년 작품. 애잔하면서도 감미로운 가락의 기타 소품곡으로, 2015년 11월「임수철창작기타곡발표회」에서도 연주되었고, 2014년 속초교육문화관에서 주관한「임수철 북콘서트」행사에서도 기타리스트 김종수에 의해 연주된 바 있다.

(5) 속초메나리 기타소나타-기타 독주곡

2014년 작품. 수록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곡이다. 원래는 로드리고의「아랑페즈」협주곡에 비견할 만한 명작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협주곡 형태로 구상하였다. 하지만 전문 오케스트라를 동원할 만한 음악적 여건이 못 되어 독주 소나타로 변경했다.

속초 지역은 메나리조(調) 민요권에 속한다. 그래서 속초적인 토속성을 살리기 위해 메나리조 음소재로 작곡을 하였다.

1악장은 약간 흥청거리는 템포에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2주제 가락은 솔(sol)선법에 굿거리장단이다. 협주곡 형태로 구상하였기 때문에 카덴차(cadenza) 부분도 있다는 게 이색적이다.

2악장은 최근에 발굴된 토속 민요「속초아리랑」가락을 소재로 느린 템포의 가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3악장은 매우 경쾌하고 발랄한 세마치 론도형식으로 구성했다.

필자는 평소에 곡을 단숨에 쓰는 속작(速作) 스타일인데, 이 곡은 예외로 몇 번씩 수정을 하면서 신중하게 썼다.

다. 그 외에 지역 문인들이 작시한 가곡 작품

그 외에 속초를 주제를 했거나 소재로 한 창작곡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문인들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 작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1)입동(立冬)-이성선 시, 바리톤 독창곡, 1989년(1990년 속초문화회관 초연)

(02)눈물-이성선 시, 혼성4부 합창곡, 1990년(1990년 속초문화회관 초연)

(03)풀잎을 보다가-최명길 시, 바리톤 독창곡, 1996년

(04)별레시인-이성선 시, 혼성4부 합창곡(1995년), 바리톤 독창곡(1998년)

(05)풀피리 하나만으로-최명길 시, 혼성4부 합창곡(1995년), 바리톤 독창곡(1998년), 한국작곡가회 위촉 작품

(06)산에 시를 두고-이성선 시, 테너 독창곡, 2001년

(07)별을 보며-이성선 시, 테너 독창곡, 2001년

(08)맑은 날-이성선 시, 바리톤 독창곡, 2006년

(09)산지기-최명길 시, 테너 독창곡, 2006년

(10)세월-이완우 시, 테너 독창곡(2007년), 혼성4부 합창곡(2013년, 가곡동인 위촉 작품)

(11)꽃감-김명기 시, 바리톤 독창곡, 2008년

(12)산에서 내려온 소-최명길 시, 테너 독창곡, 2007년

(13)당신을 위해서라면-이화국 시, 테너 독창곡, 2007년

(14)꽃잎 편지-채재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09년(춘천KBS공연)

(15)베니스의 노래-지영희 시, 바리톤 독창곡, 2009년

(가곡동인 위촉 작품)

(16)나의 바람(願)-이화국 시, 바리톤 독창곡, 2010년

(17)갈대의 노래-채재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2년(춘천KBS공연)

(18)저녁 산-채재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3년, KBS FM에서 여러 번 방송된 가곡

(19)별-채재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3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20)나비, 봄 들녘을 날아가다-채재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3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21)강가에 가보아라-채재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4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22)4월-정영애 시, 바리톤 독창곡, 2014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23)야윈 사랑-이완우 시, 중음역의 가요풍의 가곡, 2014년

(24)그대의 즐거운 노래-최월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4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25)또 다시 목련은 피어-최월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4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26)가랑잎 지다-채재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4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27)달맞이-방순미 시, 바리톤 독창곡, 2014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28)방향-방순미 시, 바리톤 독창곡, 2014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29)봄꽃 지다-채재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5년(가곡동인 위촉 작품)

(30)화진호호-채재순 시, 바리톤 독창곡, 2015년

Ⅲ. 임수철의 창작곡 감상 안내

필자는 해군 도시로 잘 알려진 진해에서 태어나 아홉 살이던 1965년에 속초로 이사를 와서 51년을 살았다. 누

가 뭐래도 속초가 실제적인 고향이다. 그런데 이제 유년 시절의 고향 진해로 다시 돌아간다. 진해에 대한 절절한 추억과 향수 때문이다. 진해는 어머니와 같은 고향이다. 이에 비해, 속초는 아버지와 같은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5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속초에서 살았던 필자는 무척 외로운 재야 작곡가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주위에서 작곡 활동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지인들이 참 많았다.

1990년 11월, 속초문화회관에서 개인작곡발표회를 했을 때는 발표회의 총괄적인 기획을 맡았던 당시의 속초 문화원 사무국장 최재도 작가와, 이제 고인이 되신 지일권 원장님의 도움이 무척 컸었다.

첫 가곡음반은 당시 음협사무국장 원영백 기타리스트의 기획 덕분에 출반이 가능했었다.

두 번째 가곡음반 출반은 테너 황영승 후배와 속초고 재직 때의 제자 정영철 피아니스트 덕분이었다.

시인 이성선 선생과 최명길 선생은 생전에 아주 큰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고, 이번에 출반하게 되는 창작기타곡2집 음반은 원영백 기타리스트의 자녀 3남매가 모두 훌륭한 연주로 큰 도움을 주었다. 덕분에, 창작기타곡 2집 음반은 외지 음악인의 도움없이 속초 음악인의 힘만으로 출반이 가능했다.

지역의 문화 행사에 필자의 기타곡을 연주하고, 유튜브에 연주 동영상까지 올린 김종수 기타리스트는 필자의 작품 전도사 역할을 하였다.

필자의 창작품 홍보와 유통에 적극적이었던 문인협회 노금희 작가도 작곡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인들이 꾸준히 작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다.

필자의 창작곡들 중 음반으로 제작된 곡들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감상할 수가 있다.

인터넷 가곡전문 사이트「내 마음의 노래」에는 필자의 창작 가곡 50곡 정도와 기타곡도 등록되어 있다. 가장 많

은 작곡가들의 가곡 작품들이 등록되어 있는 무료사이트이다. 간단하게 회원 가입만 하면 언제든지 접속하여 감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KBS 클래식 FM방송「정다운 가곡(속초지역은 주파수 89.1)」을 통해서도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 방송 신청 후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한국가곡 전문 프로인「정다운 가곡」은 평일 밤 9시30분에서 10시까지 방송되고 있다.

그 동안 필자는 속초 출신 작곡가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다고 감히 생각한다. 대도시의 유명 인기 작곡가들에 대해 한 번도 자격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오히려, 음악의 변방 속초라는 소도시의 작곡가였기에 더욱 자랑스럽고 당당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필자는 속초적인 색깔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다.

이제, 필자의 창작곡에 대한 애창·애청, 유통과 보급 등은 속초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에 속초 지역에서부터 제대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 잘 생각해보면, 속초 지역 내에도 훌륭한 음악 유통 공간들이 많다. 엑스포 공원 내 공중 화장실, 관광객들이 붐비는 음악 카페, 공공 휴게소 등등...

유명 음악방송 프로만이 음악 유통 공간의 전부가 아니다. 속초 작곡가가 작곡하고, 속초 연주가가 연주한 음악들은 어쨌든 속초에서만큼은 제대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속초 지역의 진정한 음악 발전을 위한 길이다. 외지의 유명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이벤트성의 음악회는 지역 음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IV. 미래의 속초 작곡가들에게

가. 지역마다 방언이 있듯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을,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을 쓰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바탕 위에 표준말도 쓰고, 외래어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언어가 더 건강하고, 풍부하게 진화·발전될 수 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방언이 없고 표준어만 있는 언어는 생

명력이 길지 못하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음악도 그래야 한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상주아리랑이나 밀양아리랑을, 전라도 사람은 육자배기를 당연히 부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시조창도 서울과 지방의 음악적 스타일이 달랐는데, 서울의 시조창을 경제(京制), 지방의 시조창을 향제(鄕制)라고 했으며, 향제는 또다시 경상도의 영제(嶺制), 전라도의 완제(完制), 충청도의 내포제(內浦制)로 각각 나뉘어졌다.(판소리에 동편제·서편제 등이 있듯이) 따라서 이러한 음악적 바탕 위에 칸초네도 부르고 팝송도 불러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악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지역적 작곡 매뉴얼이 없는 한국의 작곡계

같은 맥락에서 경상도 작곡가는 경상도 작곡어법으로, 전라도 작곡가는 전라도 작곡어법으로 작곡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대한민국의 작곡가들은 거의 모두가 똑 같은 작곡 매뉴얼로 작곡을 한다. 그것도 서양 중심의 클래식 음악 작곡어법으로. 이러한 그릇된 작곡 현실 역시 흥남파의 서구 중심적 음악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서세동점(西勢東漸) 시대에 서구 열강들에 의해 강요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릇된 음악 가치관에 여전히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작곡가들이 서양 중심의 똑같은 작곡어법으로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애기하자면, 곡이 거의 다 똑같다. 작곡가들 간에 음악적 색깔은 없고, 음악적 기술과 서열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것은 모든 연주자들이 다 똑같은 곡을 연주했을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음악적 인맥과 학맥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非)유학 출신에, 비서울 소재 출신의 지역 작곡가는 더더욱 음악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 자신에 맞는 작곡 영역을 찾아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 작곡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토속 음악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것을 작곡어법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곡 언어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작곡 영역도 개척해야 한다.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작곡 영역을 어설피게 쫓아가서는 승산이 없다. 물론 습작 과정에서는 모든 영역의 창작곡을 다 공부해야겠지만, 그 과정이 끝나면 자신만의 작곡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클래식 기타 작곡의 경우 완전히 블루오션이다. 현재, 이 분야는 유학파이건 국내파이건, 또 서울소재 대학 출신이건 지방소재 대학 출신이건 김명표 외에는 기타곡 전문 작곡가가 없다.(기타곡 전문 작곡가 김명표는 작품의 질에 비해 양이 적은 것이 아쉽고, 또 그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아직은 확실하게 없는 상황이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모차르트나 베토벤도 기타곡은 남기지 않았다.

요한 슈트라우스2세(1825-1899)는 평생 동안 왈츠곡만 썼다.(폴카곡을 포함하여) 그렇지만 온갖 영역의 곡을 다 썼던 전천후 작곡가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비인(Wien)이라는 도시가 왈츠로 먹고 사는 도시가 되었으니 말이다.

가수가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노래가 있듯이, 작곡가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작곡 영역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곡가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작곡 영역을 찾아내야 하는데,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명 작곡가에게 이것은 음악적 생사가 걸려 있는 아주 절박한 음악 과제이다.

라. 바로 눈앞에 있는 악도(樂道)

결론적으로, 속초 작곡가는 가장 속초다운 작곡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오히려 전국구 작곡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서양음악의 아버지라고 평가되고 있는 바흐(J. S. Bach: 1685-1750)도 생존 당시에는 가장 지역적인 작곡가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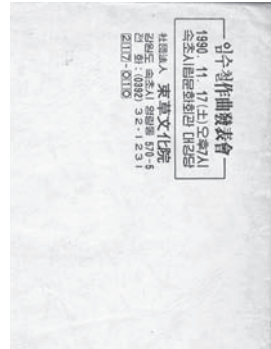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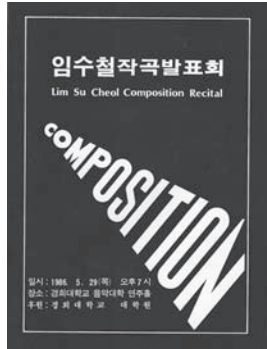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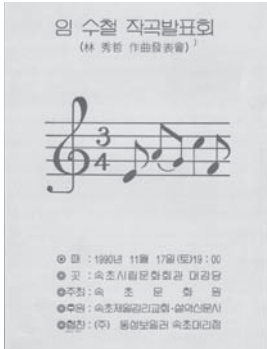
가장 속초다운 음악작품을 위해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속초라는 좁은 공간에 갇히지 않고, 세계를 향한 폭넓은 음악 시야를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작곡가, 바로 이러한 작곡가가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속초 작곡가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작곡가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음악의 경지를 악도(樂道)라고 했을 때, 이 악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숨 쉬고, 활동하고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초 작곡가에게 악도는 바로 속초라는 공간 안에, 좀 더 영역을 넓히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작곡가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악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멀리 있는 곳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음악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혹은 미국 등지로 가서 찾으려 하고 있다. 결국은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주체적인 악도를 찾지 못하고, 서양음악 전도사로 작곡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게 현실이다.

속초 출신 작곡가 중의 한 사람인 필자는, 이러한 음악적 깨달음을 미래의 속초 작곡가들에게 남기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든 속초를 떠난다.



임수철의 음악 흔적들



문화현장

- 문화두레와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편집부
- 실향민문화공연단 '돈돌라리요',
지난 3년의 과정
- 편집부
- 축제모니터링보고서
- 이정무





속초, 문화로 거닐다 2016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두레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인 두레정신을 이어받아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문화 자원을 상호 교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이다

편집부

문화자치를 위한 두 가지 시선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경기도 시흥과 강원도 춘천에서는 주목할만한 문화이벤트가 펼쳐졌다. 10월 28~29일까지 경기도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펼쳐진 '2016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 2016 강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뻘하지 않은 토요일, 뻘(Fun)'이 10월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개최했다. 두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지역의 문화자치를 위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업이었다.

문화두레를 통한 지역의 상생과 비전 제시 '문화두레'

문화두레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인 두레정신을 이어받아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문화 자원을 상호 교류하기 위

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한 문화두레는 문화콘텐츠의 확장을 꾀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된다. 그동안 서울 중심의 중앙집중형 문화 사업을 지방분권의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이다.

이같은 정신에 동조하는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월 20일 경기도 시흥시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문화두레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속초시를 비롯해 시흥, 안산, 광명, 부천, 안양, 화성, 오산시, 양평군, 서울 도봉구, 양천구, 인천 남구, 광주 서구, 충북 충주시, 제천시,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문화두레 협약에 이어 그 정신을 실현하고 각 지역의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든 행사가 2016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이다. 문화두레제전의 슬로건은 '문화를 더 하자'이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더하면 더욱 즐겁고 재미가 있다는 의미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전국 18개 문화두레 회원단체들이 모여 각기 다른 지역의 색깔을 선보이고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18개 시군 문화원과 예총이 각각 지



역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는 학술행사와 공연, 전시, 체험, 음식 등 총 25개의 무대가 이틀간 펼쳐졌다. 속초시는 속초북청사자놀이팀이 첫날 공연으로 참여했다. 문화홍보관에서는 속초 공연예술과 축제를 홍보했고, 속초북청사자저금통을 무료로 체험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년 연극인이 문화두레 시흥 청년캠프에 참여했고, '아름다운 우리말 자랑대회'에 속초문화원 '돈돌날이' 팀 회원이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했다.

문화두레는 지방정부의 문화분권, 나아가 문화자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속초의 경우 공연예술인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취약한 문화장르는 보다 쉽게 초청할 수 있다. 현재 공연예술에 한정되어 있지만, 예술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같은 공간을 참여 자치단체에서 서로 만든다면 문학과 미술,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속초처럼 예술활동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체천에서 문화두레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의 적극적 참여로 문화두레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축제 '뽀하지 않은 토요일, 뽀(Fun)'

2016 강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뽀하지 않은 토요일, 뽀(Fun)'은 문화예술교육이 한자리에 모여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상상하게 만든 행사였다. 강원도 17개 지역에서 29개의 프로그램이 꿈다락토요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다. 속초는 속초민예총이 '상상탐험대의 예술여행'을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는 3월부터 참가해 온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활동결과를 8개 단체의 공연, 9개 단체의 전시로 발표하고, 14개의 체험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넓은 잔디밭에 펼쳐진 각종 체험과 공연은 아이들에게 문화놀이터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도 체험하는 등 문화선물을 가득 안은 모습이었다. 우리 속초도 이런 축제가 있었다. 영랑호 잔디밭에서 펼

쳐졌던 '화랑영랑축제'이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축제의 중요성은 지역 문화예술발전의 바로미터라는 점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소통과 참여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



문화두레 제전 사투리경연대회에서 참가해 금상을 받은 속초팀. 가운데는 사회를 맡은 개그맨 정중철

성을 향상시켜 준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장려하는 형편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감상의 폭을 넓히고 문화예술 자생력의 근본이 완성된다. 문화생태계의 중심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은 그중 첫번째이다. 이러한 교육의 장을 한눈에 확인하고 지역 활동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축제는 꼭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백년을 위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 강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뽀하지 않은 토요일, 뽀(Fun)' 행사장 중 체험부스 모습



은빛 언니들이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실향민문화공연단 ‘돈돌라리요’ - 지난 3년의 과정

‘돈돌라리’는 함경남도의 부녀자들이
바닷가나 강변 또는 산에 모여서 춤을 추고 놀면서 부르던 춤과 노래로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편집부

올해 처음 전국실향민문화축제를 치른 실향민문화 도시 속초. 이 도시의 대표 실향민문화 콘텐츠는 속초북청사자놀음이 있고, 이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또 다른 콘텐츠는 무엇이 있을까? 2014년부터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가꾸어가고 있는 실향민문화공연단 ‘돈돌라리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돈돌라리’는 함경남도의 부녀자들이 바닷가나 강변 또는 산에 모여서 춤을 추고 놀면서 부르던 춤과 노래로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북청군에서는 한식 다음날 각 마을의 부녀자들이 남대천 강가나 속후의 모래산에 모여 달래를 캐며 지내다가, 오후가 되면 춤을 추며 노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놀이를 달래터 놀이라고 하였고, 여기에서 추는 춤을 달래춤이라고 하였다. 이 놀이 중 가장 많이 불렀던 민요가 돈돌라리이다. 돈돌라리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중에 부른 노래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돈돌라리의 돈돌은 돌고 돈다는 뜻. 그리고 돌고 돈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로서 일제가 물러가고, 식민지가 된 조국도 해방되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밖에 돈돌을 동틀로 이해하여 어둠이 가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북청지방 사람들은 이 곡을 ‘해방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명절날이나 모임

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놀았다. 이러한 풍습은 6.25전쟁 이후 월남한 함경도 실향민들이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잔치나 체육대회 등 행사가 있을 때 불리었다. 하지만 1세대들이 돌아가시며 현재 우리지역에서의 명맥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다 2011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 대표 공연작품으로 속초북청사자놀음을 선보였고, 그때 돈돌라리를 함께 공연에 참여시킨 것이 실향민문화공연단의 첫 걸음이 되었다.

속초문화원이 양성하고 있는 공연단 ‘돈돌라리요’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다. 2013년 강원문화대축전 종료 후 어르신들의 활동의지와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의 복원이란 문화원의 사명,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 김민희 강사의 노력이 합쳐져 2014년 처음 15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공연단을 구성했다. 돈돌라리를 비롯한 전갑습타령, 미나리꽃, 라리라라파 등 함경도 지역 민요와 율동을 바탕으로한 작품은 지역사회와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4년 공연 및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연활동

활동일시		활동장소	행사장소
1회	6월 25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6.25 실향민 체험행사 초청공연
2회	7월 26일		속초시립박물관 아간개장 초청공연
3회	8월 8일		속초시립박물관 아간개장 초청공연
4회	8월 15일		속초시립박물관 아간개장 초청공연
5회	9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2014 강원도권역 어르신문화축제 공연
6회	9월 24일	속초시립박물관	2014 어르신문화대축제 공연
7회	10월 11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제49회 설악문화제 시민문화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8회	10월 18일	속초등대	속초민예총 주관 등대축제 초청공연

공연단 관련 언론보도

- 언론보도 6회
- 라디오 방송 1회(강릉MBC 라디오 세상보기)
- 지방방송 1회(강릉MBC 강원365)

2014년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15년 공연단은 문화자원봉사, 지역사회와 연계 등 활동을 다각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청호동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청호동사무소에서 돈돌라리 무용반을 운영, 그 결과 당해 년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에 우승한 것은 지역사회 협력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이외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지역축제 초청공연 등 아홉 번 공연과 일곱 차례 언론보도는 공연단의



입지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6년 공연단은 공연단 인력 육성에 큰 힘을 쏟아 그 결과를 만들어낸 한해라 볼 수 있다. 기존 15명의 공연인력을 총 28명으로 확충, 이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관내·외 행사에 초청되어 다양한 장소에서 실향의 애환을 무용으로 표현하는 작품으로 아래와 같이 공연하였다.

활동일시		활동장소	행사장소	참가자
1	5월 24일	까리따스요양원	까리따스 요양원 공연봉사	6명
2	5월 29일	이사부축제 행사장	삼척 이사부독도축제 초청공연	11명
3	6월 25일	실향민축제 행사장	제회 이북실향민문화축제 초청공연	28명
4	7월 15일	속초시립박물관	박물관 아간개장 고향의 봄 콘서트 초청공연	14명
5	7월 22일			14명
6	7월 23일			14명
7	7월 27일	속초시립박물관	매마수 기념 찾아가는 공연활동	14명
8	7월 30일	속초시립박물관	박물관 아간개장 고향의 봄 콘서트 초청공연	14명
9	8월 6일			14명
10	8월 13일			25명
11	9월 4일	엑스포공원 상설이벤트장	2016 함경남도 도민 한마당 큰잔치 초청공연	14명
12	10월 5일	삼척문화예술회관	2016 어르신문화대축제 초청공연	28명
13	10월 15일	엑스포공원 상징탑광장	2016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초청공연	28명
14	10월 25일	속초시립박물관	KBS여섯시 내고향 방송 촬영을 위한 공연	28명
15	11월 24일	정선강원랜드	2016 강원문화대축전 초청공연	28명

이 같은 결과를 주목한 KBS 6시 내고향 제작팀은 강원도의 가장 바람직한 어르신문화활동가로 선정하여 촬영하게 되었고, 10월 28일 공연단은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생존해 계시는 실향민 1세대들을 찾아가사를 녹취, 속초에서 불렀던 가사와 공연작품 속 가사의 차이점 등을 확인하여 궁극에는 속초만의 돈돌라리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실향민문화공연단 '돈돌라리요'는 지



역 문화원이 지역 시민과 함께 마을의 문화정체성을 생활문화로 만든 사업으로 문화원이 주민자치센터와 속초시립 박물관, 주민과 함께 협력한 점이 돋보인다. 향후, 속초의 문화는 이 같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전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는 것에 맞춰져야 하고, 그럴 때 관광도시 속초의 문화 콘텐츠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은빛 언니들이 만들어 가꾸어가는 지역문화, 시간이 지나며 공연단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인상적인 다른 지역의 축제문화

도심 속 축제를 들여다 보다

우수축제를 모니터링하며 타 축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지역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정무(속초문화원 사업과장)



속초축제위원회에선 설악문화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수축제를 모니터링하며 타 축제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축제의 나아갈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5월 7일 ~ 8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축제 견학을 진행하였다. 기획·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사무국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된 견학단은 '황금연휴에 가길 어딜가' 하는 가족들의 원망어린 눈빛을 받으며 7일(토) 오전 9시 첫 목적지인 안산으로 출발하였다.

인구 70만 대도시 안산에선 잘 정비된 도시 특성을 살려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물론 시민에게 공연의 즐거움과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고자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2005년부터 매년 5월 개최하였다. 거리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구성된 축제는 첫해인 2005년에는 국내외 22개 공연 팀이 참가하였고, 점점 규모가 늘어 올해는 13개국 50개 공연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오후 1시정도에 안산에 도착하여 축제장소를 찾은 견학단은 '올해도 안산 문화광장에서 난리가 나지 말입니다' 등 다양한 홍보 현수막



거리극 축제 참가자



거리극 축제 참가자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고, 축제장소 규모에 깜짝 놀랐다. 축제장인 안산문화광장은 도심 속에 위치한 지역으로 넓은 광장과 숲, 공연장으로 이루어 졌다. 이 광장 주변 약 1.2KM 구간의 양쪽 차선을 막고 8개의 구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작품들은 주로 마임, 아크로바틱, 버벌 등의 시각적 효과가 높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여러 장소에서 함께 공연이 진행되었지만, 음향이 크게 겹치지 않아 한 작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시민의 건축' 프로그램



거리극 축제 '시민버전'

눈여겨볼만한 문화체험과 기획프로그램도 많았다. 시민의 건축 프로그램은 포장박스로 미로를 만들어 전시하여 미학적인 면과 체험 공간의 요소 두 가지 모두 공유하는 전시물이었다. 특히, 이 축제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프로그램은 거리극 축제 '시민버전'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 문화동아리들이 자신의 끼를 펼쳐 보이는 자리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전 축제장에서 동시에 댄스, 치어리딩 등 공연과 켈러그래피 등의 문화체험을 진행하였다. 축제관람 시간 중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여 일탈을 즐겼고, 학생 스스로 축제 축에서 제공해준 공간과 시간을 준수하며 원활하게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플라스틱 칼라박스와 이색적인 천을 활용한 공간구성으로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쉼, 만남과 소통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놀이터와 다양한 공공미술 포토존도 특색 있는 아이템이었다.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과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위원들과 함께 쉬며 이 축제는 어떠한지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저녁 6시, 우리들은 점심에 이어 저녁식사로 휴게실에서 먹으며 대구로 이동하였다.(개인적으로 천안휴게소 갈 국수가 제일이었다는...^^)



8일 아침 소방차 활용 행사장 정비 모습



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되는 동성로축제 입구

행사장 근처 숙소에서 여독을 풀고 이제 2일차 모니터링 시작. 오전에 찾은 행사장은 8차선의 행한 도로에 소방차

가 이동하며 물청소하는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다.

횡한 거리를 스케치 하며 또 한번 대도시의 위엄에 놀랐다. 8차선이라 어떠한 규모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행사장과 잘 정돈된 숲과 문화행사장이 잘 조성된 두 개의 공원을 보며 '우리지역에도 이러한 규모의 하드웨어가 있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부럽다~' 등의 다양한 망상을 하며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김광석 길 입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제작과정을 보여준 포토존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30분간 헤매며 도착한 곳은 '김광석 길'이다. 김광석 길은 우리들의 영원한 가객 故김광석이 살았던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거리로 2009년 11팀의 작가들이 뭉쳐 조성하여 현재 대구시 대표 관광명소로 발돋움한 대표적인 문화예술거리이다. 350m정도의 벽면을 따라 그려진 그림을 보며 웃으며 사진 찍는 위원들을 보며, 이야기와 공감이 있는 문화콘텐츠의 위력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길 옆에 조성된 작은 공연장에서 어느 가수가 부르는 김광석 노래, 주변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아트갤러리는 나의 감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만 포커스가 집중된 듯 보이는 주변 상권과 생각보다 활성화가 되지 못해 보이는 방천시장의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여담이지만 나중에 방천시장의 모습에 실망한 모습을 주변에 말씀드리자, '우리지역 시장모습에 이곳을 투영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김광석길이 없었으면 현재 방천시장은 사라졌을 수도있었다.' 등의 위원들의 말을 들으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규모에 매몰되어 사고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하였다)



김광석 길 주변 공연장



방천시장 내아트갤러리 및 소공연장

김광석 길을 뒤로하고 축제 스케치를 위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1982년부터 개최했던 시민축제인 '달구벌축제'가 2002년에 중단되고, 다채롭고, 젊고, 활기찬 대구시를 표방하기 위해 축제 이름을 '컬러풀대구페스티벌'로 하고 현재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모디라~ 컬러풀! 마카다~ 퍼레이드!'란 슬로건으

로 5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이틀간 국채보상로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퍼레이드, 분필아트, 거리예술축제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 견학단은 저녁6시 퍼레이드 전까지 개별적으로 주변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공연프로그램은 안산과 비슷하게 행사장 내 5개 구역에서 동시에 이루어 졌다. 지역문화동아리, 해외 공연단 등의 공연은 안산거리극축제 정도의 퀄리티와 진행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각각 공연장이 독립적으로 원만히 이루어 졌다.

이 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예술장터 플라마켓’과 ‘서문 야시장’, ‘컬러풀 이벤트’ 등이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실시하는 예술장터 플라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일반적인 아트마켓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벤트로 한두 차례 여는 우리지역과 달리, 매주 주말에 방문객과 만나고 주변 야외공연장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점 등은 우리지역에서 배워볼만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2.28기념 중앙공원에는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엽서 우체통, 야외 간의 도서관 등 소소한 문화공간이 공원 내에 상주되어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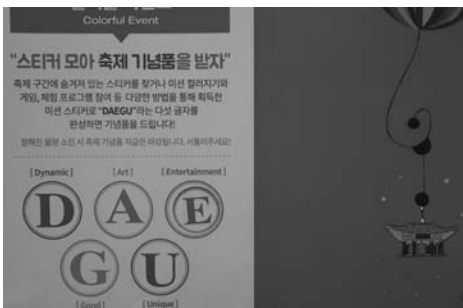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엽서 우체통



서문시장 야시장

이어 서문야시장은 서문시장 먹거리 마켓으로 부산 부평깡통시장 야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 30여개의 매대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야시장은 납작만두를 비롯한 대구 10미와 간단한 야식거리를 제공하는 마켓으로 다양하고 위생적인 먹거리와 예쁜 디자인의 매대가 관람객들의 반응을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축제구간에 숨겨져 있는 스티커를 찾거나 미션 수행,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션 스티커를 획득하면 기념품을 주는 ‘컬러풀 이벤트’, 축제 대표 문화이벤트인 ‘분필아트’ 등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들이라 생각했다.



컬러풀 이벤트 미션지



분필로 그림 그리는 아이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컬러풀 퍼레이드 본선 관람만이 남았다. 퍼레이드는 공통, 일반부, 대학부 등 7개 부분으로 나누어 퍼레이드 경연을 진행, 우승팀은 최대 3,000만원의 상금을 받는 행사다. 7일 저녁 예선을 진행, 우리는



오후 6시 55개 팀이 벌이는 본선을 관람할 계획으로 오후 5시부터 심사장 인근에 자리를 잡아 경연을 볼 준비를 하였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7시에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치부 어린이와 가족부터 전통연희까지 다양한 세대가 펼치는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우선 소감부터 얘기하자면 ‘조금 실망스럽다’이다. 본선 55개 팀의 다양한 컨셉의 퍼포먼스와 재기 넘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모습은 좋았지만 퍼포먼스 없이 퍼레이드를 진행하다 심사석 부근에서만 모든 것을 보여주는 팀, 창의적 아이디어와 학과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고만고만한 모습만 보여주는 대학팀, 거리예술공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와 똑같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공연팀, 팀 간 격차이로 인해 흥이 끊기는 모습, 어떤 말을 하는 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회자의 진행 등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것 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퍼레이드 관람 후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중·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퍼레이드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관내 공공기관에서 기



대구지하철공사



대구 소방서

관만의 특성을 살린 퍼레이드, 퍼레이드를 통한 관내·외 축제·관광지 및 공연 홍보 등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가장 공감 많이 된 의견은 우리가 결코 퍼레이드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보완

할 점이 많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잘 바꾸어 간다면, 많은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축제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1박2일간 찾아본 축제들에 대해 정리하다보니 그 행사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공통점 하나를 알 수 있었다. 다른 많은 성공요인이 있겠지만 위원들 대부분 지역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원봉사자의 관리에 있다고 보았다. 우리지역은 대학이 없기에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축제장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나게 놀 수 있는 마당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관리는 위 축제들을 벤치마킹해야할 필요가 있다. 안산은 ‘자원활동가’, 대구는 ‘컬러지기’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리더팀, 진행팀, 안내팀 등으로 활동분야를 구분. 역할 별로 집중교육 후 행사장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할 일을 확실히 숙지할 수 있어 여러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도 지체되는 것 없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특히, 안산은 역할별로 활동가 티셔츠 색을 달리하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설악문화제 행사를 함께하다보면 매년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도 올해부터 위 행사처럼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자발적 봉사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실천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행사를 스케치하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 받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는 행위들이 반복되는 견학이었다. 처음이서 그런가? 가감 없이 의견을 표출하고 수용하는 위원들의 모습을 보며 성과가 크게 도출되지 않아도 성공한 견학이었고 이러한 활동은 매년 정례화 해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견학의 결과물이 올해 설악문화제 행사에 변화의 주체로 다가갈지, 아니면 참여 위원들의 머리속에만 남게 될 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설악문화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동향

2016 속초 문화예술 해적이

'2015 속초문화예술 해적이'는 설악신문의 문화면을 요약하여
지난 1년 간 속초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속초문화 365'와 함께 지역문화예술계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두만강의 풍광, 애환 담은 사진전

속초에서 두만강의 풍광과 애환을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속초민예총 사진협회는 1월 15~17일 3일간 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훈춘촬영가협회 이철송(사진)씨의 개인 초청전 '두만강의 추억'을 연다

속초문화원 김은중 과장 문화부장관상

속초문화원 김은중 과장이 1월 6일 2015 문화이모작 우수 기획사업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5 문화이모작 기획사업으로 '세대공감 도문밥상 마당이 토크'를 진행해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세대공감 도문밥상 마당이 토크'는 속초 유일의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 속초도문농요보존회 회원들과 설악초등학교 전교생 37명이 참여한 농요 전시 프로그램이다.

설악문화센터, 새로운 미래 여는 음악회

설악문화센터가 2016년 새해를 여는 첫 음악회로 속초 출신 고등학생들의 연주무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음악

회(NEW YEAR'S CONCERT)가 1월 22일 오후 7시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 공연장에서 열린다.

RUN갯마당 창단 25년만에 첫음반 발매

전통예술 국악단체 (유)RUN갯마당(대표 최종현)이 창단 25년만에 첫음반(CD)을 발매했다.

RUN갯마당은 "그간 만들고 연주한 음악들 중 단원들의 의견을 모아 엄선된 곡들을 담은 첫 음반 '런 갯마당 1st RUNNING'을 제작해 2016년 새해에 내놓았다"고 밝혔다.

속초관광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속초시립박물관이 1월 16일부터 제15회 속초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열고 있다. 다음달 28일까지 기획전 시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총 60점이 전시된다.

“설날, 속초시립박물관으로 오세요”

속초시립박물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설날 당일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윷놀이, 널뛰기, 굴렁쇠 굴리기, 죽마타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과 2016년 붉은 원숭이띠의 해를 맞아 원숭이띠 관람객들은 무료입

장이 가능하다.

남상진 속초예총 연극협회장 재임

속초예총 연극협회 회장에 남상진(사진) 현 회장이 재임됐다. 임기는 3년. 연극협회는 1월 25일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어 남상진 현 회장을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은 김일태(극단 청봉)·석경환(파·람·불) 씨가, 사무국장은 김수정(청봉)씨, 사무과장은 임수아(소울시어터) 씨가 선임됐다.

속초시립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최우수

속초시립박물관(관장 이상수)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한 ‘2015년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월 25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새 집행부 구성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가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는 1월 30일 오후 6시30분 설악동 지부 사무실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어 김성학 초대 지부장을 제5대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부지부장에는 임흥빈·김정희 작가가, 사무국장은 정규 작가가, 감사는 신태진·황병진 작가가 각각 선임됐다. 임기는 3년.

2월

속초문화원 기관지 ‘속초문화 31호’ 발간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기관지 <속초문화 31호>를 발간했다.

<속초문화 31호>에는 속초문화원의 지난 한 해 사업을 정리한 ‘속초문화 365’를 비롯해 제4회 장릉사진공모전 수상 작품들이 실렸다. 특집으로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의 연구논문 ‘속초지역 아리랑 전승현황’과 정상철 향토사 연구위원의 향토사 논문 ‘청초호의 정자’가 게재됐다. 이와 함께 문화논단으로 설악문화제 50년과 속초민예총 20년 등 지역축제와 문화예술단체의 역사를 정리했고, 2015년 속초문화원 문화

예술교육 내용도 정리해 실었다.

속초 3개 극단 사상 첫 연합무대 만든다

속초지역 3개 극단이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해 무대에 오른다. 속초예총 연극협회 소속 극단 청봉(대표 최은희)과 파·람·불(대표 석경환), 소울시어터(대표 남호섭)는 4월 황성군에서 열리는 제32회 강원연극제에 연합극단으로 참가한다. 작품은 극작가 이반 전 속초예총 회장의 희곡 ‘카운터 포인트(소현세자의 흔적과 표적)’. 조선의 제16대 왕인 인조와 병자호란 후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귀국해 갑자기 죽음을 맞은 소현세자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속초시립박물관 ‘10년 발자취’ 발간

속초시립박물관(관장 이상수)의 개관 준비부터 이후 운영까지 모든 것을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시립박물관은 최근 자료집 ‘속초시민과 함께 한, 속초시립박물관 10년의 발자취’를 발간했다. 2005년 11월 4일 개관한 시립박물관은 지난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자료집 발간을 준비해 왔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 풍성

제34회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2월 22일 각 시·군에서 개최된다. 속초시와 문화원은 이날 오후 3~8시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과 엑스포상장탑 광장에서 제34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를 연다.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는 이에 앞서 21일 오후 6시 청호동 일대에서, 22일 오전 10시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을 연다.

“짧은 시로 시의 참맛을 느껴요”

경동대 중등특수교육학과 이만식(사진, 교양교육대학장) 교수가 첫 시집을 발간했다. 일본 하이쿠 시(5-7-5의 음절로 이뤄진 한줄짜리 정형시)에 못지않은 짧은 시를 담은 <하늘도 그들이 필요해>란 시집이다.

채재순 제7대 속초문인협회 지회장

채재순(52, 오호초교 교감) 시인이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제7대 지회장에 선임됐다. 채 신인 지회장은 2월 22일 “문인협회 회원들은 물론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문학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향토문화학교 24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올해 향토문화학교는 고전무용 기초(15명), 노래교실(50명), 민요교실(20명), 서예교실(25명), 장구교실(15명), 사물중급(장구 1년 수료생 20명), 한지공예(20명) 등 7개 강좌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속초축제위원 모집

속초축제위원회는 설악문화제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기획, 운영하는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속초축제위원회 기획위원·운영위원·일반위원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속초시 거주자 및 소재 기관 단체, 속초시 출향인사로서 축제운영 경험자 또는 문화·예술 및 시민활동가다.

속초 문화예술단체들 2016 정기총회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은 2월 22일 오전 11시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어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은 25일 오전 11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호)은 29일 오후 6시30분 문화사랑방에서 2016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결정한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군별로 ‘201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연예술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2월 29일까지, 고성군은 3월 4일까지 신청받는다. 모집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국악 4개 분야의 공연예술단체로 신청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공연단체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50년사’ 발간...65년 개원 / “지역문화 뿌리.과정 가름”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최근 문화원의 성장과정과 지역 문화의 발자취를 정리한 <속초문화원 50년사>를 발간했다. 속초문화원은 지난 1965년 3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그해 7월 10일 개원, 지난해 50번째 생일을 맞았다. <속초문화원 50년사>는 회원 및 전국 문화원에 배부된다.

문화원마다 올해도 향토문화 상차림 ‘푸짐’

지역 문화원들이 2016년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은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3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올해는 차별화된 지역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향토문화 아카이빙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속초시립합창단원 3월 4일까지 모집

속초시는 3월 4일까지 참신하고 재능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2월 22일)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55세 이하(1961년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시립박물관 ‘무료’

속초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시립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인의 밤’ 개최...‘예술인공원’ 추진

속초예총 2016 정기총회...사업안 의결 / 제27회 종합예술제, 도민체전 기념행사로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이 올해 처음으로 ‘속초예술인의 밤’을 개최하고, 가칭 ‘속초예술인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전산화

속초시립박물관이 ‘2016 박물관 유물DB화 사업’과 ‘2016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공모한 ‘박물관 유물DB화사업’으로 2,800만원을 지원받아 박물관 소장유물(9,855점) 전산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악권 곳곳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2월 22일 각 시·군에서 열려 새해 지역발전과 풍농풍어를 기원했다. 속초시와 문화원은 이날 오후 3~8시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과 엑스포상징탑 광장에서 제34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를 열었

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오후 3시부터 널뛰기,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동별 민속경연대회와 지역예술인 및 단체의 축하공연, 전통문화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 경연제 도입”

제51회 설악문화제가 9월 24~25일(산악페스티벌)과 10월 7~9일(거리페스티벌) 개최된다. (사)속초축제위원회(이사장 백영철)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51회 설악문화제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속초민예총 김원기 음악협회장

속초민예총 김원기 음악협회장과 고인선 문학협회 회원이 강원문화예술 진흥과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표창 수여식은 2월 26일 춘천 강원웨딩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원민예총 제4차 정기총회 및 2016 강원민족예술인대회에서 진행됐다.

3월

문화예술 통한 ‘도심재생’ 추진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호)은 올해 예술을 통한 도심재생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속초민예총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0분 문화원 사랑방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변화하는 지역모습 사진으로 남겨요”

지역과 마을의 가치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속초 사진문화 아카이브가 함께 활동할 회원을 모집한다. 속초사진아카이브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지역 문화거점으로 활용”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이 속초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과 속초도문농요보존회(회장 오순석)는 3월 8일 도문농요전수관에서 전

수관 운영회의를 열어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김인섭 문화원 사무국장은 “도문농요전수관을 개방해 지역 문화재와 마을, 지역예술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속초아리랑보존회와 예총 연극협회, 민예총 꿈다락토요문화학교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공연단, 문화나눔봉사단 운영

속초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사업’과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사업’이 선정돼 공연단과 봉사단을 운영한다.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사업은 지역 노인들이 문화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공연 보고 엄색체험 즐겨요”

국립산악박물관(관장 박종민)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문화공연 ‘山樂! 산에서 즐기다’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3월 19일 오후 2시 창작집단 ‘탈무드’의 재담 놀이극 ‘재주 많은 세 친구’를 공연했다. 이어 오는 5월과 9월, 12월에도 문화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

런갯마당, 올해도 속초문화회관 ‘들썩’

속초시가 강원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공연예술단체인 사회적기업 (유)‘런갯마당’과 함께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에 따라 ‘런갯마당’은 창작 작품 2개, 레파토리 작품 4개 등 총 6개 작품을 공연한다.

속초서 전국 실향민들 만난다

제회 전국 이북실향민 문화축제가 6월 24~25일 이틀간 속초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에서 열린다. 이북실향민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3월 16일 오후 2시 시립박물관 강당에서 회의를 열어 제회 전국 이북 실향민 문화축제 일정과 장소, 축제 프로그램 등을 확정했다.

“모차르트와 함께 새봄을 맞으세요”

“너희의 운명의 꽃의 계절을 사랑하는 것!”(모차르트 가곡 ‘

철새' 중에서) 서울예술가국연구회(회장 이정희)는 3월 25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가곡 연주회 '모차르트와 함께 오는 봄'을 개최한다.

속초예총 국악협회, 훈춘시예술단 연수교류

사)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정봉재) 국악협회 속초지부와 중국 훈춘시예술단의 2016년 전통문화예술 교류캠프가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훈춘 현지에서 진행됐다. 속초예총은 지난해 8월 제1회 훈춘청소년문예대회와 항일70주년 기념 동북아 평화공연을 위해 훈춘시를 방문, 국악협회와 훈춘시예술단의 문화연수와 교류를 약속했었다

청호동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 선정

속초시 청호동이 공공미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16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예술의 정원' 부문에 '아트플랫폼 갯배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고 3월 23일 밝혔다.

'로프 카라비너 동료' 기획전 / 국립산악박물관 5월 29일까지

국립산악박물관(관장 박종민)이 산악인들의 끈끈한 동료애와 등산장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획전 '로프 카라비너 동료'를 연다. '로프 카라비너 동료' 기획전은 3월 22일 개막, 오는 5월 29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실에서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

4월

청봉사진회 강원진로교육원서 전시회

청봉사진회(회장 장창근)가 4월 1일 개원식을 연 강원진로교육원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진로교육원 갤러리의 첫 전시회다. 청봉사진회는 이번 전시회에 모두 14점을 전시했으며, 전시회를 마친 뒤 진로교육원에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다.

속초시립합창단 4일 위촉식

속초시립합창단이 올해 활동할 단원 구성을 마치고 공연 준비에 들어갔다. 속초시는 지난 2월 지휘자 황영승 씨와 반주자 김수경 씨를 선임한데 이어, 3월 18일 실기전형을 거쳐 신입단원 1명을 뽑았다. 기존 단원 가운데 24명은 평정을 거쳐 재선발했다.

속초 가족밴드 '원니스' 경포 벚꽃축제 공연

속초 가족밴드 '원니스(oneness)'가 4월 9일 오후 3시 강릉 경포대 벚꽃축제 무대에 선다.

원니스는 지역에서 30여년간 음악활동을 해온 '엄계록 기타 스토리' 원장 엄계록 씨가 부인과 아들 2명과 함께 지난 2014년 1월 결성한 가족밴드다.

"올해 예술축전 테마는 속초 8경"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호)이 '2016 예술축전-속초8경 페스티벌'을 연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속초 8경 그림그리기'와 '사진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그림은 속초 8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듣거나 속초 8경의 사진을 찍은 후 그리면 된다. 1인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사진 일기는 속초 8경을 배경으로 가족과 친구,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함께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일기로 기록하면 된다.

'속초등대에서 바다를 보다' 공연

2016년 등대해양문화공간 4월 공연 '속초등대에서 바다를 보다'가 23일 오후 3시 속초등대 상설무대에서 열린다. '속초등대 3시의 희망가란' 주제로 열리는 4월 공연은 지난해 공중파 방송에 출연 후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속초지역 트로트가수 김현미와 싱어송라이터 박강수의 무대로 꾸며진다.

속초연합팀 제33회 강원연극제 대상

4월 4~11일 황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3회 강원연극제에서 속초연합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황성에 가면'이라는 주제로 도내 8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속초연합팀은 무대 예술상과 희곡상도 수상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속초, 장구경 가세' 공연

속초아리랑보존회(회장 김부영)가 4월 14일 오후 2시30분 반

야요양원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속초, 장구경 가세' 공연을 펼쳤다. 이날 아리랑보존회는 '속초아리랑'을 공연한 후 국악 뮤지컬 '속초, 장구경 가세'를 무대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가수 '어필'이 노인들과 함께 노래 공연을 펼쳤다.

속초시립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개강

속초시립박물관이 4월 15일 향토문화교육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을 개강했다. '길 위의 인문학'은 속초의 실향민문화와 이북민속문화를 주제로 관내 초등 5학년과 중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시립박물관 내에서 진행된다.

속초문화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행

속초문화원이 3월부터 '국악이랑 놀자'라는 주제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청호초교 북청사자놀음을 비롯해 속초초 취타대, 청봉초 창곡, 온정초 도리원농악, 설악초 속초도문농요, 대포초 국악관현악이 학교별로 진행된다.

RUN갯마당 첫 소극장 공연 'RUN&TALK- ㄱ' 관람기 / 관객과 하나 되는 소극장의 매력

(유)RUN갯마당이 지난달 4월 30일 오후 7시 첫 소극장 공연 'RUN&TALK- ㄱ'을 속초 고통 소극장 '공간'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은 티켓 예약판매와 현장판매로 '공간'의 관객석이 빈곳 없이 알맞게 들어찼다.

속초시 등 18개 지자체 문화품앗이

속초시를 비롯한 전국의 18개 지자체가 품앗이 방식으로 문화예술자원의 교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들 지자체는 4월 20일 경기도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지방정부 문화드레' 창립총회를 열었다.

5월

“속초도서관서 웹툰작가 꿈 키우세요”

속초교육도서관(관장 탁기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웹툰

창작체험관을 조성해 운영한다.

속초교육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웹툰창작체험관조성사업에 선정돼, 5월부터 장비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가 오는 여름방학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토샵·웹툰 수업을 진행한다.

고 최명길 시인 시비 제막식

고 최명길 시인의 시비 제막식이 5월 7일 오후 3시 속초 영랑호반길 습지생태공원 앞에서 열린다. 시비에는 고 최 시인의 대표 시인 '회접사'가 실린다. 최명길시비건립추진위원회와 후산최명길시인선양회가 함께 여는 시비 제막식에는 최동호 한국시인협회장과 지역 문인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중진 시인 및 평론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소리꾼 남상일 속초 공연

각종 방송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소리꾼 남상일이 5월 10일 속초에서 공연을 펼친다. 남상일은 이날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016년 전국문화순회 기획공연으로 여는 '당신을 위한 노래' 무대에 민속악회 '수리'와 함께 오른다.

설악문화제 사업, 속초축제 아이디어 공모

속초축제위원회가 제51회 설악문화제 사업 및 속초축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설악문화제 사업은 5월 27일까지 접수받으며, 공모분야는 기획행사, 각종 전시체험,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공연예술단체) 등이다.

설악문화센터 월 2회 음악감상회

설악문화센터가 한 달에 두 번씩 특정 테마의 음악을 정해 음반으로 감상하는 '테마 인 카페소리'를 연다. 5월의 음악감상 테마는 '팝페라(popera)'로 설악문화센터는 14일 2층 '카페소리'에서 세계적인 팝페라 남녀 가수인 '안드레안 보첼리'와 '헤일리 웨스트라' 등의 노래로 첫 음악감상 자리를 열었다.

고 최명길 시인 시비 제막

지난 2014년 5월 4일 75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 최명길 시인의 시비가 영랑호변에 세워졌다. 시비에는 시인이 36살에 꽃

과 나비를 노래한 시 '화접사'가 실렸다.

런 갯마당 25일 '속초의 꿈' 공연

(유)런 갯마당이 5월 25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16 강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첫 번째 우수 레퍼토리 공연 <속초의 꿈>을 공연한다. <속초의 꿈>은 실향민들과 삼도 사람들이 고기잡이의 호황을 따라 모여 들어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과 번영을 거듭하면서, 실향과 이산의 아픔, 가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100년의 미래를 꿈꾸는 과정을 국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설악윈드오케스트라.속초시립합창단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어우러지는 다문화 가족사랑 음악회가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다문화가정과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설악윈드오케스트라가 속초시립합창단, 속초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센터와 함께 연다.

제33회 강원연극제 대상 수상작 '카운터 포인트' 27일 속초 공연

제33회 강원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속초극단 연합팀의 '카운터포인트-소현서자, 흔적과 표적'(이반 작, 변유정 연출)가 속초 무대에 오른다. 속초연극협회(회장 남상진)는 5월 27일 오후 4시와 7시에 속초문화회관에서 '카운터포인트'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의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및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기념으로 열린다.

속초등대 5월 공연...바다의 날 특집

2016년 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 '속초등대에서 바다를 보다' 5월 공연이 바다의 날 특집으로 28일 오후 3시부터 속초등대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속초등대 5월 공연은 퓨전국악팀 '미향'의 연주와 포텐의 팝핀댄스, 동백의 전통무용, 속초의 싱어송라이터로 6월 미국 공연을 앞둔 MC수 공연, 설악드림팝스의 색소폰 연주 순으로 진행된다

속초민예총 28일 시낭송대회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호)이 '2016 예술축전-속초8경 페스티벌'을 5월 21일 개최한데 이어, 28일 오후 2시 상도문 학무

정에서 민예총 문학협회(회장 최동훈) 주관으로 시낭송대회를 연다. 시낭송대회는 시낭송과 함께 시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지며, 시낭송 경연에 참가한 전원에게 시집을 선사할 계획이다.

설악학생.주부 백일장 27일 개최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의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행사인 27회 설악학생 및 22회 설악주부 백일장이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초호유원지 분수대 광장에서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지회장 채재순) 주관으로 열린다.

강원파라미터 문화재지킴이 활동 시작

강원불교 청소년단체인 강원파라미터 청소년연합회(회장 정념스님)가 5월 21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2016년 발대식을 열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 및 한마음 운동회에는 500여명의 학생들과 5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문화재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청소년 가요, 록, 댄스 페스티벌

동광산업과학고 댄스팀 '인빈시블'과 속초고 댄스팀 '연골'이 5월 21일 오후 7시 원주 따뚜공연장에서 열린 '제20회 청소년 가요·록·댄스 페스티벌'에서 각각 대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기 수강생 모집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호)이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상상 탐험대의 신나는 예술여행'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예술+생태=놀이'라는 취지로 열리는 2016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목공, 공예, 디자인, 환경조각, 미술로 보는 인문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와 예술은 '하나'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의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가 6월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진행된다. '모두가 함께 하는 속초 예술'이라는 주제로 8개 협회(문인·미술·연극·음악·국악·사진작가·무용·연예예술인)가 주관하는 속초종합예술제는 공연, 경연, 전시 등 13개의 행사가 펼쳐진다

6월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 내년에 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회장 김성하)가 내년에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는 6월 1일 오후 6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2016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니스합창단 속초분원.연길시문화관

제니스합창단 속초분원(단장 김봉수)이 한·중 문화예술 교류에 나선다. 합창단은 9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를 방문해 공연을 열고, 연길시 문화관과 '한중 예술 교류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연길시문화관 예술단이 속초를 방문해 공연을 연다.

연극 '가족입니다' 속초 공연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6월 17일 속초를 찾는다.

극단 '웃어'가 이날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족입니다>를 공연한다.

속초예총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이 6월 8일 오후 7시 30분 엑스포장 상징탑 광장에서 이병선 시장과 김진기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을 열었다.

신흥사 전통문화축제, 사생대회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주지 법검 우송스님)가 6월 19일 제6회 설악산 전통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 및 국립공원사랑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설악산 신흥사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는 18~19일 이틀간 종합운동장 등지에서 열린다

“토요일 밤엔 대포항으로 오세요”

“속초 대포항에서 공연도 보고 프로포즈도 해보세요.” ‘2016 대포 夜 사랑 海 콘서트’가 6월 18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대포항 친수호안에서 9회에 걸쳐 진행된다.

금강장애인복지센터서 국악 공연

국악창작그룹 '자락'(대표 최종환)이 6월 30일 오후 3시 신흥사복지재단 금강장애인복지센터에서 공연을 펼친다. '체온 + 1°'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장애인문화예술향유사업을 통해 장애인들과 사랑의 온기를 주고받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북실향민 문화축제 '피난행렬 퍼포먼스' 24일에

제1회 전국 이북실향민 문화축제의 피난행렬 퍼포먼스가 6월 24일로 변경돼 개최된다. 피난행렬 퍼포먼스는 이날 오후 1~2시경(미정)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출발해 갯배~설악대교~속초수협~행사장에 이르는 구간에서 진행된다.

설악문화센터 6월 '테마 인 카페소리'는 '재즈'

설악문화센터가 6월의 '테마 인 카페소리'로 재즈음악을 마련했다. 25일 오후 4시 2층 카페소리에서 뉴올리언즈 재즈(엘라 핏츠제럴드 & 루이 암스트롱)와 빅밴드&스윙 재즈(멀그루 밀러, 클루버스 빅 밴드)를 감상한다.

속초민예총, 먹거리 페스티벌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호)이 6월 11~12일 이틀간 교동 먹거리촌에서 2016 강원도민체전을 기념해 '세상의 모든 음식,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주제로 속초 먹거리 페스티벌을 열었다.

등단 40년 이상국 시인 출판기념회

이상국 시인의 신작 시집 <달은 아직 그 달이다>(창작과 비평) 출판기념회가 6월 29일 저녁 6시 30분 문화공간 '다량'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올해 등단 40년을 맞은 이상국 시인의 신작시집 <달은 아직 그 달이다>의 출판을 기념하고, 지역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런 갯마당 '울산에서 왔잖니!' 공연

(유)런 갯마당이 6월 29일 저녁 7시30분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2016 강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첫 번째 창작공연 '울산에서 왔잖니!'를 선보인다. '울산에서 왔잖니!'는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 울산에서 떠났다가 설악산에 머물게 된 울산바위 전설을 국악연주와 그림자인형극으로 표현한다.

속초극단 연합팀 '카운터포인트'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 '금상'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속초연합팀의 '카운터포인트'(이반 작, 변유정 연출)가 금상과 무대예술상(김일태)을 수상했다. 6월 22일 충북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 시상식에서 속초연합팀은 금상을 수상, 트로피와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속초청년문화연구회' 회원들 반가운 해후

올해는 '속초청년문화연구회'가 결성된 지 꼭 40년이 되는 해이다. 1976년 20~30대 청년들을 주축으로 창립돼 8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문화예술단체다. 당시 문학, 연극, 미술, 무용, 음악의 5개 분과를 두고 연극공연과 시화전, 시낭송회 등을 열었다.

제1회 전국 이북살향민 문화축제 성황

살향민의 애환과 삶을 주제로 제1회 전국 이북살향민 문화축제가 24~25일 이틀간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축제는 24일 오후 1시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갯배와 설악대교를 거쳐 개막식이 진행되는 청호동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피난행렬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서 연극 공연

6월 26일 저녁 7시, 속초도문농요전수관 강당에서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창작집단 초크24'가 연극 <6월 26일>(연출 장태준)의 공연을 마치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주최하고 속초연극협회(회장 남상진)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상도문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눔행사'로 마련됐다.

속초민예총.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문화예술교류 협약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호)이 (사)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이사

장 여운미)와 6월 29일 문화예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우리나라 및 해외 작가의 문화예술 교류와 국내외 전시회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7월

제2회 훈춘 청소년 문예대회. 합동공연

속초예총(회장 정봉재)과 중국 훈춘시교육국(국장 김승덕)이 주최·주관하는 제2회 훈춘 청소년 문예대회 및 합동공연이 7월 1일부터 3일까지 훈춘시에서 열린다. 훈춘 청소년 백일장은 훈춘시 용원공원에서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훈춘 조선족 학교 학생이 참가해 산문을 작성하게 된다.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7월 4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속초도문농요 아트캠프'와 '영화야 놀자'를 운영한다

극단 파람볼 '전명출 평전' 다시 본다.

지나해 제33회 전국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 파·람·볼(대표 석경환)의 <전명출 평전>(연출 변유정)이 춘천과 속초 무대에 잇따라 오른다. 극단 파·람·볼은 <전명출 평전>을 7월 4~5일(오후 7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16춘천 연극제 초청작으로 공연한다

설악문화센터 임백천 북 콘서트

설악문화센터가 7월 15일 저녁 7시 2층 카페소리에서 가수 겸 방송인 임백천 씨 초청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임백천의 북 콘서트란 제목으로 1시간가량 진행되며 이야기와 음악으로 꾸며진다.

속초예총. 제2회 훈춘시 청소년문예대회 성료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훈춘시를 방문해 제2회 훈춘시 청소년문예대회를 개최했다. 속초예총은 이번 훈춘 청소년문예대회에서 청

소년 백일장과 사생 및 스마트폰 촬영대회를 열고, 부대행사로 훈춘시예술단과 합동공연을 벌였다

설악권문화원연합회 회의...도문농요 공연

속초문화원이 7월 7~8일 도문농요전수관에서 설악권문화원연합회 회의를 개최하고 강원도무형문화재 20호 속초도문농요를 공연했다. 이날 회의는 이경동 한국문화원연합회장과 류종수 도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해 속초·고성·양양·인제·양구 등 설악권 문화원 임직원이 참석해 지역문화발전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속초등대 7월 공연 여름특집으로

2016 속초등대 해양문화 공간 7월 공연이 23일 오후 4시 속초등대 야외공연장에서 여름특집으로 열린다. 7월 공연은 '속초등대 4시 희망가'에 맞게 노래로 희망을 찾는 무대로 혼성 팸페라 '라비도르'가 출연, 80분 동안 이어진다

훈춘서 '미술사와 함께 연극공연'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지부장 남상진) 소속 극단 청봉(대표 최은희)이 7월 2일 중국 훈춘에서 동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사와 함께하는 연극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훈춘시 문화관 4층 강당에서 훈춘시 1·2·3·4소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두 3차례 진행됐다.

국악, 연극, 뮤지컬공연 잇따라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속초에서 7월에 국악과 연극, 뮤지컬 공연이 잇따라 열린다.

(유)런 갯마당이 23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선장'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2016 강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두 번째 우수 레퍼토리로 마련됐다.

속초시립박물관 피서철 야간 무료개장

속초시립박물관이 피서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박물관을 무료 야간개장하고 고향의 밤 콘서트를 연다. 고향의 밤 콘서트는 1, 2부 공연으로 나눠 일정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촌 생활문화 체험하세요"

국립산악박물관(관장 박종민)이 '금강초롱' 설화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체험전 '금강산, 초롱이야기'를 7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앞서 25일 오전 10시 30분 박물관에서 개막식을 연다.

"실향민, 시민, 관광객 함께하는 축제로"

속초시립박물관이 7월 28일 오후 4시 박물관 강당에서 '전국 이북실향민 문화축제 콘텐츠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축제 문제점과 콘텐츠 발굴, 발전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8월

속초교육도서관 '그림에서 인문학 읽기'

속초교육도서관(관장 탁기남)이 '생활 속 인문학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속초교육도서관은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고전, 커피, 미술분야를 강연과 현장탐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악 납량콘서트 '미시감' 공연

(유)런 갯마당이 '2016 강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두 번째 창작공연 국악 납량콘서트 '미시감'을 공연한다. 공연은 8월 24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오후 3시와 7시 30분 2회 진행된다.

상도문마을서 전국 문화원 임직원 연수

속초시 상도문마을에서 8월 22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16 지역문화경영과정'이 개최된다. 참가자는 전국의 문화원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이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 지역문화창작소'라는 주제로 열린다.

노름마치 예술단 19일 대포항 공연

사단법인 노름마치 예술단이 8월 19일 저녁 7시30분 속초 대포항에서 <국악과 비보이 '우리동네 춤잔치'>를 연다. 이번 대포항에서는 길놀이와 판굿, 버나놀이, 심도아리랑 춤잔치 공연하고 창작탈연희 전문예술단체인 꼭두광대의 '왼손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속초문화원, 찾아가는 향토사교육 진행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향토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위스타트 속초마을에는 지난 3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문화예술교육강사가 찾아가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의 결과물을 인형극으로 제작해 2학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토요일 밤마다 대포항이 뜨겁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속초 대포항에서 열리는 '바다별빛 내리는 대포夜 사랑海' 축제가 규모는 작지만 알찬 공연으로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포夜 사랑海' 축제는 매회 지역과 초청공연팀으로 출연진을 꾸려 국악, 전자현악, 가요, 록, 3세계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창작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 공연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가 8월 27일 속초를 찾는다. <총각네 야채가게>는 경기침체, 취업난 등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방황하는 청년에게 꿈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평단과 관객의 호응을 받은 작품이다.

한국시인협회 최명길 시인 시비 답사

한국시인협회 회원들이 속초 영랑호에 있는 최명길 시인의 시비를 답사했다. 최동호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오세영, 신달자, 오정국, 이현승 시인 등 30여명의 시인들은 제18회 만해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8월 12일 오전 10시 영랑호 최명길 시비를 찾아 최 시인의 시 정신을 기렸다.

애니메이션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3' 상영

국립산악박물관(관장 박종민)이 8월 27일 오후 2시 지난해

국내 개봉한 말레이시아 애니메이션 화재작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3'을 상영한다. 국립산악박물관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마운틴 시네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참가단 모집

(사)속초축제위원회(이사장 백영철)는 2016년 제51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메인행사인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할 '시민 퍼레이드단'을 9월 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거리퍼레이드는 '속초는 하나다'라는 주제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5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속초시립박물관 여름행사 성료

속초시립박물관이 여름 피서철과 방학을 맞아 지난 한달 동안 마련한 전시, 체험, 향토문화예술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시립박물관에 따르면 8월 13일 10회 공연으로 막을 내린 '야간개장과 고향의 밤 콘서트'가 피서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국회도서관, 영랑작은도서관에 책 기증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이 8월 29일 오전 속초시 영랑작은도서관에서 열렸다. 국회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아 문화소외지역 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양수 국회의원의 추천으로 영랑작은도서관에 5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연극 '카운터포인트' 대학로 공연

지난 6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속초연합팀의 '카운터포인트'(이반 작, 변유정 연출)가 서울 대학로 무대에 오른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는 8월 31일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페스티벌'을 개막했다

9월

'시각동인'-고명녀.임흥빈.정규.최수홍.이만식

속초시립박물관에서 9월 1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진과 시사

진(포토포엠)으로 구성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올해 결성한 '시각동인(視覺同人)'의 첫 전시회 '5인5색전'. 속초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해안 고명녀·산정 임흥빈·청유 정규·가람 최수홍의 사진과 경동대 교양교육대학장인 이하이만식 시인의 시사진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속초관광 콘텐츠 '사진, 영상' 공모

속초시가 특색있는 관광홍보용 자료 확보를 위해 속초관광 콘텐츠(사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속초를 소재로 한 미발표작으로 2015년 9월 1일 이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속초 수산업, 구 수협 가치 조명 포럼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9월 7일 오후 3시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속초 수산업 역사의 현대적 가치 조명과 구 속초수협'을 주제로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 시와 문화원은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의 일환으로 속초 근대역사의 가치조명을 통해 문화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전문가 포럼을 열기로 했다.

속초시립박물관 관람객 100만명 달성

속초시립박물관이 개장 이래 9월 3일 낮 12시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기록했다. 이날 이병선 시장과 김종희 시의회 의장이 100만번째 입장객인 신홍섭(40, 경기 성남) 씨에게 꽃다발과 이북5도가옥 숙박체험권, 설악산자락 팔색조 박물관 무료입장권, 콘도 숙박권, 놀이시설 이용권을 선물했다.

속초시립풍물단 제9회 정기연주회

속초시립풍물단이 9월 23일 오후 7시 20분 속초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9회 정기연주회 '신명을 끌어올린 만선'(예술총감독·약장 전성호, 협력연출 변유정)을 공연한다. 시립풍물단은 "만선은 "전통상설 공연과 차별화한 속초시 대표작품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런 갯마당 '뭇다핀 꽃' 공연

(유)런 갯마당이 9월 28일 저녁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6 강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세 번

째 우수 레퍼토리 '뭇다핀 꽃'을 공연한다. '뭇다핀 꽃'은 고통과 슬픔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제작한 창작품이다.

속초시립도서관 개관 1년...30만명 이용

속초시립도서관이 9월 22일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4,129명의 회원이 등록하고 누적 이용객수는 26만9,741명에 달한다. 시립도서관은 현재 2만8,959권의 도서와 723권의 전자책,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갖추고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힘쓰고 있다.

실향민 노인/아동, 실향민문화촌 방문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9월 28일 실향민 노인들과 지역아동이 함께하는 '아바이 아마이' 프로그램을 시립박물관 실향민문화촌에서 열었다. 2016년 속초시노인복지기금 1·3세대 통합지원프로그램 '아바이 아마이'는 5월부터 12월까지 박물관 탐방, 북한음식 만들기,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고 이성선 시인을 이야기하다

'제1회 설악문학제'가 고 이성선 시인의 15주기를 맞아 '산과 별과 물의 노래'란 주제로 9월 24일 오후 3시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제51회 설악문화제 산악페스티벌 행사로 설악문화예술포럼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상국 시인의 사회로 문학 강연과 시낭송, 노래공연이 진행됐다.

2016 빛담 여성사진가 5인전

2016 빛담 여성사진가 5인전이 9월 2일부터 강원진로교육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빛담은 '빛에 담는다'란 뜻으로 청봉사진회 회원인 이영숙·문은자·이순재·윤영미·서경숙 씨가 지난해 만든 여성사진가 모임이다.

10월

‘꿈꾸는 사자, 속초를 거닐다’ 공연

제51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기 위한 대표콘텐츠 공연 <꿈꾸는 사자, 속초를 거닐다>가 10월 5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꿈꾸는 사자, 속초를 거닐다’ 공연은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와 속초시립풍물단, 런갯마당, 신천무용단 등 국악 분야 예술인과 변유정 연극연출가가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이다.

원로 연극인들 ‘옹고집전’ 속초 공연

강원도 지역연극을 지키고 이끌어온 원로 연극인들이 출연하는 연극 <옹고집전>이 속초를 찾는다. 사단법인 문화커뮤니티 금토는 10월 11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에서 <옹고집전>을 공연한다.

제51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7일 개막

제51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이 10월 7~9일 설악로데오 거리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은 8일 저녁 7시30분 로데오거리 특설무대에서 시민문화상 시상과 초청가수 공연으로 열린다. 초청가수로 인기가수 금잔디와 홍진영이 출연한다.

속초 떠나는 작곡가 임수철 삶과 음악 이야기

제154회 물소리시낭송회가 10월 16일 오후 3시 설악문화센터 북카페에서 ‘시월에 피는 오동꽃·나팔꽃’이란 주제로 열린다. 특히, 이번 시낭송회에서는 51년 간 살던 속초를 떠나 고향 진해로 돌아가는 작곡가 임수철씨의 삶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설악수채화 아홉 번째 작품전

설악수채화(회장 박규례)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아홉 번째 정기 작품전을 연다. 설악수채화는 조양동주민자치센터 수채화교실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5년 결성됐으며, 현재 동명동주민자치센터와 속초교육문화관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전태극 여덟번째 사진전 ‘妙法蓮華’

사진작가 전태극씨의 여덟번째 사진전 ‘妙法蓮華’(묘법연화)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태극 작가가 지난 2013년부터 양평의 세미원을 비롯해 강릉과 속초, 고성, 중국에서 촬영한 ‘연꽃’ 시리즈 1,400점에서 선별한 40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제2회 설악산 단풍축제 21일 개막

‘제2회 설악산 단풍축제’가 10월 21~23일 3일간 설악동 C지구 주차장에서 열린다. ‘설악별미 오감만족’이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축제는 설악동 축제위원회(위원장 박덕희)가 주최하고 속초시, 국립공원설악산관리사무소가 후원한다.

속초등대 올해 마지막 공연 22일

속초등대 해양문화 공간의 올해 마지막 공연이 10월 22일 오후 3시 속초등대 야외공연장에서 만추(晩秋)특집으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7월 공연에서 호응을 얻은 흥성 팝페라팀 ‘라비도르’의 앙코르 무대가 마련된다.

제51회 설악문화제 시민통합축제로 ‘풍성’

제51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이 10월 7~9일 설악로데오 거리 일대에서 시민 통합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거리페스티벌은 거리퍼레이드를 비롯해 속초시민한미당,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 각종 전시 및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퍼커션맨 밴드와 함께 ‘희망콘서트’

주택관리공단 속초청대관리소(소장 김남식)는 10월 19일 오후 4시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6년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퍼커션맨 밴드와 함께 한 ‘삶을 노래하는 희망콘서트’를 열었다.

국립산악박물관 ‘슈퍼미니’ 무료 상영

국립산악박물관(관장 박종민)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마운틴 시네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윤복 풍속화 한국무용으로 창작

양속희무용단(대표 양속희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장)은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9번째 정기공연 '춤-단오풍정'을 연다. 이번 공연은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 화첩 '혜원 풍속 도첩'을 한국무용으로 창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도 무형문화재 '속초도문농요' 공연

속초시가 속초 도문농요의 재현과 보존회 활성화를 위해 2회에 걸쳐 도문농요 공개 공연을 개최한다. 1회 공연은 10월 26일 오전 11시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됐고, 2회 공연은 오는 11월 25일 오전 11시 속초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선보인다.

2016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

10월 28~29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열린 2016년 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에서 예총 회장들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봉재 속초예총 회장 등 문화두레 참여 시·군 예총회장들은 29일 오후 1시부터 갯골생태공원 내 교육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문화두레의 민간참여와 운영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1월

음악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기행

속초예총 음악협회(회장 강은희)가 11월 12일 오후 3시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이규성 동국대 음악원 교수(사진)를 초청, '음악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기행'을 연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이 해설했던 2008년 EBS TV '세계테마기행'과 '이탈리아의 유산'을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 음악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제8회 영랑원드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영랑초등학교 관악부 '영랑원드오케스트라'(지휘자 곽대근)가 11월 11일 오후 2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여덟 번째 정기 연주회로 주민들과 만난다. 이번 연주회는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이 후원한다.

속초민예총, 통일과 문화예술 만나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효)이 '제19회 통일문화제'와 '제21회 민족예술제'를 잇달아 연다. 속초민예총은 11월 16일 오후 7시 공간소극장(교동)에서 통일담론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제19회 통일문화제'를 개최한다.

제2회 바다사랑 전국사진 촬영대회

제2회 굿모닝 바다사랑 속초 전국사진 촬영대회가 2016아바이마을 알도루목축제 기간(11월 18일~27일)에 청호해변에서 개최된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시지부(지부장 김성학)는 오는 19일 오전 5시~11시 청호해변에서 모델 연출을 통해 촬영한 사진과 알도루목축제 기간에 촬영한 사진을 접수 받아 시상한다.

제20회 속초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속초시립합창단(지휘 황영승)이 11월 19일 오후 7시3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0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시립합창단은 우리 가곡과 가요, 외국곡을 부른다. 우나소토 앙상블(피아노 5중주)과 오카리나 연주자 정태규 씨(정선 함백중학교 교감)가 찬조 출연한다.

실향민 음식과 와인이 만나면...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효)이 실향민문화를 예술로 표현하는 '2016 갯배예술제'를 11월 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아바이마을 신수로 일원에서 개최한다. 민예총은 지난해까지 갯배 선착장 부근에서 '갯배문화제'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예술행사를 강화하고 '갯배예술제'로 변경했다.

제2회 강원도어린이연극제 19일 개막

도내 초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2회 강원도어린이연극제'가 11월 19~21일 3일간 강원진로교육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극제는 속초 교동초교를 비롯해 강릉, 정선, 철원, 인제, 고성 등 도내 8개 초등학교가 참가한다.

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 대상 선정

속초시립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하는 '2017 국립민속박물관 K-museums 공동기획전' 사업 대상에 선정돼 실향민문화 테마특별전을 개최한다. 시립박물관은 실향

민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 ‘고향! 그리고 또 다른 고향’을 주제로 응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속초시립박물관 ‘해정서에 동행전’

속초시립박물관이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제2기획전시실에서 지역작가 초대전 ‘해정서에 동행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속초·고성·양양 주민으로 구성된 해정서에연구원 회원들이 옛 성현의 말과 시를 다양한 서체로 표현한 서예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대포야 사랑해’ 축제 성황리 마무리

속초시가 대포항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시작한 ‘2016 바다별빛 대포야(夜) 사랑해(海)’행사가 11월 12일 15번째 공연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시는 관광어항으로 개발된 대포항의 활성화를 위해 1.2km 구간에 이간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바다별빛거리를 조성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토요일 저녁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2016 속초연예예술인의 밤 개최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회(회장 김기선)가 11월 23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에서 ‘2016 속초연예예술인의 밤’ 행사를 연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속초연예협회 초대 회장과 속초예총 회장을 역임한 한기학 고문 고희 축하 연주회도 겸한다.

제6회 설악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설악원드오케스트라(대표 문재규, 지휘 임정호)가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6회 설악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연다. 공연은 빌 콘티의 ‘룩키 테마’, 크루와 가우디의 ‘당신에게 눈을 땔 수 없네요’, 마이크 디언의 ‘상젤리제’ 등 9곡이 준비됐다.

런 갯마당 ‘호숫가를 거닐다’ 공연

(유)런 갯마당이 ‘Timeless : 호숫가를 거닐다’를 11월 30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한다. ‘2016 강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네 번째 우수 레퍼토리 공연인 ‘호숫가를 거닐다’는 속초 영랑호를 배경으로 전해 내려

오는 설화 및 전설 등을 옴니버스 형식을 차용해 수목화와 창작국악의 합작으로 풀어낸다

향토, 어르신문화학교 수료/발표회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11월 23~25일 문화회관 소강당과 전시실에서 향토 및 어르신문화학교 수료식과 발표회를 연다.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는 1993년부터 시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여명이 참여했다

속초제니스합창단, 송광사서 합창공연

속초제니스합창단(단장 채성남)이 11월 17일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진화스님) 제12회 금강산림대법회 회향식에 초청돼 합창공연을 펼쳤다. 속초제니스합창단은 단원 51명이 활동 중이며, 내년 4월경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합창발표회를 열고,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인섭 회원, 제1회 속초민예총 예술인상 수상

속초민예총(회장 박민호) 문학협회 김인섭(사진 왼쪽) 회원이 회원 친목과 정보교류, 민예총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속초민예총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박민호 회장이 11월 17일 제21회 민족예술제 개막식에서 김인섭 회원에게 예술인상을 수여하고 사비로 마련한 행운의 열쇠(금 1돈)를 증정했다.

12월

제19회 청소년 댄싱, 가요경연 개최

춘천지방경찰청 속초지청 법사량위원 속초지역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9회 청소년 댄싱·가요 경연제 본선이 12월 11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회는 속초·고성·양양 중·고교생들이 참가하며, 예선을 거친 20팀이 12월 11일 본선을 치른다.

설악아첼오케스트라 2회 정기연주회

설악아첼오케스트라(지휘 이진희)가 12월 3일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단원은 총

65명이며 학생들과 일반인들로 구성됐다. 공연은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오페라 카르멘 삽입곡,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 등 14곡이 준비됐다.

오르아트컴퍼니 '겨울 소나타' 공연

국립산악박물관(관장 박종민)이 12월 10일 오후 2시 박물관 1층 로비에서 2016년 마지막 '山樂, 산에서 즐기다' 프로그램으로 오르아트컴퍼니의 <겨울 소나타> 음악공연을 열 예정이다. 바이올린과 플루트,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연주자와 소프라노가 출연하며, 빔 프로젝트를 사용한 테마별 아름다운 영상과 공연을 통해 어린이 시각에 맞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개된다.

속초미협 '자선미술전' 12월 3일 개막

(사)속초미술협회(지부장 고주리)가 12월 3~9일 속초시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2016 자선미술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주리(공예) 회장을 비롯해 김영복(서양화)·김광희(서예)·박동국(수채화) 명예회장, 김병택(서양화) 부회장, 박혜정(서양화) 사무국장, 정봉재(수채화) 속초예총 회장 등 회원 28명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된다.



속초시의 문화예술 공로자
제28회 속초 문화상 수상자



문화예술 부문 : 신오일

1980년대 초부터 '속초청년문화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속초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움.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연극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속초문화예술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됨.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 윤관훈

동서고속화철도 국내사업 추진확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설악권 4개 시·군의 지방자치 협력방안 제시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공로가 인정됨.



체육 부문 : 송준한

유도인 출신으로 속초시 유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속초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후배 체육인들에게 모범을 보인 공로가 인정됨.



속초의 문화예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순번	직위	성명	주 소	비고
1	원장	박무웅	속초시 설악산로 489	돌감자 장학회장
2	부원장	최현식	양양군 서면 고인돌길 200-49 "양양고인돌오토캠핑장"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3	부원장	김계남	속초시 미시령로 3439, E-편한세상@ 104-604	아시아항공여행사 대표
4	부원장	박정은	속초시 중앙로 121, "동제약국"	동제약국
5	이사	구영모	속초시 농공단지길 98, "파이프랜드"	(주)파이프랜드 대표
6	이사	권영석	고성군 토성면 천학정길 33, "파도와 민박"	파도와 민박 대표
7	이사	김계양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163-11, "대표하우스"	속초대표하우스 대표
8	이사	김상복	속초시 청대로 207, 삼성세르빌 104동 901호	속초연탄은행 대표
9	이사	박정기	속초시 청대로 204번길40 부영@504-902호	농업
10	이사	곽철신	속초시 미시령로 3409, 럭키설악타운@ 103-1205	영북지구 총청향우회 대표
11	이사	김순옥	속초시 신흥3길 9 청기와 토종닭	청기와 토종닭 대표
12	이사	김태성	속초시 만천4길19-1, 프레지던트인텔빌라트 102호	전) 청호동장
13	이사	문광철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3933-6, 동명@나동 205호	조양동 바르게살기 위원장
14	이사	양재호	속초시 교동로 5길 19	전)교육행정공무원
15	이사	어재석	속초시 중앙로 182	전) 속초시의회 과장



속초의 문화예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순번	직위	성명	주 소	비고
16	이사	윤광훈	속초시 청초호반로 182, “디자인미디어”	속초시번영회장
17	이사	윤숙자	속초시 교동로 3길 42-1, 설악유치원	전) 설악유치원 원장
18	이사	윤장원	속초시 미시령로 3275, “장원주유소”	장원주유소 대표
19	이사	이영순	속초시 중앙로 110번지 (금호동) “나이키 속초점”	나이키 속초점 대표
20	이사	이춘실	속초시 만천4길 1, 럭키설악타운1차@ 2-606	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21	이사	이태자	속초시 동해대로 4256, “남부새마을금고”	남부새마을금고 전무
22	이사	임동환	속초시 농공단지길 102-1,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대표
23	이사	장용근	속초시 농공단지1길 28-37, “금강기획 에이피”	금강기획에이피주 대표이사
24	이사	정봉재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 11, 동부@ 102-803	속초예총 회장
25	이사	최용석	속초시 청대로 22-7, 성호@ 202-105	보배이에스씨 대표이사
26	이사	탁동식	속초시 동해대로 4284, 하우스토리@104-801	속초고등학교 교장
27	이사	함봉식	속초시 만천4길 1, 럭키설악타운1차@ 1-1108	주세림 대표
28	이사	이옥인	속초시 번영로 67번길 10-5	민주평통자문위원
29	이사	박재일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 과장
30	감사	허우린	속초시 만천7길17, “두산교육센터 ”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상임부회장
31	감사	이상호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15, 동부@ 102-702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속초문화원의 주요사업

-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의 활발한 활동 및 기능 확대
- 사회 교육 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 정착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 DB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기획
 - 다양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북창사자놀이 전승 및 보존
 - 속초도농농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용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문화의 온기가 전하는 속초문화원,
문화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Tel. 033 632 1231, 639 2439 Fax. 033 632 1241
www.sokcho-culture.com